

계간

북한 지역연구

겨울
2023

통권 제3호

이번호 주제: 라선(羅先)특별시

라선의 공간구조와 북·중·러 초국경 협력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실행 가능성
나선경제특구 내 산업,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함경북도 동북부 국경도시(라선, 경흥,
경원, 온성)의 교회를 찾아서
사회주의국가 경제특구에서의 비즈니스 선교
해방 직후 북한의 동아기독교(침례교)
조선장로교의 연해주 선교와
첫 선교사 최관홀(崔寬屹)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3 겨울 통권 제3호

이번호 주제 : 라선(羅先)특별시



24

02 권두언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역사



31

10 라선의 공간구조와 북·중·러 초국경 협력

24 박종수 박사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위원장)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실행 가능성



67

31 김병욱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북한학 박사)
나선경제특구 내 산업,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37 함경북도 동북부 국경도시(라선, 경흥, 경원, 온성)의 교회를 찾아서



74

67 이다니엘 (IBA 사무총장)
사회주의국가 경제특구에서의 비즈니스선교

74 안희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 기획처장 / 한국로잔위원회 중앙위원)
해방 직후 북한의 동아기독교(침례교)



Cover Story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라선의 버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랑,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3년 12월 29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81

81 정오상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선교사 1992-2021사역, 경남노회 공로목사)
조선장로교의 연해주 선교와 첫 선교사
최관율(崔寬屹)



96

96 라선의 사람 사는 이야기

102 고운님
라선에 사는 고운님과 이웃님, 그리고 주인님



108

106 라선과 주변도시 출신의 유명인
최재형(崔在亨, 1860-1920)
송창근(宋昌根, 1898-1951(추정))
김재준(金在俊, 1901-1987)

108 라선의 이모저모
라선과 주변도시의 음식



109

109 언론에 비친 라선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라선 소식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역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19세기 말에 선교기지로서 개척이 된 원산은 북한의 북동 지역과 오늘날의 함경도와 자강도의 전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기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원산을 개발하였고, 원산을 기점으로 함경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중국을 점령하는데 후방 병참기지로써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크로노스적 환경 속에서 북한의 북동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종들을 적시에 카이로스의 손길로서 보내셨습니다. 미국 북 장로교회 한국 선교부는 원산 이북 지역을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로 이관하였고,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는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파송하여 이들 지역에 선교기지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의 선교기지로 개척이 된 곳은 함흥, 성진, 청진, 회령, 종성, 온성, 경성 등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자 1912년에 함경 노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917년에 함경 노회는 성진에서 함남과 함북 노회로서 두 개 노회로 확장이 되었고, 1925년에는 명천과 길주 지역 중심으로 함중 노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동북 지역 즉 북간도 지역에 수십 만의 동포들이 이주하여 살았는데 함경 노회는 이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함경 노회 산하로 있다가 교회가 많이 설립되고, 확산이 되므로 북간도, 동만주 노회를 따로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지역에 선교 중심기지는 용정이었습니다. 1922년에는 시베리아 노회가 세워졌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가 캐나다 본국에서 감리교회와 회중 교회를 포괄한 연합교회로서 구조가 개편이 되자 한국에서 활동하던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본국의 연합교회 소속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가 연합교회로서 개편이 되는데 신학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고등비평 이론인 양식비평과 문서비평이 받아들여졌고, 성경의 권위로서 성경의 무오류성과 불오성이 거부되고, 다양한 자유주의 신학 사조가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연합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구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인 대다수의 선교사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선교사들로서 연합교회 소속을 거부하였고, 한국을 떠나서 만주 지역이나 일본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태어나서 교회의 지도자로 양성된 송창근, 김관식, 김재준, 김춘배, 김영배, 김영주 목사 등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귀국했는데 한국교회에 자유주의 신학 사조를 소개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 침례교회의 산실이었던 동아기독교를 창설했던 말콤 펜윅 선교사는 1905년 설립이 된 선교사 연합공의회의 선교지역 분할정책과 상관없이 원산을 본부로 하여 일반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오지와 산간 지역 복음화를 목표로 한 광범위한 순회 선교와 이들 지역에 선교기지를 세우고, 교회를 확산시켰습니다. 말콤 펜윅의 오지 선교는 1889년부터 1949년의 기간 동안 함경도의 전 지역, 북간도의 연변 지역, 러시아 해삼위 즉 블라디보스토크와 다른 연해주 도시에 수백 개의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이들 지역의 침례교회가 전 한반도의 침례교회의 약 75%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러시아에서 1917년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므로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핍박받기 시작하고, 순교자가 발생하자 연해주 지역의 교인들은 함경도 지역의 교회들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기독교회는 일본 식민당국에 의해서 1944년 신사참배와 동방 요배 거부를 명분으로 해체를 당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동아기독교회는 자성, 나진, 경흥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조직을 재결성하며 활발하게 교회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공산화의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공산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경험하였던 많은 동아기독교회의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북한의 공산화를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호 연구지에 원산지역을 소개할 때 선봉에서 소천하였던 동아기독교의 4대 감목이었던 김영관 목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 그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연구된 글이 있기에 소천 시기의 정정과 함께 김 목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말에 제 삼국에서, 북한 내지에서 나온 한 지하교인에 의해서 김영관 목사가 살아있다는 전갈과 함께 그분의 거주지역 주소가 전달되었습니다. 선봉 xxx이었습니다. 연변에서 왕청과 연길에 그분의 친형이었던 종성동 교회의 순교자로서 김영국 장로의 세 손자가 침례교회의 목사가 되

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길의 SP 교회의 KJ 목사
와 교류를 나누면서 북한에 살아있는 김영관 목사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과 근황
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으로 장수하시다가 1991
년 소천하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북한의 공산정권은 함경
도 지역의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느 날 일군의 국군 복장을 한 군인들이 나타나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이 보냈다
는 전갈과 함께 앞 바다 해안가에 배를 대기시켰으니 남한으로 가자는 것이었습
니다. 하나님께서 순간 김영관 목사에게 분별의 은혜와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셨
습니다. 그들이 김영관 목사를 함정에 빠트리기 위한 공산정권의 함정인 것을 알
고, “북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내가 왜
남한에 내려가야 하느냐”고 오히려 그들을 야단치고, 남한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북한 공산정권의 함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바다 한복판에서 비밀리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의 답변 가운데 북한교회
와 교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고,
기독교 말살 정책이 70년 동안 계속되며 그 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도 북한지역
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김일성 가족 일가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
리시며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의 흐름인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 손길로써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구속역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에서 동양선교회로 1907년에 한국에 진출한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성결
교회는 한국에 선교회로서 들어왔기에 선교사 연합공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오지 개척 선교를 표방하면서 동아기독교교회처럼 함경도 북부지역과 인접한 동만
주 지역에 선교활동을 집중하였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함경도의 회령, 온
성, 종성, 나진, 웅기, 경흥, 굴포, 훈웅 등지에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929년에
는 함북 지방회가 세워졌습니다. 1943년 동아기독교교회와 비슷한 이유로 일본 식
민당국에 의해 교단이 해체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보수적인 신학을 지닌 북한의
성결교회는 남한의 성결교회와 구분하여 평양에 본부를 두고, 함경도 지역 중심
으로 교회조직을 재편하였습니다. 감리교회는 1908년에 이화춘 전도사를 북간
도에 파송한 이후 주로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920
년도에 이들 지역에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북한의 북동 지역 특히
함경도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가 본국에서 연합교회로서 구조가 개편이 되고, 자유주의 신

학 사조의 온상이 되었을 때 보수적인 구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은
만주와 일본으로 선교지역을 이전했지만 본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헌신하고, 사
역했던 함경도와 오늘의 양강도 지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함경도 지역의 장로교
회는 함북, 함남, 함중 노회를 세 군데 세울 정도로 성장하였고, 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와 시베리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노회를 확산시켰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함경도 지역의 많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이
주하였지만, 그 수효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교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아기독교교회와 성결교회도 함경도 지역이 선교 결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었
고, 이곳에서 만주와 연해주, 시베리아 지역에 교회를 확산하였습니다. 동아기독
교의 창설자가 되는 말콤 펜윅은 원래 장로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원산에 왔
었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침례교회의 선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순회선교단이라는 독립 선교부를 운영하면서 장로교
선교사들과 긴밀한 교류를 나누었고, 본인이 훈련한 현지 사역자들을 장로교 선
교사들과 함께 일하도록 소개도 하였습니다. 함경도와 오늘의 양강도 전 지역에
걸쳐서 장로교, 동아기독교, 성결교는 서로 긴밀한 교류를 나누었고, 만주와 연해
주,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감리교회와도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북한이 공
산화된 이후에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의 많은 광물자원은 김일성의 중화학 산업단
지와 광산지역 및 군수기지로써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
해서 수만 명의 국군 포로와 주민 성분조사 시에 기독교인으로 확인이 된 수만 명
의 교인을 이곳으로 추방하여 노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북한 공안당국
의 철저한 감시 기제 가운데서 생활하며 중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함경도와 양
강도 오지 산업단지로 추방된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중노동에 시달리는 가운
데서도 교인으로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창의적 방법으로 혹독한 감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였고, 때로 이곳에 산재해 있는 원래 신자들과 비밀교
류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정치범 수
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적대적 환경 가운데서도 순교를 각
오하고, 일사 각오의 신앙 정신을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북한 전 지역에 1990년도 중엽부터 3년 동안의 기근과 연이은 폭우로 온 땅이
황폐해지고, 곡식이 생산되지 않자 굶주림이 만연하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비
극이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함경도와 자강도, 양강도 지
역의 주민들이 중국으로 쉽게 월경하였습니다. 간도와 만주 지역으로 불렸던 연
변 지역과 주변 도시에 거주하던 조선족 동족 중에 조선족 교회와 교인들이 앞장
을 서서 이분들을 구제하는데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십여 년 이상 눈부신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과 한국의 침례교회는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신학교육기구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공산화 이전에 침례교회의 주요 활동 지역이었던 북한의 북동 지역을 구호 및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출하였습니다. 연변의 신학교육기구를 통해서 양성된 많은 침례교 사역자들이 연변 지역에서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북동 지역을 부지런히 방문하면서 본인들과 연관이 된 친인척 중심으로 구제 활동을 하였고, 공산화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루터기 신자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간증과 북한 신자들의 모습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침례교회뿐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도 간도와 만주의 거점 지역에 세워진 조선족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북한의 경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을 섰고, 북한의 북동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숨어 있는 교인들을 구제하며, 신앙인으로 생존하도록 돕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장로교회는 연변 지역에 고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대학을 세웠고, 최근에 폐교하였지만 약 30여 년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신앙을 가진 인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연변의 과기대가 계기가 되어서 평양에 2010년에 과학기술대학이 세워지기도 하였지만 2017년 이후에 오토 웬비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출입을 금지하였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북한이 봉쇄되었을 때 평양의 과기대는 거의 폐교 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문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장로교회와 침례교회는 연변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제 활동을 시행했지만, 무엇보다도 1991년에 김일성에 의해 자유 경제무역지대로 선정이 된 나선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다양하게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공산화 이전에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의 주요 활동무대이었던 곳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훈춘과 두만강 삼각지대와 연결한 창지투 개발계획에 나선 지역을 포함했고, 나진항의 1부두, 4-6부두를 50년간 조차하여 원정리에서 나진까지 도로 포장을 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나진과 하산까지 국제철도를 러시아 철로와 같은 광궤로 건설하고, 나진항 2부두를 49년간 조차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나선에 남북한의 동의를 얻어서 동부가스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해서 남한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나선경제무역지대가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발전하지 못하자 나선에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나선을 국제적인 상업무역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5년에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정권에 있습니다. 계속된 핵실험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시도 등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나선 개발은 거의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진과 선봉 지역에 중국, 러시아, 유럽 각국의 자본과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각종 비영리 기구들이 북한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이로스적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산화 이전의 이곳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까지 연결한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믿음과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손길 가운데 누룩처럼 하나님의 구속역사가 일어나는데 사탄의 공격이 그만큼 치열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제 삼국의 모처에서 나선 지역을 오랫동안 방문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던 한 외국인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그루터기 신자들의 현황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달한 소식 가운데에는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나선 지역에서 여러 유관 부문에 숨어 있었던 중간급 이상의 관리들 가운데 비밀 신자가 적발되어서 거의 20여 명이 처형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교한 그분들의 명단을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뿐이 아닙니다. 나선에서 많은 분이 체포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AM 선교에 관한 글을 쓰신 다니엘 이 선교사의 귀한 옥고의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북한의 북동 지역의 신자들은 크게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공산화 이전에도 신자로서 그쪽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그루터기 신자로서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축복이면서 가장 위기 상황은 북한에서 말하는 제일 차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북한 외부의 신자들과 연계망을 가지고, 다방면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지하교회의 실체가 드러나며 많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체포되고, 처형당하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왕청 지역에서 활동하던 김영관 목사의 친형의 손자인 두 분이 1990년대 말에 “창조의 7일”이라는 저서를 써서 본인들이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의 동북 지역에 숨어 있는 신자들에게 배부한 것입니다. 외부와 고립된 생활 가운데 친인척 관계로 신자들과 연계된 두 분의 저서이기에 대다수 신자가 문제의식 없이 이 책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에 심각한 신학적 혼란과 거의 사이비 성경해석이 있었습니다. 에덴동산의 선악과나무도, 사탄을 대변하는 동산의 뱀도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손길로 사용이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생명 나무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하이퍼 칼빈니즘적인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여

기에는 죄의 실상으로 그 홍포함과 두려운 파괴력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성자 하나님의 자기희생과 고난의 의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근원인 사탄과 악령과 그 추종자인 악인들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북한 내부의 신자들에게 신학적인 큰 혼란을 주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엽에 중국의 동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이단 세력인 신천지가 물량 공세와 더불어 자신들의 교리 책자를 현란하게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 내부로 반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구원파의 교주인 박XX의 추종 세력이 신천지와 비슷하게 활동하며 그의 저서들을 북한에 반입하여 북한의 숨어 있는 신자들에게 또한 같은 신학적 혼란과 미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동북 지역은 북한의 나선 지역, 다른 많은 내륙 지역과 연계하여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그의 추종 세력들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 내부 신자들의 영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려는 온갖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에 진출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외 기타의 선교 세력은 다양한 신학 기구를 세워서 연변 지역의 교회 지도자를 훈련했으나 이것 또한 적지 않은 신학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지의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한 조선족 사역자가 장로교회에 속한 선교사와 연계하여 활동하므로 다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신학과정을 공부하였는지 말입니다. 그는 현지에서 실시되는 최소한 세 개의 신학 과정을 공부하였고, 두 군데서 목사안수를 중복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윤리적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다양하게 배울수록 좋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적 토대가 잘 배양된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라 중간에 늦은 나이에 예수 믿게 되어 음성적으로 실시되는 신학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들은 것은 많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와 본인도 백화점 쇼핑하듯이 취사선택하여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과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선교 현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북한선교를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합니다. 북한 내부의 고난 받는 그루터기 교인들에 대한 피상적 지식도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탈북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짧은 목회 경험을 가지고, 북한선교의 전문가로 행세하며 활동을 하는 데 따르는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북한 내지에 산재하여 있는 그루터기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안정시키고,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 신앙과 신학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국과 연계하여 공식이든지 비공식이든지 중국을 오고 가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된 많은 북한 북동 지역의 두 번째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 신자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의 감격을 두고, 위험한 상황에서 감시를 혹독하게 받는 처지에서도 신앙을 유지하여 교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노출됨이 없이 안정되게 북한에서 신앙인으로 생존케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선교는 통일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과제가 아닙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북한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북동 지역의 그루터기 신자들은 흔들림이 없이 영적 분별력과 위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조심하고, 창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까지 역사하셨듯이 앞으로도 더욱 놀랍게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북한 내부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북한선교의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산화 이전 선교사들이 교단 소속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며 결속했듯이 그러한 선교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라선의 공간구조와 북·중·러 초국경 협력

들어가며

북·중·러 국경에 위치한 북한의 국경도시 라선은 1993년 9월 라진시와 선봉군(이전의 웅기군)이 합쳐져 생겨난 도시이다.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라진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일본이 만주-조선 북부-일본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라진항과 라진 철도역이 들어서면서 도시로 성장했다. 일제는 1933년 8월 웅기로부터 두만강을 끼고 회령에 이르는 도문선을 개통했고 이후 길화선(길림-회령)을 개통한다. 길화선은 당시 일제가 영향력을 확대하여 결국 정복하게 될 만주와 일본을 잇는 노선으로 나진, 웅기, 청진 사이에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 종착역이 나진으로 확정될 즈음에는 나진 일부지역의 땅값이 10-20배가 폭등했고.¹⁾ 1924년 3만원(지금의 150만원)을 주고 나진 앞바다의 돌섬 두 곳의 땅 120만 평을 산 김기덕이란 이는 무려 200배의 수익을 챙겨 줄지에 함북 최고의 거상 갑부가 되었다.²⁾ 이 사건은 조선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 부자들 사이에 제2의 나진을 찾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확산했다고 전해진다.

웅기군은 일제강점기 경흥군 웅기읍이 확장하여 독립한 도시로 일제 패망 직전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직후 소련군이 한반도에 상륙한 곳이 웅기항이었다. 공산정권 수립 이후 소련의 한반도 최초 상륙 지점을 기념하여 “선봉”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 두 도시가 1993년 합쳐져 라진-선봉시가 되었고 2010년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라선특별시로 승격되었다.³⁾ 라선시가 남한과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91년 12월 이곳에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치되면서 부

터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치된 후 남한의 삼성전자와 LG상사를 비롯하여 대 상물류, 한국토지공사, 두레마을 등이 라진에 진출했다. 1998년 초 남한의 햇볕정책과 맞물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명칭에서 ‘자유’가 삭제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 였으나, 1998년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억류사태가 일어나고 남한기업인 들의 라선 입국이 거부되며 국제사회의 기대는 수그러들게 된다. 이때 남한 기업들 의 투자 역시 막을 내렸다. 중국과 북미 기업인들의 투자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 며, 라선은 제한적으로나마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에 서는 라선의 경제특구가 가진 특징과 라선지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라선의 교통, 시장, 기업체, 교육기관 등의 공간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1. 라선의 도시구조와 교통

라선시의 전체 면적은 904km²이며 이는 평양시의 절반 크기로 북한의 일반적 도 청 소재지들보다는 큰 편이다. 인구는 2008 기준 196만 명이며 전체 면적 중 경제 무역지대는 470km²로 전체면적의 50%를 차지한다.⁴⁾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라선특별시	개성특별시
면적(km ²)	1,849	1,295	904	755
인구(명)	3,255,288	366,815	196,954	308,440
인구밀도	1,760	283	217	408

표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통계청 북한통계(<https://kosis.kr/bukhan/search/search.do>)를 참조로 필자 작성

라선을 지역별로 구분하자면 크게 선봉, 라진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웅상을 비롯한 두만강 노동자지구도 발전하고 있다. 두만강-웅상 지역에는 주로 지방급 농업 이, 선봉지역에는 지방급 산업과 중앙급 화학공업공장이 있다. 라진 지역에는 조선사업 소와 항만이 위치했으며 호텔, 카지노, 식당, 상점 등 합영-합작기업 또는 외국 기업이 투 자한 서비스업 사업체와 수산물 가공업체가 위치해 있다.⁵⁾

라선의 교통발전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대륙진출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연해주를 소련이 장악하면서 일본은 1922

1) 송규진, “함경선 부설과 길화선 종단항 결정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나진·웅기·청진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7호 (2014) p. 345.

2) 김남일, 『함경도 이야기』 (서울: 학고재, 2023), p. 219.

3) 이찬우, “두만강 넘어 대륙과 해양을 향한 라선을 바라보다,” 라이프인 2020, 10, 14,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453> (검색일: 2023, 11, 20)

4) 통계청 북한통계 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d=DT_1ZGA17&vw_cd=MT_BUKHAN&list_id=101_001_001&conn_path=MT_BUKHAN&path=%252Fbukhan%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23, 11, 07)

5) 김영희, “북한 나선시 산업개발 실태 연구,” 『KDB북한개발』 2019년 겨울호(통권 21호), (2019) pp. 84, 85.



라선의 지역 구분과 주요 산업(Google Earth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2. 10. 22)

년 연해주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미 정복한 한반도에 추가로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던 일본은 일본-조선-만주의 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이때 일본과 만주의 신경(新京, 이후 만주국의 수도가 됨, 현재의 길림성 장춘(長春))의 최단 항로의 항구가 바로 웅기였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1927년부터 “조선 철도 12년(1927-1938년)계획”을 시행하여 두만강변을 따라 도문선(웅기-종성, 163km, 1927년 착공, 1933년 개통)을 신설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군은 함북 북부지역의 해안선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라진항에 대한 개발을 결정하였는데, 라진을 새로 개발하게 된 데에는 수심이 깊어 전함과 화객선의 접안에 용이한 이점이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청진, 라진, 웅기 세 개의 항구도시가 “북선삼항(北鮮三港)”으로 함께 분류되었고 남만철도의 신경(장춘)-도문 철도의 종착역으로 라진이 결정되었다. 이후 웅기와 라진을 연결하는 철도도 1935년에 개통된다.⁶⁾ 당시 개발된 철도노선은 해방 후 지금까지 보수를 거치며 함경북도의 주요 노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선은 러시아, 중국과 이어진 국제열차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1952년 6.25 전쟁 중 소련은 하산에서 두만강을 건너 두만강역에 이르는 나무 다리철도(광궤)를 개통했다. 라선은 6.25전쟁 중 한 번도 남한/UN군에 점령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 다리는 파괴되지 않았고 이후 1959년 이 다리는 대대적 보수를 통해 철교로 바뀌



2013년 개보수된 라진-하산 노선에 러시아의 열차가 통과하는 모습(러시아 철도공사 제공)

어 “조러 우정의 다리”라 명명되어 현재까지 북한-러시아 사이의 유일한 육상통로로 유지되고 있다.⁷⁾ 라선지역 기반시설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로 ‘라선콘트란스(RasonConTrans)’가 있는데, 이 회사는 러시아가 70%, 북한이 30%의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로 2008년 10월 설립되었다. 2013년 9월에 완료된 라진-하산 철도 개보수도 라선콘트란스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철도는 하산-라진(52km) 노선과 지선인 라진역-라진항(2km) 구간으로 구성되며, 18개의 교량과 터널이 개보수되고 현대식 신호기 및 통신 장치가 새로 설치되었다. 또한 두만강역-라진역의 30km구간은 러시아식 광궤(1,520mm)와 한반도에서 사용하는 표준궤(1,435mm)가 공존하는 복합궤로 건설되었다. 라진-하산(54 km)노선 이외의 또다른 국제노선으로 라선과 중국의 지린성 투먼을 연결하는 라진-투먼 국제노선(169km)이 있다. 그 밖에도 북한은 2012년 중국 훈춘과 라선을 연결하는 철도개발을 논의했으며, 중국의 지린성 훈춘시는 2015년 12월 3일 ‘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을 발표하면서 훈춘-라선 고속철도 개발계획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노선으로 북한의 동서를 연결하는 평라선(평양-라진), 함북선(청진-회령-라진)이 라선을 지난다.

라진의 항만은 일제의 만주침탈 과정에서 큰 발전을 이룬다. 1930년대 초 일제는 만주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군대와 물자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항구로 라진을 점찍었다. 당시 일제는 이곳의 천혜 조건에 주목했다. 위에서 정리했듯 라진항은 부동항(不凍港)으로서 수심이 깊으면서도 파도가 잔잔해 군사 및 물류 거점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일본은 라진항을 연간 화물처리능력 300만 톤의 대형 항만으로 건설하는 5개년 공사를 1933년 착공하여 1935년 완성한다. 동시에 만주국 도문세관사무소, 국제운수창고 등을 갖추고 만주직통열차를 통해 한반도 동북부와 만주를, 항로를 통해 일본을 연결하게 된다. 일본 니이가타와 츠루가, 사카이미타노에서 출발한 연락선이 청진, 라진, 웅기에 기항하였다. 당시 라진과 선봉 주위에 상공업과, 수산물가공업 이외의 산업이 전무한 탓에 “방은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현관만 훌륭하다”는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조선과 만주의 식민화로 동해가 사실상 일본제국의 내해(內海)가 된 상황으로 연간 5-6만 명이 라진항을 통해 일본



라진항 부두 현황 (연변대 윤승환 교수, “청진항 개발계획과 북중 경협방향” 2019)

6) 이찬우, “두만강 넘어 대륙과 해양을 향한 라선을 바라보다,”

7) 이찬우, “두만강 넘어 대륙과 해양을 향한 라선을 바라보다,”



향으로 소련이 탐낼 만한 항구였다. 소련은 1949년 3월 북한과 협정을 맺고 1979년까지 30년간 라진을 조차(租借)했고 심지어 라진을 자국 영토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후 2008년 러시아는 라진항 3번 부두 운영권을 49년간 확보했다. 라진항 3호 부두를 콘크리트로 재포장해 석탄을 싣는 이동식 크레인용 레일과 연료탱크를 새로 설치했고,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바다 수심을 기존 9m에서 12m가 되도록 준설했다. 러시아가 이처럼 공을 들인 이유는 라진항이 자국 광산 지역과 아시아 항구들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로서 석탄 수출 중개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2009년 라진항 1호 부두와 2010년 라진항 4~6호 부두를 50년 동안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훈춘과 라선(라진·선봉)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도 완공했다. 이 다리의 정식 명칭은 ‘중조(中朝) 변경 취안허 통상대교’이다.⁹⁾

라선시에는 중국 훈춘시 취안허 세관과 연결된 라진항-원정리 도로와 러시아와 연결된 45km의 라진항-두만강 도로가 있다. 또한 북한 내부와 연결된 1급 도로는 청진-라선-우암, 2급 도로는 라선-은덕, 우암-조산-두만강-홍의-사회-하여평, 굴포-두만강 도로가 있다. 라진항-원정리 도로는 1995년에 북한에 의해 비포장으로 건설되었다. 이후 2008년 중국이 라진항 부두권을 확보하면서 훈춘-원정리-라진항 도로 건설을 약속했고 북중 양국은 2011년 6월에서 2012년 6월까지 기존의 비포장도로를 넓혀 포장하고 중·소형교량을 놓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 도로의 총길이는 50여 Km이고 너비는 평균 9m (최고 16m) 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취안허 세관에서 원정리 세관을 잇는 신두만강 대교(왕복 4차로) 건설을 합의하고

과 만주를 왕래하고 만
주와 일본의 물자가 자
유롭게 오갔다.⁸⁾

해방 후 라진은 소련의 극동 해군기지가 됐다. 러시아 역사를 보면 제정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라진은 극동지방의 부동

2015년에 착공하여 약 1년 후인 2016년 9월 개통하였다. 당시 공사비 1억 6,000만 위안(약 290억원) 전액을 중국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⁰⁾

2. 라선의 주요 산업체와 시장



라선의 경제특구 지정 이후 북한의 동해 전역의 수산사업소에서 생산된 생선이 라선에 모여 활어상태 혹은 가공되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들은 주로 라진만 연안을 중심으로 위치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라선대흥무역회사, 라진 수출수산사업소, 해양수산사업소, 수채봉수산사업소, 관진수산협동이 있으며 합영기업으로 백양회사, 배전회사, 신흥무역, 아이자와무역이 있다. 이중 라선대흥무역회사는 국영기업으로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품은 국내소비품과 중국수출제품으로 나뉘며 러시아산 게는 가공하여 다시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합작기업으로 수채봉수산사업소가 있다. 이 사업소는 중국의 흥하오식품공업무역유한회사와 합작하여

라진과 선봉의 주요 사업소, Google Earth 지도를 바탕으로, 최서윤, 『북한 함경북도 나진시 지역 실태』, KDB 북한개발, 14호; 김영희, 『북한 나선시 산업개발 실태 연구』, 『KDB 북한개발』, 21호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Google이미지 날짜: 2022. 10. 22)

8) 이찬우, “두만강 넘어 대륙과 해양을 향한 라선을 바라보다,”

9)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물살… 밀착하는 러시아와 북한, 동아일보 2023. 10. 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001/121450660/1> (검색일: 11월 7일)

10) 中 훈춘=北 나선 연결 신두만강대교 완전 개통, 연합뉴스, 2016, 11, 19, <https://www.yna.co.kr/view/AKR201611190299000097> (검색일: 2023. 11. 08)

설립되었으며 종업원은 약 3,000명이다. 이 사업소는 생산물중 70%가 중국에 수출되고 나머지는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¹¹⁾

라선은 국경 항구도시로 수산업과 함께 유통업이 발달하였다. 라선의 국영유통 기관으로는 선봉백화점, 라진직매점, 라선시장, 원정국경시장 등이 있으며 해외합작 혹은 해외기업으로 진흥회사, 두만강회사, 백양회사, 라원회사 등이 있다. 원정국경시장은 2017년 초에 중국 사업가의 투자로 착공하여 그해 완공하였으나, 대북제재와 북중관계 악화로 개장이 미뤄져 2018년 3월과 5월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7월에야 정식으로 개장했다.¹²⁾

중국의 진황도금지부동산개발유한공사와 북한정부가 합작하여 설립한 백호회사는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연건평 4만여㎡의 부지에 창고, 상업 도매건물 7개와 상점, 식당, 호텔 등 16동의 건물을 건설하였다. 이 건물군을 국제상업무역 중심이라 부르는데, 국제무역센터는 2017년 재건축을 시작해 2018년 3월 당초 규모의 두배 크기로 확장되었다. 당시 재건축을 통해 건설된 13층의 백호 호텔은 주로 중국인, 러시아인이 이용하며 국내 고위급 출장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무역센터와 비교되는 시장으로 라선시장이 있다. 국제무역센터가 주로 중국 상인이 매대를 임대하여 중국산 물건을 판매하는 반면, 라선시장은 북한 상품을 판매한다. 라선시장은 국제무역센터보다 1년 늦은 2014년에 완공되었으며 의류, 야채, 전자제품, 가전제품 매장으로 구분되어 도소매 거래가 모두 이루어진다. 외국 단독 투자 기업으로 강덕산업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중국 연변 네트

트워크 과학기술센터가 투자한 대형 슈퍼마켓으로 2012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되었다. 총 3층 규모로 중국제품과 북한의 임가공제품이 전국으로 판매된다.¹³⁾

이와 별개로 라선시에는 많은 시장들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위성



라선의 상권,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2022을 참고하여 작성(이미지 날짜: 2022. 12. 28)

11) 김영희, “북한 나선시 산업개발 실태 연구,” pp. 103, 104.

12) 김영희, “북한 나선시 산업개발 실태 연구,” p. 107.

13) 김영희, “북한 나선시 산업개발 실태 연구,” pp. 109-111.

분석에 의하면 라선지구 창평동에 2,781㎡규모의 창평시장이 있으며, 신흥동에는 16,869㎡규모의 신흥시장이 있다. 라선시에는 최근 몇 년간 폐쇄된 시장도 있는데 하현동에 위치한 선봉(하현)시장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선봉구역 중현동에 위치했던 중현시장은 2019년경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신흥 서쪽지구에 들어선 1,700㎡의 건물은 2016년에 처음 확인되었는데 이 건물도 최근 시장으로 확인되었다.¹⁴⁾

3. 라선자유무역지대와 북중 초국경 협력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용어는 1979년 중국이 경제 개방과 외자유치를 위해 개방한 동남부 연해 4개 도시에 대해 사용한 명칭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특구는 당시 중국의 4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기 보다는 세계 각국에서 지정하여 생산, 무역, 조세상의 법적, 제도적 지위를 부여한 자유경제지대, 수출입자유구역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에 따르면 경제특구란 어떤 한 국가 내에 정책적으로 특별히 선정된 공업단지 지역으로, 이곳에 진출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우대를 통해 기업의 설립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다.¹⁵⁾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특구 성공을 지켜본 북한은 제한적으로나마 외부와의 경제 협력을 시도한다. 먼저 외채상환 불능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은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해소하고, 김일성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개선하는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다. 1984년 1월 26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라는 연설을 하였고 정무원이 구체화하여 같은 해 9월 8일에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다음해인 1985년에는 합영법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등을 제정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 당국이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였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의 지속 등 리스크. 둘째, 합영법에 규정된 방법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셋째, 북한의 합영회사가

14) 홍민 외, 2022 북한 시장현황, p. 128.

15) 남궁영, “북한 경제 개방 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경제특구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경제』 1997년 7월호. (1997) p. 51.

재일조선인 기업가들의 투자로 한정되었다는 점¹⁶⁾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現 내각) 결정 74호’를 통해 함경북도 라진-선봉 지역의 621km²를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라진·선봉·청진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라진선봉이 경제특구로 지정된 데는 지리적 이점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라진과 선봉지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해에서 만나는 두만강 국경을 따라 삼각구도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양과 거리가 먼 특성은 라선이 제한적으로나마 개방의 실험장이 되는데 이점으로 작용한다.



조-중(북한-중국)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무역지대 관리위원회 협약식

1990년 중국의 주도로 동북아시아에서 상업무역통상 허브를 개발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인 ‘두만강개발사업’(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이 시행되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북한의 라진과 선봉지역이 동참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냉전 종식 후 북한의 지정학적 안보 상황의 변화, 그리고 냉전시대의 동맹국이자 경제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무역관계의 지형적 변화로 촉발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과거 이념의 동맹국을 실리적 동맹국으로 치환된 것으로 이해하였고 두 동맹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게 되었다. 중국-러시아-북한의 국경선에 걸친 ‘두만강개발사업’은 UN의 지지를 통해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골 및 북한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며, 국경을 개방하고, 외자유치(예컨대, 제조업, 관광 및 서비스업 등) 및 새로운 수출시장의 활로를 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국 주도의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제기한 국가 주권 상실과 같은 수많은 장애물과 안보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의 과정을 거치던 중, UN의 지지는 종료되었고, 결국 관련 사업은 정부간 사업의 메커니즘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업이 2005년에는 ‘광역 두만강개발사업’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관계 개선으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북한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했으나, 지원을 받는 것에 실패한 후 2009년 이 개발 사업에서 탈퇴한다.¹⁷⁾

북한은 라진-선봉의 개발과 관련하여 당초 제1단계(93~95년), 제2단계(96~

2000년), 제3단계(2001~2010년)에 걸친 3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단계로 추진하던 인프라 정비가 부진한데다 투자금액에 있어 목표 설정했던 액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외자유치 실적도 저조했다. 이에 북한은 1995년 초 당면단계(1995~2000년)와 전망단계(2000~2010년)의 2단계로 계획을 수정했다. 1997년 6월에는 라진·선봉지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였고 1998년에는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자유’를 삭제하고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로 변경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2009년 10월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등 북·중 간 경제 협력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라선을 방문한 직후 2010년 1월 라선 직할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었고 2011년 12월에는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북한의 독자적 사업은 권력 실세인 장성택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발표된 개정안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다(제4조)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이에 대해 보상(제7조)하며, 신변안전과 인권을 보장(제9조)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 즈음부터 중국인들은 심지어 개인 승용차를 몰고 들어오기 시작하여 라선의 시내에서 중국의 파란색 번호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라선에서는 외국인 단독투자, 합영-합작 투자로 개발된 수산물가공업과 유통, 호텔, 통신, 금융과 같은 서비스업 등이 발전했다. 2015년 기준 라선시에는 150개의 외국기업(직접투자)과 약 30개의 합영기업이 있었다. 이 지역에는 전기가 끊기면 발전소 책임자가 회사에 벌금을 지불하는 규칙이 있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라선지역의 직업윤리는 북한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만강 개발사업에 대한 UN의 지지 철회(2000년대 중반), 북한의 두만강개발사업 탈퇴(2009년)를 거치며 동력이 약해진 라선을 통한 북중 협력은 북한정권의 실세이자 북중협력에 있어서 상징적 인물인 장성택이 처형되며(2013년) 동력을 상실



중국의 훈춘과 북한 라선을 연결하는 관하세관



라진과 훈춘을 연결한 다리로 기차가 달리고 있다.

16) 송정환, “김정은 시대 특수경제지대 법제 연구,” 2020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9, 10.

17) 이수연, D. J. Ouellette, “북한 경제특구와 노동규율,” 『사회법연구』 37호 (2019) pp. 235, 236.

하게 된다. 이후로 북한은 2015년 11월 라선경제특구에서 활동할 북한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라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라선의 자체적 발전을 꾀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7년부터 강화된 대북 경제제재가 시작되며 경제특구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어 중국사업가들에 의한 소규모 사업, 중국인 관광, 러시아 석탄 중계 수송 등의 몇몇 사업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방역정책으로 인해 그마저도 끊겨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4. 라진-하산 프로젝트와 북러 초국경 협력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석탄 등 광물자원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라진항에 운송한 뒤, 이곳에서 화물선으로 옮겨 한국·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과 아시아 지역 수출화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해 이곳에서 TSR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룬다. 동일 프로



라진과 선봉의 주요 사업소 (Google Earth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2. 10. 22)

젝트의 1단계 작업은 북한과 러시아 간 라진-하산 철도연결 및 라진항 개건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2단계에서는 남·북·러 3자 협력사업과 함께 국제물류협력 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이다.¹⁸⁾

2000년 남북간의 6.15 선언 후 일년여가 지난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에서 김

18) 이영형,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한국의 선택,” 『한국 시베리아연구』 22권 2호 (2018) p. 11.

로 합의했다.¹⁹⁾ 이후 이 사업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논의의 진행과 중단을 반복한다. 이와 별개로 라진-하산 구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북-러 양국은 2007년 11월 라진-하산 철도연결, 라진항 개발사업에 합의하고 2011년 10월 13일 라진-하산을 연결하는 철도구간에 대한 시범운행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러시아철도무역관과 라진항이 70:3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사 라선콘트란스(RasoConTrans)가 설립되었고 북한은 라진항 3번 부두와 부지 일부를 49년간 러시아에 임대하게 된다.

라진항-하산 구간 철도의 개보수 작업이 2013년 7월 완료된 후 같은 해 9월 22일 철도 개통식이 라선공업단지에서 개최되었다. 앞에서 서술했듯 이 구간 중 라진항-두만강 54km 구간의 철로는 북한에서 쓰는 표준궤(1,435mm)와 러시아의 광궤(1,520mm)가 결합된 형태로 재건되었다. 라진항 화물터미널 공사도 2013년 9월 완공되어 2014년 7월 문을 연 이후 2016년 초까지 러시아의 석탄을 라진항을 통해 남한의 부산 혹은 포항으로 가져오는 시범 운송이 세 차례 있었다. 이때 남한기업이 백두산에서 생산한 생수 ‘백산수’도 라선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되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2017년 8월에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통과시켰으나 러시아의 요청으로 제삼국의 석탄이 북한을 거쳐 수출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UN의 제재와 별개로 2016년 1월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3월 발효된 남한의 독자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은 180일 이내에 남한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²⁰⁾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사할린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북한과 남한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2004년 9월, 푸틴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있었고 러시아는 2007년 9월 사할린, 야쿠츠크,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의 가스 생산센터를 개발하여 이를 연결하는 동부가스 프로그램(Eastern Gas Program)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러 양국은 PNG 도입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여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각서의 내용은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연간 750만톤



2015년, 중국에서 생산된 생수 “백산수”가 라진항을 거쳐 부산에 들어오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19) 이영형,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한국의 선택,” pp. 8-10.

20) 이영형,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한국의 선택,” p. 16.

의 천연가스를 30년간 공급받고 블라디보스토크-남북한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로 인하여 자연스레 중단되었다. 2011년 8월 동시베리아 울란우데에서 있었던 김정일-메드베데프 북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2014년 4월 양국 간에는 북한이 가진 구소련 시절 부채 11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 10억여 달러는 20-40년에 걸쳐 무이자로 상환받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남북관계의 교착으로 북-러 가스관 사업에 진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동신문 등 언론을 통해 러시아 가스수송에 대한 기사를 간간히 내보내고 있다.²¹⁾ 그 밖에도 2003년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에 대한 논의가 세 나라 간에 있었고 2016년 푸틴-아베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러에 추가로 일본까지 참가하는 송전선 사업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를 넘어 남한과 유럽을 아우르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림: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은 17km로 매우 짧으며 러시아 측 국경도시들의 개발수요도 제한적인 상황으로 러시아의 북러 초국경 협력은 남한을 염두에 둔 사업이다. 남한의 호응 없이도 가치 있는 사업은 라선의 부동항 확보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이렇듯 남한을 염두에 둔 사업은 남북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라진-하산으로 대

표되는 북러 초국경협력에 관한 논의는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는 시절에는 논의도 활발히 이어지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중단되었다.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국경도시로서 라선의 공간구조와 초국경협력의 역사를 살펴 보았다. 북한 정권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라선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이곳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라진·선봉(라선) 경제무역지대를 꾸리면서 거기에 도시 건설을 싱가포르보다 더 멋있게 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 1991년 자유구역 지정, 라진-선봉 합병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로 진행된 도시의 명칭 변경과 직할시, 특별시로의 지위 승격, 1997년에 시행된 환율 현실화 조치와 외화 사용 규제철폐, 1998년 시행된 자본주의식 자영업 허용과 국제자유시장 개설 등은 북한 정권이 라선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중국의 호응이 중요한데 두 국가의 극동 정책은 모두 라선의 발전과 이해를 같이하는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 프로젝트, 그리고 러시아가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라진-하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선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 직후 라선의 자유경제 무역지대 개발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정권의 기능 장애로 제대로 된 정책의 발전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 개발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2006년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이 UN으로부터 받은 공식 제재만 11건에 달한다. 또한 2010년에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하여 남한의 단독 대북제재인 5.24조치는, 가장 강력한 협력자가 될 수 있는 남한의 협력 카드를 무력화시켰다. 중국이 창지투 개발의 마침표를 라선에서 찍기 위해서는 UN의 대북제재를 넘어서야 하고, 러시아의 라진-하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서는 UN의 대북제재와 더불어 남한의 독자제재도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라선 개발과 관련하여 자주 쓰이는 말 중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가 있다.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제까지 라진의 경제특구는 닳을 올리자마자 맞이한 고난의 행군과 대북제재로 인하여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핵-경제 병진노선과 이로 인한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라선 개발의 이해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한국 중 어느 나라 혹은 여러 나라와 각국의 법적 통제를 받는 기업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설령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그것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21) 박정민, “남북러 경제협력 분석,” 『북한학연구』 제 16권 2호, (2020) pp. 113-115.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실행 가능성

박종수 박사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가 2015년 3차례의 시범운송을 실시한 후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2019년 2월말 하노이 북미 노딜 회담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이반 돈키흐 라선콘트란스 사장은 2021년 10월 필자에게 유엔 결산보고 등 라진 소재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8월말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국경을 개방하고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서방의 대러·대북제재 강화가 북러관계를 밀착시키면서 오히려 사업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 프로젝트가 명멸을 반복하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두만강 하구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의미를 짚어보고, 이 사업의 실행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당위성 및 북방선교의 환경을 진단해 본다.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항 사이의 54km 철도 구간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 및 복합물류사업이다. 러시아산 광물자원을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거나 아시아 지역의 수출화물을 라진항을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남북러 3각 물류협력이다. 1단계 사업은 북러간 라진-하산 철도연결 및 라진항 개건이며, 2단계 사업은 남북러 3자 협력 및 국제물류협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7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조율하고 2001년 8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TKR/TSR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라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2008

년 10월 러시아 철도회사와 라진시가 70:30으로 라선콘트란스(RasoConTrans)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러시아는 라진항 3번 부두와 인접 부지를 49년간 임대했다. 철도 개보수 및 화물터미널 공사가 2008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억4000만 달러(약 4500억원)를 투입해 마무리됐다.

라진항 3호 부두를 콘크리트로 재포장해 석탄을 싣는 이동식 크레인용 레일과 연료탱크를 새로 설치하고,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바다 수심을 기존의 9m에서 12m까지 준설했다. 마침내 2014년 7월 18일 라진항 범용 전송터미널이 문을 열었다.

2단계는 한국과 러시아가 2007년 라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를 위한 남북한-러시아 합작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행되지 않았다. 201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박근혜-푸틴 대통령간 한러 정상회담때 한국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기로 합의했다.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등 한국기업 3사가 콘소시엄으로 2100억원을 투자해 러북 합작회사인 라선콘트란스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라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라진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 (사진: KBS)

북중러 접경의 지정학적 함의와 각국 입장

접경지역의 특성은 ‘분리의 선’이면서 ‘접촉의 선’이고 ‘장벽’이면서 ‘통로’인 초국경 공간이다. 지역차원에서는 세계화(초국가 통합)와 지역화가 결합되는 세방화(glocalization)를 구현하는 장소다. 국가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으로 통제가 약화되고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변두리이지만, 접경국가 사이에 풍부한 협력의 경험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오늘날 국가보다는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월경지역(cross-border region)이 미래의 국민국가를 대체할 지역국가(regional state)로 인식되는 추세다.

두만강 북쪽의 40~80km에 이르는 지역이 17세기 중엽에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완충지로 설정됐다. 그러나 1860년 베이징조약 체결로 러시아 영토에 편입되고 그 다음해 여름에 두만강 연안의 최남단에 국경 표지비를 세움으로써 러시아와 조선 간 두만강 하류 16.9km의 국경이 최초로 성립됐다. 북한의 라진항은



중국 훈춘에 위치한 방천(防川) 유원지에 설치된 북·중·러 국경 표시 조형물

수심이 깊고 잔잔한 정원수역의 부동항으로서 군사 및 물류 거점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일제는 1935년 만주철도회사를 앞세워 라진을 항구로 개발했고 해방후에는 구소련이 극동해군기지로 이용했다. 특히 한반도 입장에서는 최북단 끝자락이지만 남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와 상호 경제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시발점이다. 중국에게는 동북3성 개발과 동해진출의 교두보이며, 러시아에게는 극동지역 개발과 남진정책이 맞닿는 지역이다.

북한은 이 지역의 대외경제거래 확대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생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상품공급과 기술도입 및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곳은 수도인 평양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변강국인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개혁개방으로 인한 체제위협을 줄일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이 1991년 12월에 라진·선봉지역을 최초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0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라선경제무역법 등 법규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5년 9개 산업구와 10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총 155억 달러 규모의 ‘라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2조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경제분야에서 특별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인이나 개인, 경제단체 및 해외교포들이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합영·합작 또는 외국인 단독으로 기업을 창설해 경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19년 11월 24일 결정 제209호로 ‘라선경제무역지대 살림집 판매 및 리용규정’을 채택함으로써 경제특구에서 사실상 개인의 주택소유와 상속권을 보장하는 첫 입법 조치를 내렸다. 이 규정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를 주택 판매자로 지정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살림집 신용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민간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중국은 베이징조약으로 동해로 나가는 출구를 잃고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을 차항해야 할 입장이었다. 1992년 중·러간 협상결과, 중국은 방천에서 두만강을 따라 동해로 나갈 수 있으나 열악한 수로환경으로 인해 현재는 소형선박만 통행 가능하다. 따라서 두만강개발계획(TRADP) 출범초기에 중국 훈춘-북한 라진-선봉-러시아 포시에트-자루비노로 연결되는 소삼각지대(1,000km²)를 두만강경제지대(TREZ)로 설정하고 국제자유경제지대 창설을 시도했다. 2005년 9월 협력범위를 중국 연지-북한 청진-러시아 나호드카를 잇는 대삼각지

대(10,000km²)로 확대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체제로 전환했다. 그해에 라진항 3호 부두와 건설예정인 4호 부두를 5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2006년 북핵 위기로 성사되지 못했다. 중국정부는 2009년 8월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門)을 잇는 ‘창지투(長吉圖)’ 프로젝트를 승인한 후 라진항 1호 부두와 2010년 나진항 4~6호 부두를 50년간 사용할 권리를 확보했다. 중국은 2016년 11월 ‘중조(中朝) 변경 취안허 통상구대교’라는 신두만강대교 건설 등 훈춘의 취안허 통상구에서 라진까지 53.5km 도로를 2년2개월 만에 완공후 개통했다.

러시아는 추가 운송비용이 들더라도 부동항 라진항이 필요하다. 2014년 7월 개항한 라진항 3호 부두가 포화상태인 극동지역 항만의 대체 부동항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라진항이 자국의 광산지역과 아시아 항구들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로서 석탄 수출 중개에 가장 적합한 항구다. 아울러 구소련 당시처럼 유사시에는 해군기지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유엔이 3월 결의안 제2270호를 채택했다. 2270호는 북한의 광물 및 원유 거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서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이었다.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러시아의 요구로 북한산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라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허용됐다.

한국은 1995년 10월에 훈춘~라진~부산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중단됐다. 2013년 11월 체결된 「라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의 시범운송이 있었다. 2014년 12월 1일 중국 선적 신흥바오서호를 이용해 라진항에서 포항까지 40,500톤의 러시아 석탄이 운송됐다. 북한 영토에서 동해를 거쳐 한국에 인도된 최초의 화물이었다. 이어 2015년 4~5월과 11월에도 2차례 시범운송을 실시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14만톤의 석탄을 수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결정을 내리고, 3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함”으로써 라진-하

라진과 하산을 잇는 열차가 시험운행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산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했다. 2017년 8월 북한에 대한 석탄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되었지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제3국산 석탄이 라진항을 거쳐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라진항에서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실은 제3국 선박이 한국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했다. 북한 항구를 통한 광물 자원 제재는 UN차원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부와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였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으로 라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2019년 2월 북미간 하노이 노딜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북한 국경폐쇄 등으로 다시 수면아래로 잠복했다.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당위성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월 4일 이도훈 신임 주러 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자리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건설적인 길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한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은 유엔의 대러 비난성명에 서명하고 대러 제재에 동참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방산물자를 지원했다. 이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러관계는 수교이후 최악의 관계로 접어들었다. 푸틴은 2019년 4월 김정은과의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도 '철도, 가스관, 전력망 등 남북한-러시아 3통사업이 한국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반 돈키호 라선콘트란스 사장도 2021년 10월 필자에게 한국만 참여하면 코로나19 엔데믹 후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즉각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2016년에 러시아가 이 사업을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받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버렸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쟁 및 한미일간 결속 등에 따른 반작용으로 러북관계가 긴밀해지고 북중러간 관계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북방 3국은 북중러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푸틴·시진핑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이후 중러간 훈춘-자루비노항 연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착수되고, 4월에는 코제마코 연해주 지사가 푸틴 대통령에게 하산지역 도로와 철도, 전력기반 인프라 관련 추가예산을 요청했다. 연해주 지사는 6월에 중국 지린성 엔지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상공업단지 조성으로 3개국 간 국제 협력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 대규모 노동력과 함께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도 6월에 러북 정부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북한측에 라진-하산 철도를 통한 수송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하산역에 도착해 러시아 코즐로프 장관·코제마코 지사와 북러간 관광·농업 및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공동사업을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후 "러시아와 북한이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행 철도와 항구, 도로와 같은 매우 좋은 '물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의 재개"라고 밝혔다. 이는 라진-하산 프로젝트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즐로프 장관도 김정은 방러 직후에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방러때 추가곡물 공급, 라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정기 항공 노선 재취항, 두만강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라진-하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극동지역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러시아로서는 자국산 석탄의 중간 기착지인 라진항이 발전할수록 아시아 각국으로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라진-하산 프로젝트가 단순히 경제협력 수준을 넘어 군사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다. 러시아가 2014년 라진항의 49년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대형선박의 안전을 명분으로 보조함대를 항구에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는 2012년 베트남에 100억달러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 신형 항공모함이 감라인만에 기항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블라디보스토크-라진-감라인만 벨트를 구축했던 1980년대 초반의 군사관계를 연상시킨다. 한반도의 동해와 북방에 긴장감을 조성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엔 GTI의 연장선상에 진행되는 대북 제재의 예외사업이다. 한국은 2023년 후반부터 GTI 총회의 의장국일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임기 2년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다. 1991년 가입후 유엔운영에 관여하는 세번째 기회를 획득했다. 유엔헌장 제1장 1조 1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명시했으나, 지난해 5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한 유엔은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공권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북한과 중국 내에서 직접적인 대북 선교가 어려워졌지만, 연해주 지역으로 대규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노동신문)

진출하는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 유례없이 산업화·민주화·세계화를 최단시일내 이룩한 나라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등극했다. 그렇지만 해륙국·분단국·통상국이라는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북극북태평양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북방정책은 가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며, 북방으로 향한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주변국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유엔의 기능을 회복하는데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강국의 영향력을 순기능적으로 활용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시키고 국제공동체 일원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연착륙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북방정책과 북방선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위기는 기회다. 북방정책과 북방선교를 병행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나선경제특구 내 산업,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김병욱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북한학 박사)

들어가며: 북한의 이례적인 홍보는 무엇을 시사하나

지난 5월 28일 북한의 무역잡지 <대외무역> 2호에는 나선경제특구를 홍보하는 글이 실렸다. 잡지는 이 지역이 동북아시아 육상·해양 교통의 요충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북미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이라며 “황금 삼각지대”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연간 물동량이 600만t 규모에 달하는 나진항을 비롯한 도로와 항만이 새로 건설됐”고 “35개 계약·합작회사와 외국인 소유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지역에서 경제무역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운송 및 해양가공, 의류가공 분야 경제협력과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나선경제특구 홍보에 나선 것은 '신냉전' 기류에 편승해 핵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특구 운영의 출구를 찾아보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1년에 나진시를 최초로 경제특구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이후 선봉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함으로써 경제난을 해소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2년이 지난 지금, 나진선봉경제특구는 당국의 관심과는 별개로 현저하게 쇠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 산업 입지로의 특성과 산업운영의 현 주소를 살펴해보려고 한다.

산업입지로의 장점

나선지역은 육로를 통해 극동지역의 천연자원이 많은 러시아,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과 연결되고 해로를 통해 자본과 기술이 우수한 한국, 일본과 연결도 가능하

다. 한마디로 동북아 나라들 사이에 육해연대 수송을 보장할 수 있는 교두보여서 동북아 지역 나라들이 경제협력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북한도 이 지역을 동북아 물류의 중계지로, 현대적 기술에 기반한 수출가공지로, 나선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제적인 관광기지의로 복합적인 경제특구를 개발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과 철도, 도로망 건설 및 확장과 함께 이에 필요한 전력생산지 설립, 그리고 10개의 공업단지 건설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등 개발에 안간힘을 써오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개발계획은 대외협력의 지형학적 환경과 더불어 산업입지로의 전력 및 노동력의 공급기반의 조성, 교통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관광에 적합한 기후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 지역은 북한의 산업운영에서 난제로 나서는 전력자원이 풍부하다. 구 소련의 지원에 의해 1968년에 착공된 선봉화력발전소(6.16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인접한 부령군 수력발전소와 서두수 수력발전소에서 일부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또한 함경북도 소재지인 청진시와 인접하고 있어 배후노동력의 확보에도 양호하다. 항구로는 나진항과 선봉항이 있으며 철도역은 나진역과 선봉역이 있다. 나진항과 선봉항은 조차가 작고 수심이 깊어 항만운영에 양호하다. 복합형 철도가 청진에서 북쪽을 향하며 두만강 우의대교를 거쳐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고, 서북쪽을 향하여 남양을 거쳐 중국의 도문시, 나아가 동북 지역과 연결된다.

이 지역은 함경산맥에서 갈라진 지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300~400m의 나진 지역과 500~700m의 선봉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의 산업배치가 과거 나진지역의 농사와 선봉지역의 축산, 동해에서의 수산업에 의존해 온 것도 이러한 지형학적 환경 때문이다. 이 지역은 해안성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 여름에는 무덥지 않고 겨울은 내륙지방보다 춥지 않다. 산림 피복율이 60%인 것을 비롯해 해안, 호수 및 습지의 자연보존 상태가 좋아 큰 투자가 없이도 자연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산업운영 실태

나선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합작, 합영형태로 운영하는 회사들과 나선시 주민들의 물질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생산하는 지방산업공장들이 위치해 있다.

1) 운영방식

나선경제특구지역에 소재한 외국회사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국가 등의 회사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중국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 회사는 대체로 호텔과 백화점, 카지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을 중국에서 직접 들여와 상점을 운영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특구 내에는 군부대 소속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회사들의 투자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상품에는 게, 새우, 조개류가 대부분이다.

특구 내 지방산업공장들은 나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담배공장, 화학공장, 식료공장, 제지공장, 피복공장, 직조공장, 신발공장, 화장지 공장 등인데 저임금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마진을 남기는 식으로 운영한다. 원자재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가공하여 판매한다.

특구내 외국회사나 지방공장 운영에 필요한 생산노력은 나선시 주민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외국회사에 취직하려면 보통 몇만 위안의 선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지방산업공장에는 선금이 없는 자녀들이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등중학교생은 졸업 후 국영기업에 1년 정도를 다녀야 외국회사에 취직이 가능하다. 고등중학교생이 졸업 후 즉시 외국회사에 취직하면 외국물이 쉽게 들 수 있다고 당국이 마련한 대책인데 담당간부들에게 뇌물제공이나 문서 위조 등 비리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운영사례

(1) 나선식료공장

이 공장은 콩기름, 된장, 간장, 술, 맥주 등 나선시 주민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기초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유일하게 국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장이어서 나선시 간부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여기서 일하면 월급 외에도 받아 갈 수 있는 기초식품이 있어 다른 지방산업 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하기 좋은 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종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 착공식

(2) 나선시 영예군인공장

북한에서 영예군인공장은 군 복무 기간 부상을 입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당국의 관심하에 운영되는 공장이다. 나선시에는 나선영예군인공장과 선봉영예군인공장 두 곳이 있다. 영예군인공장에서는 평시 식료품을 생산하며, 해마다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할 2월16일과 4월15일 선물용 사탕과 과자도 생산한다.

(3) 수출수산사업소

안주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영기업이다. 군부용 수산작업장과 민간용 수산작업장 2개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수산사업소가 소유한 배에서 신고 온 수산물 가공과 수출을 한다. 최고통치자 가족에게 올라가는 ‘8호 수산물 제품’을 생산한다. 타 수산사업소에 비해 축양장의 규모가 크며, 가공공장이 따로 있어 1차, 2차 가공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상품은 명태, 낙지, 오징어, 가자미, 게, 조개류 등인데 수출품도 생산한다. 가공·냉동식품으로는 대게, 해삼, 문어, 조개 살 등이다.



라선 남산호텔(평화문제 연구소 제공)

(4) 강덕회사

안화동의 금은산회사앞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이다. 회사는 백화점 운영과 이에 필요한 상품운송, 개인임대업 등을 하고 있다.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1층에서는 식품, 2층에서는 의류, 3층에서는 소파·가구 등 중국산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임대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으며 식품매장은 층 전체를 개인에게 일괄 임대하고 있다. 카드를 끌고 쇼핑하면서 물건을 한꺼번에 담은 후 계산대에서 한 번에 결제한다.

(5) 남산호텔

남산호텔은 나선시 남산동에 위치해 있다.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930년대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200명 정도이다. 나선시내 국영기업 중에서 급여는 높은 편이며 중국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호텔에는 구내식당 외에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등 편의시설도 있다. 호실마다 TV가 있으며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은 위성채널 시청이 불가하며 외국인들만 가능하다.

(6) 동아호텔

나선시 안화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나진시장과 나연상점, 외국인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다. 동아호텔은 일제강점기에 지은 건물로서 일본식 풍미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건물이다. 중국인들만 숙박할 수 있으며 대부분 장기투숙하고 있다. 호텔관리 는 선발된 북한주민들이 하고 있으며 다른 호텔에 비해 월급이 낮은 편이다. 북한 주민들은 호텔에 들어갈 수 없다. 숙식하고 있는 중국인 기업가들을 만나려면 밖에서 만나야 하며 이들과 접촉하는 이들은 주로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들로 알려져 있다.

(7) 조선중앙은행 나선지점

지점은 나선시 중심인 지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진역에서 직선으로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시기 지은 건물이다. 2층으로 된 건물이며 아래층에서는 주로 고객과 거래업무가 이루어지며 2층에서는 은행직원들이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진행한다. 지점은 국영기업들과 회사들의 현금과 행표거래를 맡고 있다. 회사들에서 지급하는 노동자들의 월급도 이곳을 통해 지출된다. 나선지점은 공장, 기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건설 자금에 대한 대출도 담당하고 있다.




라선 국제산업은행(DPRK 360 제공)

나가며: 나선경제특구 산업 운영의 과제

북한지역에서 당국이 주변국과 협력해 경제회생을 기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앙



급 경제특구는 개성공업지구, 신의주특별행정구, 나선경제특구 세 곳을 들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이 특별시로 관리하던 지역으로 한국의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다. 북한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자국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한 특구운영을 추진한 지역이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 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악화로 폐쇄되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북한의 신의주시와 중국의 단둥시 간 연결된 도로 및 철도 그리고 북중무역의 오랜 전통을 활용해 북한당국이 중국의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중국정부의 방해로 행정구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진선봉경제특구는 북한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접경을 이룬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경제특구로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그간의 제도적 미비, 기반 시설의 부족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북제재속에 쇠퇴되어가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대표적인 중앙급 경제특구조차도 폐쇄와 중단, 쇠퇴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무역잡지가 특별히 언급한 나선경제특구의 운영 역시 현재로서는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나선경제특구의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된 정치적 문제외에도 북한당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경제적 문제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북한이 수시로 계약변경 조건을 제시하고 외국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며 심지어는 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외국회사가 불응할 경우 보복조치가 잦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함에도 이 지역은 북한 내에서 경제특구 운영의 시험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북한의 다른 지역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지난 32년간의 연속된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함경북도 동북부 국경도시(라선, 경흥, 경원, 온성)¹⁾의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며

북한의 온성, 경원, 경흥 라선 네 도시는 한반도의 북쪽 끝 국경도시로 조선 초 세종대왕시기 김종서, 최윤덕에 의해 개척된 북방영토 4군 6진 중 6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산수·갑산으로 대표되는 4군지역과 더불어 6진에 해당되는 회령, 종성, 온성, 경원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간으로 『의금부 노정기』에 따르면 경흥, 무산, 회령, 온성 등지는 한양에서 스무날 이상을 가야 닿는 벽지중에 벽지였고 조선시대 함경도 감영이 위치한 함흥에서도 10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로 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²⁾ 그나마 일부 수전이 개발되고 해산물이 풍부한 장점과 조정의 정책으로 길주 이남의 함경도민을 비롯한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의 효과로 6진 개척 이후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함경도는 조선시대 내내 변방 지역으로 함경도 출신 인물에 대한 등용이 매우 적었으며 조정의 기록에도 함흥 이북지역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다. 함흥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조선 말기까지도 회령에 대한 기록만이 간간히 등장할 뿐이다.

1885년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후 조선선교 초기의 선교사들은 수도인 서울에 정착하였다. 이후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선교사들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1890년을 전후하여 선교사들은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그 중 함경도 지역은

1) 공산정권 수립 이후 이 지역의 도시명은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경흥군 웅기읍이 승격되어 생겨난 웅기군은 공산정권 수립 후 소련의 한반도 상륙지점인 것을 기념하여 선봉군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아오지로 유명한 경흥군은 1977년 은덕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5년 경흥군으로 다시 바뀌었다. 경원군 역시 1977년 셋별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5년 경원으로 다시 바뀌었다.

2) 고승희, 『조선 후기 함경도 상업연구』(서울: 국학자료원, 2003) p. 23.

대부분의 교단과 선교회의 지역 본부가 함경남도 남부인 원산에 위치한 이유로, 함경북도 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나 1910년을 전후하여 각 교단과 선교회의 선교부는 간도, 연해주 선교에 눈을 돌리는데 회령-라진에 이르는 지역은 간도, 연해주 선교의 교두보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함경북도 동북부 국경도시 라선, 경흥, 경원, 온성에 대하여 조선선교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선교사역과 교회의 이야기들을 정리할 것이다.

1. 기독교 전래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1) 캐나다 장로교의 함경도 선교

함경도 선교를 처음 시작한 교단은 미국 북장로교이다. 미국 북장로교의 게일(J. S. Gail, 기일)선교사는 1892년에, 스왈른(W. L. Swallen, 소안론)은 1894년에 원산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조선인 차을경, 모학수, 고찬익, 전계은 등을 전도인으로 양성하여 함경도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한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 중 차을경은 1896년을 기점으로, 함흥, 영흥, 정평, 단천, 갑산 등 함경남도 지방을 순회하며 교회를 세웠으며³⁾ 1898년 원산에 정착한 푸트(W. R. Foote, 부두일) 선교사를 비롯한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을 통한 함경북도에 대한 순회선교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미국 북장로교와 캐나다 장로교 간에 선교지 조정이 있었는데, 이 조정을 통하여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회의 관할이 되었고 기존 북장로회에 속한 함경도의 교회와 성도들도 1898년 모두 캐나다장로회로 이양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1898년 캐나다장로회 선교부가 함경도 지부를 인수할 때 함경도지역 장로교회의 규모는 14개의 집회소에 교인 300여 명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원산을 비롯한 함경남도 남부에 국한되었다.⁴⁾

1900년을 전후하여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의 수가 더욱 늘어났고 함경북도 성진에도 외국인의 거주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1901년 5월 18일 캐나다장로회 소속 그리어슨(R. Grierson, 구례선) 선교사가 함경북도 성진으로 이주하여 함경북도에 정착한 최초의 선교사가 된다.⁵⁾ 곧이어 캐나다장로회 소속 롭(A. F. Robb, 업아력) 선교사 부부도 성진으로 이주한다. 이들의 정착과 더불어 캐나다 장로교의 성진 선교부가 설립되었고 원산과 다른 관북지방에서 이주해 온 교인들

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시작되었다. 1903년에는 맥레(D. M. McRae, 마구례) 부부와 독신 여성 선교사인 맥밀란(K. McMillan, 맵미란) 선교사가 함흥에 정착한 후 1904년 함흥에도 선교기지가 세워진다.⁶⁾ 당시 함경도에 정착한 캐나다 선교사들은 캐나다 노바스코샤 출신이 많았는데, 노바스코샤와 함경도는 위도가 같고 기후가 비슷하였으며 바다에 인접한 지형이나 사회경제적으로 낙후한 환경도 유사하였다. 특히 고향에서 농장일과 대장장이 경력에 있었던 그리어슨과 맥레는 함경도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⁷⁾

189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 조선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 각 교단, 선교부 간에 이루어지던 선교지 분할의 협의는 1905년 ‘복음주의 연합공의회’ 결성을 통하여 체계화된다. 복음주의 연합공의회는 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호주장로회, 캐나다장로회와 미감리회, 미국 남감리회의 장로교/감리교를 아우르는 6개 선교부가 연합하여 설립한 회의이다.⁸⁾ 교계예양(敎界禮讓, comity)이라 불리는 ‘선교지 분할 협정’(Division of Territory)은 “가장 빈번한 불화의 요인이었던 선교지의 중첩을 피하고, 돈과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실행되는 것임이 공식화되었다.⁹⁾ 연합공의회가 설립되던 1905년에는 미국 북장로교회와 미국 남감리회 간 협정이 있었고, 1907년에는 북장로회와 남감리회 사이에 협정이 마무리되었다. 라진, 웅기, 회령, 간도지방의 선교는 1908년 함경도 내부 선교구역의 조정을 통하여 본격화된다. 이 협정을 통해 원산 이남의 지역은 남감리회의 구역으로, 원산 이북의 지역은 캐나다장로회의 구역으로 확정되었다. 이때 캐나다장로회가 남감리회에 넘겨준 교회는 27개 처소, 세례교인 97명, 입교예정자 171명, 그밖에 출석 성도가 1천여 명이 되었다. 남감리회는 캐나다장로회에 1개교회 세례교인 3인을 포함한 20인의 성도를 인계했다.¹⁰⁾ 라진, 청진, 온성을 비롯한 함경도의 북부지역은 선교지 분할 이전에도 이미 캐나다 장로교회의 사역이 활발하였는데 이



함경북도 성진에 거주하며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리어슨 선교사 부부

6) 김윤성, “함경도지역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 제3호 (1994) pp.30-33.

7) 김승태, “한말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선교에 관한 연구,” p. 27.

8)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장로교회와 신학』 8권(서울: 한국장로교신학회, 2011) p. 201

9) Underwood, H, “Division of the Field.” 『Korea Mission Field』 December, 1909. p. 213을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p. 214에서 재인용.

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 108.

3)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해노회, 『함해노회 8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1992) p. 106.

4) 김승태, “한말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선교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44.

5) 윌리엄 스코트, 연규홍 역,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9) pp. 116, 117, 윌리엄 스코트는 1914년부터 1952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이다. 그가 사역기간 중에 작성한 2,000여 편의 글이 2009년 국내에 번역되어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때의 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캐나다 선교부의 관할 구역으로 확정되었다. 함경 북도의 북부지역에는 1898년 시작된 청진중앙교회(청진시 신암동)를 시작으로 1903년 경성읍교회(경성군 승암동), 1904년 나남교회(경성군 나남읍), 1907년 고읍교회(경성군 고읍동)까지 청진 이남에 네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1908년에 들어서야 청진 이북에서는 처음으로 회령에 승암교회(회령군 승암동)와 회령읍교회(1908년 회령군 회령읍), 1909년에 들어서 경흥군에 굴포교회(경흥군 굴포리)와 웅상교회(경흥군 웅기읍 웅상동), 종성군에 종성교회(종성군 종성읍 금산동, 1909년)가 시작된다.¹¹⁾

1910년 캐나다장로회 선교부는 전 지역을 다시 원산, 함흥, 성진, 회령, 동만주의 다섯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당시 캐나다 장로교의 교세, 즉 함경도와 간도를 합친 장로교의 교세는 선교사 14명, 토착 전도인 42명, 토착 교인 1,008명, 매일 학교 17명, 병원 1개에 이른다.¹²⁾

담당 선교회	지역	본부	주요 도시
북장로회	황해도	재령	봉산, 곡산, 황주, 은율, 문화, 장연, 신천, 송화, 풍천, 안악, 재령, 평산, 서흥 일부, 수안 일부
	평안남도	평양	평양, 안주, 숙천, 영유, 순안, 강동, 자산, 삼등, 중화, 상원, 영원, 덕천, 개천, 순천, 은산, 맹산, 성천, 강서 일부, 증산 일부, 용강 일부
	평안북도	선천, 강계	의주, 용천, 철산, 선천, 광산, 정주, 가산, 박천, 구성, 삭주, 창성, 벽동, 초산, 위원, 강계, 자성, 후창
캐나다장로회	함경남도	원산, 함흥	남감리회가 관할한 함남의 남부도시들 (안변, 회양, 용동)을 제외한 함경남도 전 지역
	함경북도	성진, 회령	성진, 회령, 종성, 경성 등 함경북도 전 지역
미감리회	황해도	신계	웅진, 강령, 해주, 연안, 배천, 평산, 신계, 봉산 일부, 수안 일부, 서흥 일부
	평안남도	평양, 진남포, 맹산	평양, 양덕, 함흥, 진남포, 삼화, 맹산 일부, 개천 일부, 은산 일부, 순천 일부, 강서 일부, 증산 일부, 강동 일부, 용강 일부
	평안북도	영변	태천, 운산, 회천, 영변
남감리회	경기도	송도	송도(개성)
	함경남도	원산	원산, 회양, 안변, 용동

표 북한지역 교단별 선교지 분할 현황(1909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역사』, 기독교문사, 1990, pp. 216-217; 김승태, “한말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선교에 관한 연구,” 1999, 한신대학교, p.35 참조

11) 차재명 편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은 1928년에 출판되었고, 하권은 1930년에 교정이 완료된 후 1968년에 출간되었다. 이를 2015년 한국기독교사연구소가 번역 출판하였다. pp. 380-398. 『1940년 장로교회연감』에는 1906년 경흥의 굴포리에 설립된 서포항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교회는 설립 당시 한국순회선교회 소속의 교회였고 이후로 장로교로 편입되었다. 이런 이유로 서포항교회는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12) J.S.Gale, Korea in Transition, NY:Young People Missionary Movement of the USA and Canada, 1909, pp.258-259 를 이덕주 『한국토착교회형성사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p. 40에서 재인용.

1910년에 있었던 캐나다선교회의 선교지 구역조정 시 라진과 경흥(이후 경흥군에서 웅기읍이 분리되어 웅기군이 되었으며 웅기읍은 다시 선봉으로 명칭이 바뀌고, 선봉은 이후 라진과 합쳐져 현재의 라선이 됨)은 회령 구역에 속하게 된다. 회령구역의 담당자는 럽 선교사가 맡게 된다. 럽 선교사의 회령 정착 이후 1919년 로스(Miss A. Rose), 1920년 맥멀린(R. M. McMullin) 부부, 1922년 스크런튼(Miss E.J.Scruton)이 합류한다.¹³⁾ 이 시기 함경북도 북부와 간도에 있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상황은 당시 윌리엄 스코트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26년 조선에서 사역하던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단체사진, 셋째줄 우측에서 첫 번째가 스코트 선교사 (한국기독교사연구소, 1907revival.com 제공)

서부 분과의 선교사들에게 할당된 선교 지역은 북쪽의 함경도 지역의 여덟 도시들과 간도와 훈춘으로 알려진 만주 지역을 포괄했다. 이미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수는 모두 44개였다. 선배 선교사들과의 협의 가운데 선교부의 근본 목적은 회령과 용정에 세 개의 선교 지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경성은 그 지역 수도였고 선교의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경성 지역이 아주 보수적이어서 현존하는 교회들 중에 가장 약했기 때문이다. 회령은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였고 만주와의 무역 중심지로 상당히 큰 국경도시였기 때문에 선교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회령은 선교의 빠른 확장을 위해 적절했는데 벌써 일본인들은 매우 좋은 땅을 사들이고 있었다. 1910년 봄 맥레어드 목사는 도시에 두 가지 목적으로 땅을 샀다. 하나는 선교사의 주거지로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료활동을 위해서였다. 용정은 만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주민들의 중심지였던 간도를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결국 경성은 이 계획에서 제외되었고, 용정은 선교를 위한 유망한 중심지들 중 하나가 되었다.¹⁴⁾

1912년 5월 22일 바커(Archibald H. Barker, 박걸) 부부가 성진에서 회령으로 이주했고, 곧 맨스필드(T. Mansfield) 부부가 뒤를 이어 회령에 정착한다. 맥도날드(D. W. Macdonald) 부부는 성진에 남아 언어공부를 마친 후 10월에 회령으로

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해노회, 『함해노회 80년사』 p. 110.
14) 윌리엄 스코트, 연구홍역,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 161.

로 이주한다. 이후 바커는 1913년 6월 6일 용정으로 이주하게 되는데¹⁵⁾ 용정은 1907년을 전후하여 김약연, 정재면 등을 통해 교회가 태동하고 1908년 함북성진대리교회에서 파송한 김계안(金桂顔)조사를 통해 사역이 확장되던 중이었다.

1911년 장로교 독노회의 결정에 따라 1912년 함경노회가 결성되었고 1917년 성진에서 열린 노회에서는 함경노회를 함남노회와 함북노회로 분리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함남 전지역과 함북 성진, 길주, 명천 그리고 러시아령 연해주는 함남노회가, 성진, 길주, 명천을 제외한 함경북도 전 지역과 북간도지역은 함북노회가 관할하게 된다. 이후 함북노회는 교세의 확장을 거듭하여 1921년에는 북간도지역이 동만노회로 분립해 나가고 1925년에는 함남노회가 관할하던 명천, 길주 이남지역이 함경남도 북쪽지역 교회들과 연합하여 함중노회로 분립되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로는 1930년에 세워진 훈용교회가 있다. 온성군 훈용면은 함북선에서 훈춘으로 가는 선로가 갈라지는 지점이다. 훈용교회를 담임했던 박창영牧사는 1880년 함남 단천에서 출생하여 1913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여 캐나다 선교사 럽(A. F. Robb, 업아력)과 함께 사역했다. 1922년 시베리아 노회가 분립될 때 선교사로 파송되어 동포들을 위해 사역했고 훈용교회에는 1939년 부임하여 시무하다가 1940년에 소천했다. 훈용면의 서북쪽으로 온성읍이 인접해 있는데 온성읍 교회는 1919년 전도부인 전은혜에 의해 설립되었다. 온성읍교회에서 사역했던 교역자로 이후 월남 후 빨치산에 의해 순교한 이선용 목사가 있다. 경흥군에는 1910년 설립된 경흥교회가 있었다. 경흥교회는 김계언의 전도로 흥명학교 교장 김태훈과 교사 김문협 등 17인이 믿게 되어 흥명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이 교회는 포은동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포은동 교회는 채필근, 김관식, 김유식 등 이후로 장로교의 주요 지도자가 되는 이들이 거쳐간 곳이다. 특히 채필근 목사와 김관식 목사는 모두 목사안수를 받은 뒤 초임으로 경흥읍교회를 섬겼고 캐나다장로회 선교부에 의해 해외 유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인재양성에 대한 캐나다장로회의 노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¹⁶⁾

장로교 교세의 성장과 함께 노회는 평화적으로 분화되었으나, 이 시기 함경도의 장로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간에는 신학적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 초기 선교사로 그리어슨, 맥레, 푸트, 럽, 영 등은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하는 선교사들이었으나 1910년 이후로 D. A. 맥도날드, 프레이저, 스코트와 같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선교사 간 신학의 차이는 조선인 교회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 시기 조선인 사역자들 간에도 성경해석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1918년 회령에서 열린 함북노회 제2차노회에서는 “新舊約聖經(신구약성경)에 預言(예언)과 默示(묵시)와 異蹟(이적)을 正當(정당)히 信仰(신앙)하지 않고 異常(이상)히 解釋(해석)하는 者(자)가 많으니”라며 자유주의적 성경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¹⁷⁾ 이러한 갈등은 1925년 캐나다 본국에서 있었던 연합장로교의 출범으로 전환점을 맞는다. 1925년 캐나다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회중교회가 연합하여 캐나다연합교회가 성립되었고 이때 보수적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인들은 연합교회 합류를 거부하고 캐나다 장로교로 남았다. 이는 캐나다 장로교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함경도의 교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연합교회에 합류를 거부한 보수적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사들 중 1920년대 초반 웅기의 웅상교회를 담임했던 베시(F. G. Vessey) 선교사를 비롯하여 영(L.L. Young), 럽(A.F.Robb), 맥도널드(D.W. Mcdonald) 등은 한국을 떠나 일부는 만주로, 일부는 일본으로 이주하여 재만,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선교를 이어간다.

이후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김관식, 조희렴, 김춘배, 김영배 목사 등이 귀국하여 함경도에 자리를 잡으며 함경도의 장로교는 여타 지역에 비해 더욱 진보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이러한 신학적 경향은 일제 말기와 해방을 거치며 남한사회까지 이어지게 된다. 함경도 지방의 성결교와 침례교는 신사참배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었다. 반면 캐나다장로회는 과거 3.1운동에 앞장섰던 모습과는 다르게,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의 장로교회는 타교단 및 타지역의 장로교회들에 비해 수난을 많이 겪지 않았다.¹⁸⁾ 이후 진보적 장로교 신학을 표방하여 개교한 조선신학교가 함북 명천출신 김영주 목사와 함남 원산의 조희렴 목사의 주도로 개교되었고 이후로도 진보적 장로교의 학교와 교단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송창근, 김재준은 모두 경흥 출신의 신학자이다.

2) 동아기독교(침례교) 경흥, 회령지부와 연해주 선교

말콤 펜윅은 일찍이 함경도 원산(현재는 강원도에 속함)에 자리 잡은 독립선교사로서 기존 교단의 선교사들과도 교류를 이어갔다. 함경도는 캐나다장로회의



1925년 캐나다 연합교회 합류를 거부한 영(L.L. Young, 영재형) 선교사는 일본으로 이주하여 재일 조선인 사역을 이어가던 중 2차대전 말기 캐나다로 철수한다. 그는 일제 패망 후 일본으로 돌아와 사역을 이어가던 중 1950년 일본 교배에서 사망한다. (사진, 교배 외 국민묘역에 묻힌 영재형 선교사의 묘비, 필자 촬영)

15) 윌리엄 스코트, 연규홍 역,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 162.

16) 유관지, 『북중접경, 기도하며 걷다』 (서울: 포앤박스, 2015) pp. 226-243.

17) 김윤성, “함경도지역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16회 연구모임 주제발표 자료집, 1994) p. 12.

1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p. 115.

관할 구역으로 펜윅과 같은 국적인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들이 많았다. 펜윅은 자신이 원산에서 양육한 조선의 젊은이들을 캐나다 장로교 외국인선교회의 총무인 맥케이(R.P.McKay) 박사와 함흥에 있는 맥레이(McRae)목사에게 소개하기도 했다.¹⁹⁾ 원산에 자리잡은 장로교 선교사들은 함흥, 성진 등 북쪽의 도시를 교두보로 삼아 선교영역을 확장하여 나갔고, 감리교 선교사들은 철원, 춘천 등 남쪽의 대도시들과 연계하여 사역을 이어갔다. 그러나 말콤 펜윅이 조직한 한국순회선교회(CIM)는 도시보다는 오지(奧地)선교에 초점을 맞춘 단체였다. 말콤 펜윅은 “한국 순회선교회의 원리와 목적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본 선교회의 주된 목적은 오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곳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분으로 인식이 잘 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조심스럽게 피해야 하고, 형제간의 사랑이 품어져야 하고 활발한 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누가 하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달된다면 함께 즐거워 합시다.”²⁰⁾ 이런 이유로 한국순회선교회는 선교초기부터 함경도의 대도시보다는 산수, 갑산을 비롯하여 회령, 온성, 웅기, 라진 등의 함경도 북부 오지에 선교역량을 집중한다.



동아기독교회 전도대의 모습

1907년 대한기독교회(이후로 동아기독교로 개칭)는 제1회 대화회를 열고 교단 산하 원산, 공주, 강경, 영동을 구역으로 설정하고 함경남북도, 북간도(연변), 러시아의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를 전도구역으로 지정한다. 같은 해 김재형과 김경충은 경흥 지방으로, 강경구역 용안교회 출신의 한태영, 유내천, 이자삼, 장봉이, 이장운 등이 간도 선교사로 임명받고 파송되었고,²¹⁾ 뒤이어 1910년 4월 대한기독교대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손필환 목사를 함경도의 경흥, 경원, 회령과 간도, 훈춘의 책임자로 파송했다.²²⁾ 펜윅은 1908년 2월 경흥, 간도를 순회하던 중 최성업, 이종만, 장진규 등의 결신자를 얻는다. 이때 설립된 경흥의 고읍교회는 경흥지역의 대형교회로 성장하여 1927년에 동아기독교의 총회격인 대화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펜윅의 1908년 전도여행에서 얻은 결신자 중 한 명인 최성업은 아버지 최응

선을 전도하여 부자가 함께 전도자로 활약하여 간도와 연해주에 30여 개에 달하는 교회를 개척한다.²³⁾ 펜윅이 경흥, 회령, 라진, 웅기 등 함경북도 북부선교에 전력한 이유는 이 지역을 인접한 간도와 연해주 선교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실제로 1900년대를 전후하여 간도와 연해주의 조선인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펜윅에 의하면 1910년 재만한인과 재러한인의 인구가 각각 10-20만 명이나 되었다.²⁴⁾ 이들에 의해 개척된 간도의 교회들은 성장하여 1917년 10월에는 간도의 종성동교회에서 제12회 대화회를, 1925년에는 관두구교회에서 20회 대화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1889-1949년 통계를 보면 함경도의 동아기독교회는 북한지역 동아기독교의 75%를 차지한다. 특히 함경북도 북부지방의 교세가 강하였는데 1889-1949년 회령구역과 경흥구역에 각각 15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이는 동아기독교의 총부가 있던 원산구역의 9개 교회보다 많은 숫자이며 1940년대 조선에 존재했던 100여 개의 동아기독교 교회 중 30%를 점유할 정도였다.²⁵⁾ 동아기독교는 함경북도 북부의 회령, 경흥지부를 전진기지로 하여 1889-1949년 간도, 왕청, 훈춘, 북만주(현재의 자무스, 목단강 일대)에 55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같은 시기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 수청(빨치산스크), 연추(하산, 골라스끼노),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도비허(아누치노) 등지에 44개의 교회를 세웠다.²⁶⁾ 동아기독교 최초의 순교는 1918년 조선-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포시에트(현재 하산군에 속함)에서 발생했다.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받은 박노기 목사, 김희서 교사, 전영태 총찰, 최응선 감로는 1918년 10월 20일 러시아 하산에 위치한 포시에트해 모커우 지점에서 파선을 당하여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순교 소식은 전 동아기독교회 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사회에도 전해져 당시 연추와 수청의 많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²⁷⁾ 1909년 2월 시베리아 첫 동아기독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16년간 연해주에는 44개의 동아기독교 교회가 세워졌고 1925년에 세워진 오르싯쓰교회를 끝으로 더이상 연해주 지방에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공산당의 박해가 심해진 것이 이유로 추정된다. 실제로 1927년 경흥의 고읍교회에서 있었던 대화회에서는 공산당에게 박해를 받아 수난을 겪은 이들과 순교를 당

23)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한국침례교출판사) pp. 66, 67, 73.

24) 안희열, “말콤 펜윅의 북방선교에 관한 연구: 북한, 만주—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64집』 (대전: 2019) p. 94.

25) 안희열, 말콤 C. 펜윅(Malcolm C. Fenwick)의 북방선교 3, 침례신문, 2020년 1월 16일. (검색일: 2023, 10, 25)

26) 안희열, 말콤 C. 펜윅(Malcolm C. Fenwick)의 북방선교 4, 침례신문, 2020년 2월 13일. (검색일: 2023, 10, 25)

27) 안희열, “말콤 펜윅의 북방선교에 관한 연구: 북한, 만주—시베리아를 중심으로,” p. 118.

한 이들의 가족들의 간증이 전해졌고 이후 연해주의 성도들이 러시아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웅기로 모여들자 1929년 김봉관 목사가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²⁸⁾

한편 대한기독교회는 1921년 조선총독부가 ‘대한’이라는 용어의 삭제를 강요하여 ‘동아기독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1941년 말 교단 내외부적인 갈등속에 동아기독교가 사용하던 『신약전서』와 『복음찬미』가 총독부 경무국에 고발이 되는데 이때 복음찬미의 “대왕님 예수씨 보혈”, “주의 재림” 등의 가사가 천황에 대한 모독과 국체명징에서 벗어나는 불온사상이라 고발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산 총부에 보관된 신약전서와 복음찬미 6천 5백권을 비롯하여 모든 교단 서류가 압수당하여 소각되었다. 이때 동아기독교의 자료가 모두 소실되어 현재까지도 침례교역사연구는 사료(史料) 결핍으로 인한 많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942년 6월 10일에 원산 헌병대는 교단 총부를 불시 수색하였고 이후로 9월까지 동아기독교의 주요 지도자 32명이 구속된다. 이들 중 3인은 1943년 5월 15일에 기소유예로 석방되었고 8인은 1944년에 형을 채우고 석방된다. 이 중 3대 감목을 지낸 전치규 목사는 1944년 2월 13일 옥중에서 순교한다. 이 사건을 “원산사건”이라고 칭한다. 원산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32인 중 한병학 감로, 박성은 감로와 박성흥 감로, 박성도 목사 총 4인이 라진-경흥 지역의 사역자였다.

결국 1944년 5월 10일 일제에 의해 동아기독교에 대한 해체령이 내려졌다. 동아기독교 교단 해체의 이유는 “동아기독교가 신사참배와 황궁요배를 거부함으로써 일본국과 일본 천황을 모독했으며 교단의 교규내용이 일본국의 국체명징에 위배되는 불온사상을 지녔다”는 죄목에 따른 것이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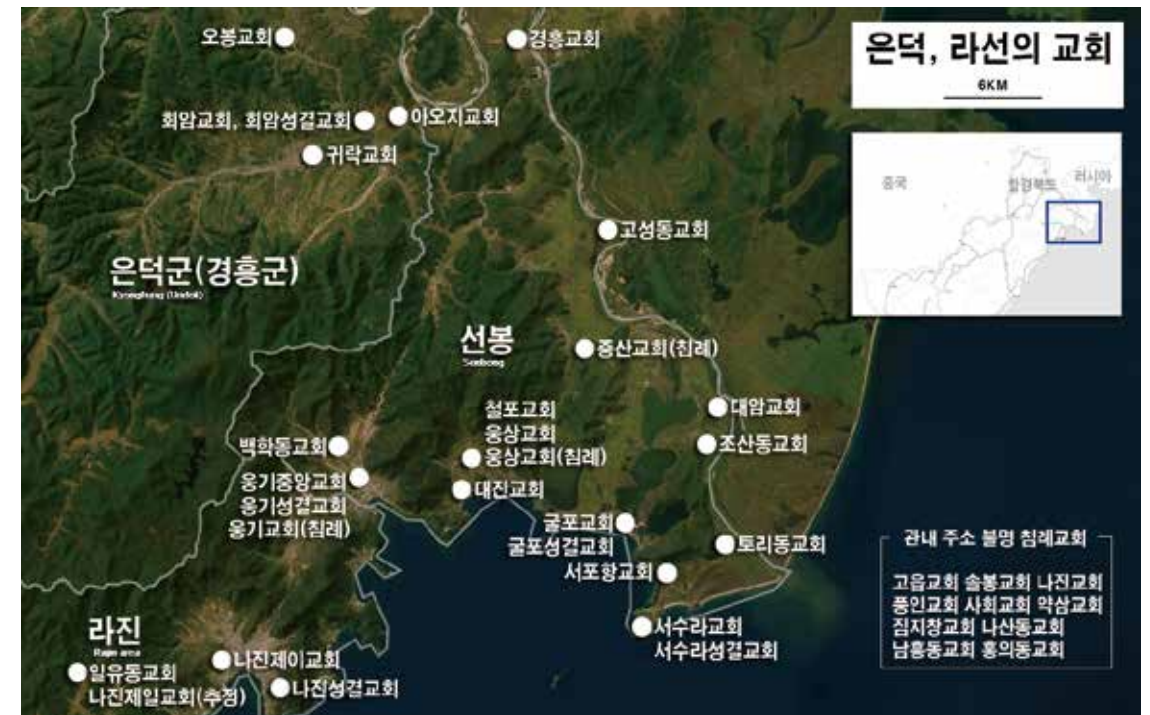
3) 성결교

한국의 성결교회는 종로 염곡에 동양선교회의 복음전도관이 문을 연 1907년 5월 30일을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동양선교회는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감리교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카우만(C. E. Cowman) 등의 선교사가 일본인 나카타 주지(中田重治)와 함께 1901년 일본 동경에서 세운 중앙복음전도관을 모체로 한다. 이후 이들과 같은 신학을 지닌 선교사들과 일본의 교회지도자들이 1905년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 OMS)를 조직하였다.³⁰⁾ 이들이 세운 동경성서학원에 조선인 학생들이 입학하였고 그들

28)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pp. 259, 260.

29)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p. 320.

30) 정상운, 『한국성결교회사1』(서울: 은성, 1997) pp. 52-67.



중 1907년 5월 2일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한 정빈과 김상준이 카우만 부부, 길보르와 함께 동경으로부터 조선에 입국한다. 조선에 입국한 이들은 복음전도관 설립에 착수하여 한달만에 복음전도관을 설립하고 사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복음전도관은 구리개로, 다시 무교정으로 확장 이전을 거듭하며 성서학원을 설립하여 지도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한다. 카우만을 따르는 동경성서학원의 조선인 신학생들이 졸업하여 귀국하고, 성서학원에서도 졸업생이 배출되며 동양선교회는 서울 이외의 선교지에 눈을 돌리게 된다. 동양선교회가 조선에 들어오던 시기 조선에서는 이미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연합공의회가 조직되어 선교지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양선교회는 교단이라기 보다는 ‘선교회’의 성격이 강하였으므로 기존 교단들간의 지역 분할을 반대했다. 당시 동양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동양선교회에 관한 한 우리는 결코 다른 선교회와 어떤 지역분할을 계획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성서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제도이며, 동시에 항상 최고의 결과를 생산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항상 가장 무시된 지역을 찾아 복음을 전할 자유를 가진다.”³¹⁾

라선과 경흥에 있었던 교회의 위치, (Google Map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참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록(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해노회, 『함해노회 80년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1992); 김용해, 『대한기독교 침례회사』, (서울: 성청사, 1964);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31) “Territorial Divisions,” EM(October, 1913)을 박명수, 『초기한국성결교회사』 p.22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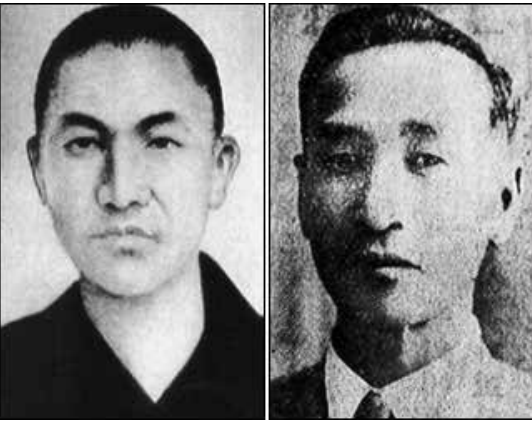
온성, 경원, 경흥에 있었던 교회의 위치, (Google Map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참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록(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해노회, 『함해노회 8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1992);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서울: 성정사, 1964);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 눈을 돌린 동양선교회는 (진)남포(1908), 개성(1909), 부여(1912), 김천(1914), 철원(1915), 경안(경기도 광주, 1915), 경주(1915)에 선교관을 설립하여 사역을 확장해 나갔다.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은 1921년 9월에 명칭을 성결교회로 변경하고 지역선교에 더욱 매진한다. 함경도 북부지방에는 192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하였는데, 1925년에 회령, 1927년에 청진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1929년에 이르러 안성, 동경과 더불어 함경북도가 지방회로 분립된다.³²⁾

함북 북부의 대표적인 성결교회인 웅기성결교회는 1929년 리정순 전도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4월 14일(주일)에 10여 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고, 두달 후 신자의 수가 50여 명으로 늘었다. 1929년-1930년 9개월간 기도회를 통해 은혜받은 다섯 형제가 힘을 모아 예배당에 전등을 설치했다. 1931년에는 송평동과 백학동에 기도소를 내었는데, 송평동 기도소의 첫 예배에는 장년 74인과 주일학생 50명이 모였다. 1934년에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했다. 1939년 2월에는 김영균 목사의 인도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폭설에도 불구하고 타교단의 성도들까지 모여 큰 은혜를 받았다. 당시 예배당 건축을 위해 모인 헌금은 1,100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예배당 건축을 위한 대지 구입비 549원의

32) 이명직,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약사』, (경성: 성결교회출판부, 1929) p. 20.

두배가 넘는 금액이었다.³³⁾ 웅기교회 성도들은 전도대를 조직하여 1931년 경성여관에 숙소를 정하고 3일간 서수라 지역의 각 집을 다니며 전도를 했다. 그중 수십명의 결신자를 얻었는데 당시 그들이 머무르던 여관주인인 이두석씨가 믿기를 결심하고 예배당 부지 120평을 기부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 개척된 서수라교회는 웅기교회의 지교회로 세워졌으나 이후 독립하여 매주일 예배에 1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다.³⁴⁾ 온성은 한반도의 최북단이자 1920년대 독립군의 활동 거점 중 하나였고 1935년에는 남양과 훈을 연결하는 국제철도의 분기점이 있는 도시였다. 이곳에 1932년 온성성결교회가 세워졌으며 1936년에 대지 150평에 10간의 기와집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³⁵⁾ 온성에서 라진에 이르는 한반도 최북부 국경 지역에는 위에서 소개한 교회 이외에도 종성성결교회(1933년 개척), 라진성결교회(1941년 개척), 조산동성결교회(1939년 개척, 경흥군 노서면 조산동), 굴포 성결교회 (1934년 개척, 경흥군 호서면 굴포동), 회암성결교회(1937년 개척, 경흥군 상하면 회암동)가 있었다. 이들 교회는 대부분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며 폐쇄되었다.³⁶⁾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한 정빈(1878~1949)은 1893년 무어 선교사의 전도로 연동교회 신자가 되었다(사진 왼쪽). 평남 용강 출생인 김상준(1881~1933)은 한학을 배우다 20세쯤 복음을 접했다(사진 오른쪽). 이들은 동양선교회의 일원으로 1907년 귀국해 조선선교를 시작한다. 동양선교회는 현재의 성결교로 발전한다.

4) 감리교의 연해주 선교

한반도 북부에서 감리교의 선교는 평양, 영변, 개성, 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함경북도 북부는 감리교의 선교구역이 아니었으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08년 남감리회가 이화춘 전도사를 북한도로 파송하여 만주선교가 시작되었다. 1920년에는 선교사 크램(Willard Gliden Cram)이 만주, 시베리아 지방 감리사로 임명되었다. 이들의 사역으로 교세가 급증하여 남감리회는 1921년 러시아령 니콜스크에서 ‘시베리아·만주 연회’를 조직하기에 이른다. 남감리회 여성교회 역시 시베리아선교에 가담하였다. 1922년 남감리회 조선매년회에서, 여성교회

33) 이한복, “북한지역 성결교회 이야기 15., 웅기성결교회,” 성결신문,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61> (검색일: 2023, 12, 1)

34) 이한복, “북한지역 성결교회 이야기 22., 서수라성결교회,” 성결신문,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61> (검색일: 2023, 12, 1)

35) 이한복, “북한지역 성결교회 이야기 23., 온성성결교회,” 성결신문,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61> (검색일: 2023, 12, 1)

36) 주승민 외, 『해방 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올리브나무, 2019) pp. 37-47.



조선 감리회 시베리아 지방 회 제4회 기념사진(최양섭 목사, 당당뉴스 제공)

는 최나오미를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는 니콜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연해주 각지를 순회하며 여선교회를 조직하여 1925년에는 연해주 지역에 여선교회 13개와 회원 109명을 얻을 수 있었다.³⁷⁾ 1921년에는 3.1운동 주동의 죄목으로 옥고를 치르고 갓 출소한 김영학 목사가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사로 지원하여 파송받았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의 정권을 잡은 공산당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며 1920년대 들어 교회에 대한 핍박도 증가하였다. 공산당의 핍박으

로 인하여 만주와 연해주 지방의 감리교회는 1922년 129교회 6,873명의 교인이 있었으나, 1929년에는 81교회 3,494명으로 교세가 축소된다. 이 무렵 연해주 선교의 중책을 담당하던 김영학 목사는 1929년 소련 공산당에 체포되어 10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33년 옥중에서 순교하였다.³⁸⁾

2. 해방이후 6.25전쟁 시기까지

1) 라진-경흥에 결집한 북한지역 동아기독교 지도자들

1940년대에 있었던 원산사건과 동아기독교회의 해체로 인해 동아기독교는 지도부가 완전히 와해된 상태로 해방을 맞는다. 동아기독교의 주요 구역들이 38선 이북에 있던 상황에서 38선 이남의 동아기독교는 교세가 축소되었고(1946년 당시 42개 교회 성도수 350여 명), 38선 이북에서는 공산당의 핍박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산에 있던 총부가 붕괴된 상태에서 이종근 감목은 종성으로, 김영관 목사는 1946년 10월경 라진으로, 최성업 목사는 청진으로 이주한다. 38선 이북의 다른 동아기독교 지도자들 역시 함경북도 북부로 결집하여 라진-경흥지역이 38선 이북 동아기독교의 중심지가 되고 또 다른 일부는 자성구역(현재의 자성, 중강, 만포, 화평, 김형직군을 포괄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재건한다. 1947년 초 라진교회를 중심으로 경원, 아오지, 경흥, 웅기, 라진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 38선 이북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 종전의 “대화회”와 “감목”의 명칭을 “총회”와 “총회장”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으며 총회장에 이종근, 부총회장

에 박형순, 고문에 김영관 목사가 선임된다. 당시 자성구역의 대표 방사현³⁹⁾ 목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총회장 박형순 목사가 자성구역을 방문하여 방사현 목사를 만나고 결과를 지도자들에게 공유한다. 1948년 2월 라진에서 열린 제2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최성업 목사, 부회장에 박형순 목사, 고문에 이종근 목사가 선임된다. 그러나 자성구역의 대표는 2차 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총회는 서신을 통해 보고를 받는 한편 같은 해 5월에는 이봉래 전도사를 파송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 시기 북한정권의 탄압이 본격화되며 지역 간 연락과 내왕이 단절되고 말았다.⁴⁰⁾

해방 후 북한에 남은 동아기독교의 주요 인물로는 김일제 목사와 김영관 목사가 있다. 그 중 김영관 목사는 1896년 함북 종성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1924년 19차 대화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1928년 간도 종성동교회에서 공산당에 의해 살해당한 김영국 감로와 김영진 목사의 동생이다. 형들의 순교 직후에도 그는 순회전도를 쉬지 않았고 오히려 사경회의 간증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 펜윅은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제4대 감목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1934년에서 1940년까지 6년간 감목(총회장에 해당)의 직무를 수행했다.⁴¹⁾ 그는 감목에 재직할 당시 ‘반(反)신사참배 달편지’로 옥고를 치렀으나 함경도 오지와 간도지방 순회전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해방 후 그는 라진에 머무르며 38선 이북 동아기독교의 재건을 위해 힘썼으나 공산주의 정권 수립 이후 공식적 교단 재건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후 그는 경흥, 웅기 지역에서 평생을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며 살다가 1991년 96세에 소천한다. 김영관 목사의 친형이자 1928년 종성동에서 순교한 김영국 감로의 자손들은 연변에 남아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 왔으며 그 중 손자 3인이 연변에서 목회자가 되어 선교활동을 이어갔다.

2) 장로교

해방 후 첫 노회인 제 32회 함북노회가 1945년 10월 경 열렸으며 이후로 박해도도 불구하고 1950년 4월 18일 청진포항제일교회에서 43회 노회가 열리기까

39) 김일성의 회고록을 보면 방사현 목사는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과 가까운 사이로 김일성이 10세 때인 1921년 김일성의 가족이 림강(길림성 임강시)에서 팔도구(길림성 장백현 팔도구진)로 이사할 때 발구(설매)를 끌어준 것으로 나온다. “이제는 림강에서도 더 살수가 없었다. 우리는 또다시 이사짐을 꾸려 가지고 남의 나라 지경의 타향에서 타향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온 식구가 이고 지고 메고 림강을 떠났는데 인력으로는 이사짐을 도저히 다 나를 수가 없어 방사현이라는 전도사가 발구를 끌고 우리가 살게 될 장백현 팔도구까지 동행해 주었다. 림강으로부터 팔도구까지는 250리 가량 된다고 하였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63.

40)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pp. 338-342.

41)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p. 276.

37) 이덕주 외, 『한국감리교회역사』 (서울: KMC, 2017) pp. 292, 293.

38) ‘김영학 목사의 순사,’ “기독신보”(1933년 10월 25일)를 이덕주 외, 『한국감리교회역사』 p. 294에서 재인용.

지 5년간 노회는 빠짐없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각 회기마다 임원선출 등의 회무도 진행되었다. 6.25 발생 이후 노회는 중지되었으며 1.4후퇴때 함북노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대다수가 청진에서 미군이 주선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결국 1950년 가을 44회 노회는 9.28서울수복 직후 10월 17일 함경북도가 아닌 서울 신당동의 함북교회에서 열린다. 월남한 함북노회 지도자들과 교회의 대다수는 1953년 장로회 분열 시 기독교장로회를 선택하였으며, 예수교 장로회에 남은 목회자와 교회들은 1959년 장로회 합동-통합 간 교단 분열 시 통합교단을 선택한다.⁴²⁾ 1.4후퇴 당시 미군이 주선한 배를 타지 않고 북에 남은 성도들은 남한교회에 잊혀진 채로 있다가 2000년대 들어 국내에 입국한 함경도 북부지역 출신 탈북자들에 의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6.25시기 북한이 점령한 대다수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가 발생했는데, 라선(현재 주소 기준) 출신으로 알려진 6.25시기 납북, 순교자로 송창근 목사가 있다. 그는 1898년 경흥군 웅기면에서 출생하여 용정의 명동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서울 피어선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다. 그는 1920년 함경북도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강연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일제에 의해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도미하여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덴버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해방 후 그는 1946년부터 조선신학교 교장, 성남교회 목사로 사역하던 중 6.25가 발발하여 공산군에게 납북되어 1951년 7월경 평남 대동군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1940년대 초반 온성의 온성읍교회를 담임하던 이선용 목사는 해방 후 월남하여 구례읍 중앙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빨치산에 의해 순교하였다.⁴³⁾

3.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온성, 경원, 경흥, 라진 등 함북 북동부 국경지역은 동아기독교와 장로교 교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북한의 공산화와 6.25를 거치며 대다수 교인들이 월남의 길을 택하였고 소수만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지역에 기독교인이 급증하게 된 것은 북한에 종교박해가 본격화되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지로의 추방이 시작되면서부터다. 남한 출신 국군포로들의 대다수가 경흥(아오지)에 배치된 것을 비롯하여 웅기, 경흥, 온성은 북한의 대표적 탄광지대로 대도시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많이 배치된 지역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그루터기 성도들

42) 함북노회, 『함북노회 100년사: 1912-2012』(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북노회, 2014) pp. 123, 124.

43) 유관지, 『북중접경, 기도하며 걷다』 p. 229.

도 일부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였고 이 지역 기독교 관련 소식들도 국내에 전해지기 시작한다. 간증과 도서 등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사모 이야기

K사모의 가정은 친가 외가 모두 기독교 집안으로 북한의 공산화 후 함께 예배를 한 동역자 가정이다. 자연스레 두 집안의 아들과 딸이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새로 탄생한 가정은 신앙공동체의 기둥이 되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딸이 K사모이다. K사모는 북한에서 보낸 어린 시절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다. 할머니는 해방 전 동아기독교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로 일제강점기부터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광주리 깊은 곳에 숨겨놓고 몰래 성경책을 보았고, 아버지도 연변 H교회 T목사가 방문하여 전해준 성경을 소중히 간직하며 몰래 보았다. 온 가족은 집에서 비밀리에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불렀다. K사모는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식사시간이 목상나눔의 시간과 같았다고 회상한다. K사모에게 말씀과 찬송을 가르친 분은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는 “소가 풀을 뜯어 먹고 되새김질하듯이 너희들도 지금 배운 말씀과 찬양을 혼자 되새김질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밤마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생기기를 위해 기도했으며 손녀들에게는 집에서 보고 들은 신앙이야기를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아버지는 양복을 만드는 일을 했다. 성도들은 아버지의 양복점에 자연스레 들러 교제를 나누었고 주일에는 번갈아가며 5-1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는 할머니가 보관한 성경, 조선족 T목사가 주고 간 성경,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필사한 성경 총 세 개의 성경을 보았고 설교는 K사모의 할머니 혹은 아오지에서 오신 할아버지가 전하셨다.

그러던 중 1994년 지하교회가 발각되어 아버지는 잡혀가고 가족들만 남게 되었다. 남은 가족들은 불안 속에 오지로 추방될 날을 기다리던 중 아버지가 체포된 지 보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할머니 장례식에 참여했던 고모 역시 지하교회 성도였는데 고모도 함경남도로 돌아간 후 며칠이 안되어 보위부에 잡혀갔다. 이후 K사모의 가정도 함북북부 OO지역에 추방된다. K사모의 가족은 다른 성도들과 교류가 끊긴 채 추방지에서 10년을 생활하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견뎌냈다. 이후 K사모는 중국에 있던 조선족 T목사의 도움으로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다.⁴⁴⁾

44) K사모와의 인터뷰(2015, 2016, 2019년)

2) Y자매

Y자매의 가정은 한국교회 초기부터 신의주에서 믿음을 이어온 가정이다. 해방 후 북한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후 북에 남은 신의주의 성도들은 평양을 오가며 생활한 경우가 많았다. Y자매의 가족도 평양과 신의주를 오가며 살아가던 중 1958년도부터 북한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다수 가족들은 공산정권 초기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갔고 북에 남은 가족들도 대부분은 뇌물을 주고 신상에 관련된 공문서에서 신앙경력을 삭제했다. 그러나 Y자매의 가족들은 미처 손을 쓰지 못해 아오지로 추방되었다. 추방된 아오지의 주민 대부분은 탄광에서 일했는데 그 중에는 기독교 신앙 이력이 문제가 되어 추방된 사람들이 많았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같은 작업조로 배치되어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1960년대 초기 아오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갱도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모인 작업조가 들어간 갱도에서는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아오지 지역의 성도들 간에는 비밀리에 연락망이 구축되었다. Y자매의 할아버지는 아오지 주변 지역의 성도들을 교단과 상관없이 지역별로 구분하여 구역을 나누고 목양을 이어갔다. 그는 추방될 때 성경책을 여러 권 가져왔으나 모두 소각해 버리고 결국 한 권만 남았다. Y자매의 가족은 이미 악질반동 기독교인으로 정권의 감시 대상이었다. Y자매의 아버지는 극동방송을 몰래 듣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 Y자매의 아버지는 손재주가 좋아 목공 기술자가 되었는데, 목공 작업실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버지는 일하는 것을 가장하여 예배와 신앙교육을 이어갔고 그 와중에 주변 사람들을 전도했다. 그 중 감시 임무를 받고 자신을 감시하는 청년을 전도하였고 그 청년은 이후 Y자매와 결혼을 하여 탈북을 하게 된다.⁴⁵⁾

3) 온성으로 추방된 이기백 장로 가정

이기백 장로는 신의주 동부교회(성결교)의 장로였다. 일제강점기 말 신의주 동부교회는 매년 교인들이 증가했지만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43년 12월 해산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신의주 제2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 후 신의주 동부교회도 다시 문을 열었으나 북한의 공산화와 함께 다시 여러 모양의 핍박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이기백 장로는 평양으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강령욱 측이 추진하는 북조선 기독교도연맹 측에서 이기백 장로를 포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 일로 정권의 미움을 사서 수시로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어 평양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결국 1945년 말

항해도로 내려와 피신 겸 요양을 하며 한편으로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다. 6.25 전쟁이 일어났고, 故 한경직 목사가 그를 남쪽으로 데려가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는 가족들이 위험하므로 가족들을 버리고 따라갈 수 없다고 거절하고 한경직 목사가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이기백 장로의 가정은 평양에 머물던 중 1959년 9월쯤에 함경북도 온성지역으로 추방을 당한다. 이기백 장로가 배치된 마을 주민의 대다수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추방된 이들이었다. 평양에서 추방당해 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마을은 작은 평양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한다. 기독교 출신 가정은 울타리도 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울타리를 세우면 숨어서 간첩질을 한다며 울타리를 못 치게 했기 때문이다. 자녀들 역시 좋지 않은 출신성분으로 상급학교진학도, 결혼도, 취직도 모든 게 어려웠다. 그럼에도 이기백 장로는 온성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고난의 행군시기 그의 딸이 탈북을 하여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의 행적이 한국에 소개되었다. 한국교회사에서 故이기백 장로는 공산당에 체포되어 1951년도에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일로 인해 그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온성으로 추방당한 후, 1993년까지 살다가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딸의 증언에 의하면 이기백 장로의 장례식 때는 수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를 하며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을 불렀다고 한다.⁴⁶⁾

4) Y자매 이야기와 온성의 탄광에서 기도하던 노동자

Y자매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함흥에서 할머니의 손에 길러졌다. Y자매의 친가와 외가 모두 독실한 기독교가정으로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 믿는 가정끼리 자녀를 맺어주어 결혼한 사례이다. Y자매의 어린시절 기억에는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땅에 묻는 것을 본 것과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가족은 자매가 어린 시절 백두산자락 산골로 추방되었고 온성에 사는 남성을 만나 결혼하여 온성으로 이주하게 된다. 1979년 보위부가 동마다 한 개씩 생기며 북한의 공포정치는 본격화되었다. 당시 성분이 나쁜 이들을 처형하는 피바람이 불었는데 Y자매의 오빠도 이때 희생되었다. 오빠는 1980년 보위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오빠가 처형당할 당시 Y자매 가정의 신분을 기록한 정부의 문건에는 기독교 관련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정작 남매는 어린시절 이후로는 기독교를 접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신앙활동도 하지 않았으나 오빠는 이때 처형된 것이다. 당시 온성에는 평양에서 추방되어 온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자매는 당시 온성

45) Y자매, X형제와의 인터뷰(2017, 2019, 2021년)

46) 김병로 외, 『그루터기』, (서울: 박영사, 2020), pp. 74-78.

에서 일어났던 기독교 관련 사건을 기억한다. 당시 탄광에서 식사시간마다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용변을 보러 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는 깊은 굴 속에서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었고, 결국 발각되어 보위부로 끌려갔다. Y자매는 탈북에 성공하여 현재 남한에 거주중이다.⁴⁷⁾

5) H자매 가정 이야기

H자매의 가족은 평양에서 살다가 1950년대 후반 즈음 온성으로 추방당했다. H자매 가정이 살게 된 온성의 집에는 이미 역시나 평양에서 추방되어 온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이 살고 있었다. 그 두 가정을 비롯한 몇몇 기독교 가정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H자매 가족과 함께 살던 독실한 가정은 신앙활동이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H자매의 가정이 평양에서 온성으로 추방당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다. H자매의 아버지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나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어 직장과 노동당 당적을 잃게 된다. 아내에 대한 원망도 있었으나 아내가 워낙 지혜롭고 선했으므로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도 H자매의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다. 그러나 아내가 죽고 난 후 그는 아내에게 늘상 들었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H자매에게 가르치며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후 H자매는 신앙의 방향을 거쳤으나 탈북 후 남한에 오는 과정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남한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⁴⁸⁾

6) N자매 이야기

N자매는 일제강점기였던 7세 때 교회에서 들리는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가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일제 말기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황해남도 송화군에 살다가 해방을 맞았다. 이후 공산정권이 수립되며 1946년 교회가 폐쇄되었고 성도들도 모두 흩어졌다. 그녀는 6.25중에 평양에 자주 다녔고 1952년에는 평양으로 이주하였다. 교회가 폐쇄된 이후 그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1952년도 평양의 권역거리 라는 곳에서 5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하던 것이 인원이 줄어 없어졌다. 이후 믿음의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간 지 20년이 지났을 즈음 N자매는 예수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온성으로 추방이 되었다. 자매는 20년 간 신앙을 숨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당국이 자신의 신앙을 알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후에 확인해보니 20년 전에 N자매의 신앙을 알았던 사촌언니의 신고로 자매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다. N자매는 계속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오다 탈북하여 국내에 정착하였다.⁴⁹⁾

7) 온성 보위부와 구류소를 거쳐 간 기독교인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며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다. 당시 선교한국의 열풍 속에 수천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에 파송되었고 그 중 중국의 동북지방은 한국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된 지역이었다. 북한에서 쏟아져 나온 탈북민들과 남한에서 쏟아져 들어간 선교사들이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만나 수많은 사역과 열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에 의한 탈북자 검거와 북송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연변 지역에서 검거된 탈북자들은 중국의 도문 변방대 구류소에 모여 온성으로 이송되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인들도 온성의 구류소와 보위부를 거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소식이 온성 구류소와 보위부를 거쳐 북한에서 생활하다 재탈출에 성공한 탈북민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물론 신앙인으로서 온성 구류소와 보위부를 거친 탈북민 중 재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도 다수 존재한다. 그들의 증언 중 『북한종교자유 백서』에 실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라는 여자가 2004년 중국에서 강제송환되어 함경북도 온성군보위부에 구금되었다. **은 중국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북한으로 파견되는 날에 붙잡혔다. 이후 보위부에서 종교 문제로 특히 **을 가혹하게 대했고 많이 때렸다. **은 맛을 때마다 “아버지, 이 딸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⁵⁰⁾

0000년 4월 온성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라고 그 때 나이가 26살 정도 됐습니다. 그 여자가 중국에서 교회를 간 사실이 탄로가 났습니다. 중국 연길에서 같이 교회에 다닌 여자가 그때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교화 5년을 받고 함흥 교화소로 갔습니다.⁵¹⁾

“***은 중국에 가만히 건너갔다가 성경책을 갖고 왔대요. 집에 숨겨놓고 봤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잘나가서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집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재미있는 책이 있다고 하면서 그 책을 보여

49) 김병로 외, 『그루터기』, pp. 111-117.

50) 윤여상 외, 『2012북한 종교자유 백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p. 160, 이 여인의 이야기는 2008년, 2009년에 시행된 각각 다른 탈북민의 인터뷰에서 확인된다.

51) 윤여상 외, 『2012북한 종교자유 백서』pp. 166, 167.

47) 김병로 외, 『그루터기』, pp. 80-86.

48) 김병로 외, 『그루터기』, pp. 96-103.

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말이 나오고 하면서 그 집이 쫓딱 망했어요. 그해 **은 온성군 보위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많이 맞고 고문 당하면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풀려나서 반죽음이 되어 집에 왔는데, 다시 건강해져서 신체검사 합격돼서 함흥 오로 교회소로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이후 2009년도에 남편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⁵²⁾

2005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온성군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옆 호실 남자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보위원이 피해자에게 기독교를 믿은 것을 인정하고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하자 피해자는 찬송가를 불렀던 것이고, 그날 밤 사라졌다. 당시 피해자가 비밀처형 당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⁵³⁾

"장사하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기독교 전파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함경북도 온성군 군 보위부에서 잡혀서 추방당했어요. 관리소에 아마 가서 달구다가 큰 거는 아니니까 추방한 거 같아요. 이제는 죽었을 거예요. 세게 기도를 믿었다는 것 같아요. 밤마다 믿었다는 거 같아요.”⁵⁴⁾

2003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공개처형장으로 끌려가는 3명의 남자를 목격하였다. 그중에서 증언자와 중국에서 함께 성경공부를 했던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은 공개처형 되기 전에 입에 재갈을 물고 있었으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니, “주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한마디를 하고 총살당했다.⁵⁵⁾

“2006년에 온성 보위부로 이관됐고 거기서 예심을 받았습니다. 온성 보위부에서 **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서 양손에 족쇄가 채워진 채로 맞아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가 3일 만에 겨우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⁵⁶⁾

4. 라선의 개방 이후 라선으로 간 선교사들

1990년대 라진 선봉의 개방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던 성도들도 라진 선봉을 통한 북한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량난과

비참한 북한 주민들의 소식,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남북화해 무드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시켰다. 그 일선에 한국계 제삼국 국적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사역 중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광덕 목사

이광덕牧사는 평양출신의 실향민으로서 1960년대 미국으로 이주하여 목사안수를 받은 뒤 LA에서 베벌리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사역 후 은퇴했다. 그는 은퇴 이후 1992년부터 북한사역에 전념하며 남한교회가 모은 사랑의 쌀 800톤을 전달하고, 1996년에는 라진선봉시에 고려문화센터 지사 설립과 투자유치권을 위임받을 정도로 북한 당국과 깊은 신뢰를 형성한 인물이었다. 그러던 그가 1998년 6월 라진고려식품합영회사 대표자격으로 라진선봉에 위치한 국수공장 노후설비 교체와 장공장 설립 등을 목적으로 방북했다가 간첩활동 혐의를 받고 억류되었다. 그는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북한에 지불하고 3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이 목사의 혐의 중 하나는 오랫동안 이산가족 상봉 활동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남쪽에 친지를 둔 북한 주민의 편지를 남측에 전달하기 위해 은밀히 건네받은 것이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억류 3개월만에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이광덕(李光德.73) 목사는 귀국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간첩 혐의로 북한 당국에 의해 조사받게 된 배경에는 일부 미주 한인들의 투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확한 억류 사유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내가 한국의 정보원과 관계를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 후 30일 동안 매일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석방될 수 있었다. 이 목사의 체포는 미국 국적 목회자에 대한 북한정권의 최초의 억류사태였다.



이광덕 목사 (사진: 통일뉴스)

2) 김진경 총장과 라선과기대 설립 시도

연변과기대의 김진경 총장은 1987년 북한을 방문한 이후 북한을 돕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 그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라선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대흥단, 혜산, 청진, 회령 등 209개 지역의 10세 미만 어린이 약 33,700명에게 매달 식량, 분유, 의류,약품 등을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지원했다. 그가 지원한 지역은 북한 전역에 걸쳐 있지만 그가 지원한 현황과 내역을 종합하면 온성, 종성, 남양, 섯별, 경원 등 함경북도 북부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북한 당국과 신뢰관계를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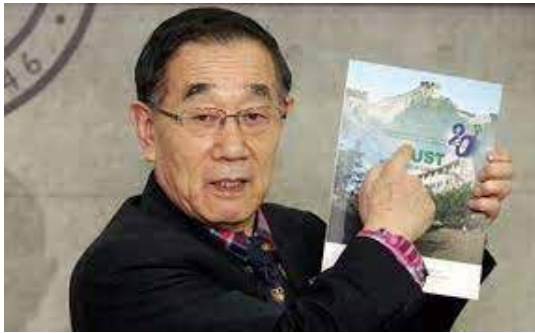
52) 윤여상 외, 『2012북한 종교자유 백서』p. 167.

53) 윤여상 외, 『2012북한 종교자유 백서』p. 168, 169.

54) 윤여상 외, 『2012북한 종교자유 백서』p. 171.

55) 윤여상 외, 『2014 북한 종교자유 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5) p. 213.

56) 윤여상 외, 『2016 북한 종교자유 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p. 209.



연변과기대 20주년 자료집을 설명하는 김진경 총장

탕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가던 1998년 9월 김진경 총장은 갑작스레 북한 당국에 구속된다. 그가 구속되기 전 북한 사역에 있어서 그의 오른팔이던 이명숙 사장이 연금되었는데, 이명숙 사장은 16년간 연변의 한 대학에서 사회주의 정치학을 강의한 조선족 학자 출신으로 연변에서 사업을 하던 중 김진경 총장을 만나 그의 북한사역을 돕고 있었다. 이명숙 사장이 구속된 지 6개월 후 김총장은

조선족 간부를 라선에 보내 소식을 알아보게 했으나, 심부름을 간 그 간부도 구속되었다. 이후 김진경 총장은 본인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평양으로 향한다. 평양으로 간 그는 자유주의 이념을 당 지도부에 파급시키려 한 죄, 조선 행정부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유도한 죄, 북한 인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한 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언도를 받는다. 이후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김총장은 42일 만에 석방되어 중국으로 돌아온다.⁵⁷⁾ 1990년대 김진경 총장이 설립한 연변과학기술대학(연변과기대)이 자리를 잡은 시점에서 1990년대 후반 김진경 총장을 중심으로 서구 대학들과 협력하여 라진-선봉에도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백지화되었는데, 김진경 총장이 구속된 시기는 이 논의가 무산된 직후이다. 이후 김진경 총장은 2001년 3월 북한에 다시 방문하여 평양과학기술대학(평양과기대)을 설립하고 북한사역을 재개한다. 당시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 내막은 연변의 소설가 허련순이 김진경의 일대기를 정리한 책 『사랑주의』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3) 김재열 목사의 구제사역과 구금

캐나다 이민자인 김재열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소속 북방선교사로 북한에 파송됐다. 그는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1997년 라선에 치과병원인 라진구강예방병원을 개설했으며 이후 고려한방병원과 창평유치원 등을 설립하였다. 북한 당국은 김재열 목사의 봉사활동과 치과진료소 설립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며 영주권에 해당하는 ‘거주권’도 발급해 주었다.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배려를 해, 그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배 참여 권유 활동도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⁵⁸⁾ 라선에서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어가던 김재열 목사는 2007년 11월 “북한 주민을 선동해 교회를 세



김재열 선교사(사진: 통일뉴스)

57) 허련순, 『사랑주의』 pp. 283-306.

58) “최재영 목사의 남북사회통합운동 방북기, 나진선봉교회(중)”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50>

우려 한다”는 죄목으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북한이 김재열 목사를 억류한 이유는 그의 노트북에 담겨진 활동내역과 사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열 목사가 2007년 7월 하순 북한 출국을 위해 두만강 하류의 ‘원정’지역 출입국사무소에서 검색을 받던 중 노트북을 압수당한 바 있다. 이후 한 달여 만인 8월 말에 다시 북한에 들어가, 두 달 후에 체포됐다. 당시 북한 당국은 “호텔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재하지 않았지만, ‘공개 장소에서의 예배는 불가하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치과진료소에서 공개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면서 “이 문제는 결코 종교탄압이 아니라, 김 목사가 북한 사회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열 목사는 85일간 구금을 마치고 2008년 1월 24일에 석방됐다.

4) 전용수 선교사

전용수 목사(Eddy Jun)는 얼바인 소재 베델한인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2000년대 초반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중국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는 라선시에서 농기계 생산공장인 ‘나선변강뜨락도르’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평소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한 트랙도르(트랙터)를 라선시 인민들에게 기증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공장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에게 대우도 매우 잘해주어 라선시에서 신망이 높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전용수 선교사는 2010년 11월 갑작스레 체포되었다.



전용수 선교사

북한은 처음에는 그의 혐의를 밝히지 않은 채 기소할 방침이라고만 밝혔으나 곧이어 “미국인 전용수가 조선에 들어와 반공화국 범죄행위를 감행해 지난해 11월 체포됐으며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라고 공개했다. 조사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북 당국은 “조사 결과 전용수가 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중략) … 본인도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솔직히 인정했다”라고 발표한다. 전선교사가 체포될 당시 조선족 동역자 두 명이 함께 체포되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거의 3년 동안 전 목사와 함께한 전선교사의 오른팔이었다. 조선족 동역자들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북한 당국은 우선 이들을 중국으로 추방했다. 당시 북한을 방문했던 카터 대통령은 자신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터센터’ 사이트에 방북 보고서를 올리면서 전용수 목사에 대한 석방 요구가 북한에 의해 차갑게 거절당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⁵⁹⁾

59) “최재영 목사의 남북사회통합운동 방북기, 나진선봉교회(중)” 통일뉴스

“나는 평양을 방문한 첫날 인도적 차원에서 ‘에디 전(전용수 목사)’을 석방해 달라는 서면요청서를 박의춘 외무상에게 전달했으나 다음 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미국 당국의 노력이 힘을 발휘하여 전 목사는 북 당국으로부터 가족과 전화통화를 허용받는 등 완화된 분위기에서 억류생활을 보냈으며 미국의 요청에 따라 스위스 외교관들은 전 목사와 8차례에 이르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2011년 4월 27일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직접 방북해 북 지도부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교섭을 벌인 결과 이튿날인 4월 28일, 억류된 지 6개월 만에 전격 석방됐다.

5) 케네스 배 선교사의 사역과 억류

케네스 배는 1985년 미국에 이민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북한선교에 사명을 받고 중국으로 향한 그는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로서 여행사를 설립하여 여행팀을 인솔하여 라선에 17회나 방문했다. 그가 조직한 여행팀은 모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비전트립 팀이었다. 그는 2012년 11월, 그의 18번째 북한 방문 중 국가전복 음모죄로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된 이유는 당시 그가 소지한 외장하드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자료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노트북을 교체하며 이전에 쓰던 노트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외장하드에 백업해 두었다고 한다. 원래 계획은 중국의 호텔 금고에 외장하드를 넣어둘 계획이었으나, 그만 깜빡 잊고 외장하드를 소유한 채로 북한에 입국한 것이다. 당시 외장하드에는 6년간 그가 중국에서 사역한 모든 사역의 내용과 동료 선교사들의 사진을 포함한 8천 개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 클립이 들어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15년 형을 받았는데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그가 “솔직하게 자백”한 덕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선전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가정보국 국장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뒤 2014년 11월 케네스 배는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의 사역과 수감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회고록 『잊지 않았다』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6) 임현수 목사의 억류

임현수 목사는 1996년 북한사역에 발을 디딘 이래로 거의 20년간 북한사역을 이어온 북한선교계의 대표적 인사이다. 그의 사역 초기 주 활동 무대는 라선지역이었다. 그가 사역했던 토론토 큰빛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3년 8월 목회 칼럼을 보면 임 목사의 대북 지원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끝없는 발걸음이 이어져야 할 땅입니다. 3차 양로원 건립은 멋지게 완성되어서 금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목욕탕도 받은 우리 교회가 짓고 받은 라진시에서 짓는 어려움 속에서, 일단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10월 개장 예정입니다. 4계절 비닐하우스 3동을 짓고, 자연 농법 양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쇼를 통해 사무실 장비들과 자동차를 구입하고 본격적인 비즈니스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큰빛교회는 라선에 농장을 시작하였고 라선지역에 2,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목욕탕을 지어주는 등 복지 사역을 이어나갔다. 그의 사역은 라선을 넘어 북한 전역을 향하여 나아갔고 노인 집짓기, 탁아소 건립은 물론 라면 공장, 국수 공장 지원, 동북 보내기 사업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2015년 억류되기 전까지 북한을 110번이나 방문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2015년 1월 30일 북한 통상부의 연락을 받고 하루 일정의 라선 방문을 위해 입북하였다. 입북 이후 정부 관료들은 계획이 바뀌어 평양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며 다음날 그를 평양으로 이송했고, 평양에 도착한 임현수 목사는 조사를 받고 “종신노동 교화형”을 받는다. 이후 캐나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그는 2017년 8월 석방된다. 그의 사역과 북한 억류기간의 이야기는 그의 회고록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임현수 목사

7) 김동철 목사의 첩보활동 고백

라선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 모두가 위의 선교사들처럼 순수한 선교의 사역만을 감당한 것은 아니다. 개종 국가기관의 사업에 연루된 인물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동철 목사가 그런 사례이다. 김동철 목사는 미국의 사업가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신학공부를 하여 신학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1985년 미국에서 중국 조선족인 아내를 만나 북한선교에 관심을 갖고 2004년부터 중국에서 북한선교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2004년 연변의 훈춘시에 국수공장과 빵공장을 차려 매월 2회씩 국수 10톤과 빵 500박스씩을 북한의 라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라선에 두만강 호텔을 설립하여 자리를 잡는다. 여러 활동을 통해 북한의 신뢰를 얻은 그는 라진선봉지구 해외사업처 투자유치



석방 후 미국에 도착한 김동철 목사.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을 나갔다.

위원장의 직책을 얻게 된다. 이후 그는 연변지역에 거주하면서 북한 당국과 공식적인 사업을 벌이기 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한편, 사업자 간의 다툼이나 서류증 발급과 같이 당국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의 역할도 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의 사역이 외부로 알려지고 유명세를 타던 2014년 그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담당자, 그리고 한국 정보기관의 담당자와 접촉을 하여 협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그의 혐의가 발각되어 그는 라선에서 체포되었고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최고존엄모독죄 등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다행히 최고재판소에서 10년 강제노동교화형으로 감형을 받았고 이후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대북 화해 무드 속에 2018년 5월 9일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온다. 그의 사역 이야기는 그의 회고록 『경계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8) 윤상혁 선교사와 선양하나의 사역



윤상혁 선교사가 설립한 NGO 선양하나의 라선에 여러개의 유치원, 탁아소를 건립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선교사들은 모두 구금, 추방 등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라선지역에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외부에 자신을 알리지 않은 채로 사역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으며, 라선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선교사들도 있다. 이들의 사역에는 많은 간증이 있으나 보안문제로 인해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예외로 활동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사역을 공개한 선교사로 윤상혁 선교사가 있다. 윤상혁 선교사는 2008년 라선에 들어가 김재열 목사의 사역을 그대로 인계받았다. 2008년에는 북한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NGO 선양하나를 설립하여 사역을 확장했다. 선양 하나는 선봉지구의 백학리에 백학유치원을 세우고, 라선지역 학교에 공책보내기 사업, 탁아소와 농촌진료소 건축사업,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의 교사와 의사들에 대한 쌀과 콩기름 지원사업을 해왔다. 2022년 현재까지 선양 하나는 유치원과 탁아소 열다섯 곳, 농촌진료소 다섯 곳을 지었고, 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선양 하나는 라선에 위치한 선양신발회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선양신발회사는 사향산 기술에 자리잡아 신발을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생산한 축구화와 ‘휴즈’라는 운동화가 북한에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선양 하나는 북한주민들 뿐 아니라 중국 동북 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는 건강한 기관이다. 윤상혁 선교

사와 선양하나의 사역 이야기는 2021년 그가 발간한 책 『사랑으로 길을 내다』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상술한 선교사들 외에도 평양에서 체포된 김상덕(연변과기대 교수) 선교사와 김학송(평양과기대 교수) 선교사도 라선에서 사역한 경력이 있다.

나가며

온성으로부터 라선에 이르는 한반도 최북단 지역은 산간 오지도시로, 비교적 늦게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다. 일찍이 조선에 자리를 잡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성진, 회령에 정착하여 순회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조선인 조사들은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개척되었다. 또한 당시까지도 선교단체의 성격이 강했던 대한기독교회(이후 동아기독교→침례교로 개칭)와 동양선교회(성결교)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은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접한 유일한 지역으로 동아기독교회와 동양선교회에 있어 연해주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으며, 러시아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1920년대 연해주 한인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이 지역 교회가 연해주 기독교인들의 후원자 역할도 감당하였다. 분단 이후 38선 이북의 동아기독교 지도자들은 온성-라선에 모여 교회 재건을 위해 힘썼으나 공산정권 수립으로 재건에 실패한다. 이때 동아기독교 재건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관 목사이다. 그는 침례교의 4대 총회장(감독)을 역임하고 일제에 항거하여 옥고를 치른 인물로 웅기(현재의 라선)에 남아 평생을 하나님의 종답게 살고 96세의 일기로 소천하였다.

예부터 유배지였던 온성과 경흥은 1950년대 후반 북한에 종교박해가 시작되며 정치범들에 대한 추방지가 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북한 전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이다. 이들은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며 대를 이어 신앙을 지키고 지하교회를 형성했다. 이들의 후손 중 몇몇이 한국에 넘어와 이들 지하교회의 생존사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다시 들어가게 하셨다. 라선은 북한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밟은 북한의 도시이다. 수많은 한국계 외국인들과 외국의 선교사들이 라선에서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트렸고 전 세계의 북한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으로 그 땅을 밟고 주민들을 바라보며 기도의 단을 쌓았다. 라선의 교회사는 과거의 역

사(캐나다 장로교, 동아기독교, 동양선교회)와 현재의 사역(라선에 진출한 선교사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름없이 존재한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공존하는 역사이다. 우리는 이곳의 교회들이 과거 연해주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듯, 이후 북한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소망을 품는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라선을 비롯한 함북 동북부 국경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사회주의국가 경제특구에서의 비즈니스선교

이다니엘 (IBA 사무총장)

들어가는 말 : 사회주의 체제 vs 비즈니스 활동

흔히 ‘사회주의 체제’라는 환경과 ‘비즈니스의 창업과 운영’이란 두 요소는 서로 좀처럼 어울릴 수 없는 요소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비즈니스 선교사들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등 아시아권 사회주의국가들에 들어가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비즈니스 활동을 토대로 유무형의 선교적 열매들을 만들어 왔다.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비즈니스의 창업과 운영이 가능한 주요한 배경에는 각 나라들의 경제적 개혁-개방 정책이 있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자국민들의 비즈니스 활동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외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영리 기업 활동을 장려해 왔다. 통치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장경제의 요소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이를 자국의 경쟁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역시, 이전부터 국내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농민시장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전국 곳곳의 대규모 민간시장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이미 무너져 버린 중앙중심의 배급시스템과 계획경제 요소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한 방편으로 시장경제와의 공존을 선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시장경제 정책을 장려하는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적용해 온 반면,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와 묵인 속에 전국 곳곳의 시장경제 행위들을 용인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필요를 채우고 있다. 어쨌든, 북한 정부에서 2002년 7월 1일에 발표한 경제

라선의 거리를 걷고있는 북한 주민들



관리개선조치는 기존의 통치체제 안에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공식제도로 일부 수용했다는 것에 사회주의국가 안에 시장경제 활동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은 1991년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들과 같이, 북한 땅 안에 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국 자본과의 합작 및 직접투자 유치에 나서기 시작한다. 1992년 외국인투자법, 1993년 합작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남한자본의 투자도 허용된다. 2002년 10월에는 개성공업지구, 11월에는 금강산관광특구 등 대외개방지역을 확대한다.

요컨대,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은 최근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존재와 역할을 공식화시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즈니스선교의 기회가 발견된다.

본 글은 2022년 여름에 학술 영역에 등재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사회주의국가 Business As Mission 기업들의 정착 성공요인 연구: 북한선교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에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이를 해설하는 가운데, 향후 한국교회 성도들의 북한선교 사역 가운데 비즈니스선교 측면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에 담긴 총 7개 비즈니스선교 기업 사례들 가운데 최소 두 개 이상의 기업 사례가 북한내지 사례라는 것을 참고하여, 본지의 취지에 맞게 논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한다.

사회주의국가 경제특구에서의 창업을 위한 고려

저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가운데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에서 최소 5년 이상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해 온 비즈니스 선교사(모두 기업 대표 신분)들을 직접 만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국가 비즈니스선교 활동의 정착 성공요인 36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항목들 가운데 대부분은 BAM 기업 대표 7명 중 최소 2-3명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다. 항목들 중 ‘비즈니스 전문성’과 ‘복음에 합당한 삶’, ‘사회주의 환경 속 일터의 가치’ 등은 거의 모든 대표들이 언급하기도 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활동해 온 비즈니스선교 기업들의 정착 성공요인 36가지는 아래와 같다. 저자는 북한내지에서 비즈니스선교 활동을 해 온 기업 대표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감시와 통제는 기본이다. 정부, 지역사회와 이웃, 심지어 기업 대표들이 고용한 현지인 직원들까지 기업 대표(혹은 대표자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현장의 열악한 인프라, 현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태도, 뒷

지속가능한 실제 비즈니스 (10개)	사회주의국가 창업환경 (8개)
(1) 다양한 업종과 상품, 하나의 목적 (2) 비즈니스 전문성 강조 (3) 선교지 기업가로서 필요한 역량 (4) 지속가능성을 위한 BAM 커리큘럼 (5) 비영리적 태도에 대한 배제 (6) 과거 비즈니스 경력의 중요성 (7) 빠르게 적응하고 상황화 하는 능력 (8) 현지인, 현지자원, 현지시장의 활용 (9) 외국인 100% 지분 회사 (10) BAM에 대한 오해-시행착오 극복	(11) 감시와 통제는 기본 (12) 현장의 열악한 인프라 극복 (13) 현지 공무원 문화에 대한 대응 (14) 현지 뒷돈문화에 대한 대응 (15) 이해관계자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유연한 대처 (16) 입소문과 평판의 중요성 (17) 전체주의 정서 속에 현지인들과 하나 되기 (18) BAM사역과 현지장기체류 문제
총체적 변혁의 과정 (10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8개)
(19) 열정을 넘은 지혜로운 선교 (20) 존재 그 자체가 선한 영향력 (21) 일터와 노동의 중요성 (22) 사회주의 체제 속 시장경제 가치 (23) 사람과공동체를우선하는기업문화 (24) 창의적인 재정지원 환경 조성 (25) 과실송금이 아닌 지역사회 재투자 (26) 업계와도시로확산되는실제적변혁 (27) 사회주의세계관을 이겨내는 다양한 방식 (28) 삶으로 그릇된 인식 바로잡아주기	(29) 삶으로 본을 보이는 리더 (30) 온유하고 유연한 성품의 리더 (31)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리더 (32) 복음을전하고제자를세우는리더 (33)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는 리더 (34) 사역공동체로부터보호받는리더 (35) BAM에 관해 이해받는 리더 (36)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리더

돈 요구, 직원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등 역시 모든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해야 했던 부분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업계, 그리고 직원들 안에 사회주의국가 주민들 특유의 전체주의 정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다만, 기업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감시와 통제가 매우 강력한 것이 현실이지만, 3년 혹은 4년 정도 꾸준히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실과 정직을 보여줄 때 정부, 지역사회와 이웃, 현지인 직원들의 경계가 사라지며 어느덧 ‘당신은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손님이나 나그네가 아닌) 우리 중 하나’라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지독한 감시와 통제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들 중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된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실제 비즈니스의 경우, 기업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즈니스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비즈니스 전문성이 없이 북한 사람들 앞에 설 때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으며, 그들보다 탁월한 실력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한다고 했다. 업종과 상품을 선택함에 특별한 기준



이 있진 않았지만, 기업 대표들 모두 “최대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업종과 상품을 선택했다”고 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그런 업종과 상품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대표들의 목적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 ‘삶 그 자체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경우, 적잖은 현지인 직원들이 매우 고집이 세고 강하게 나올 때 “오히려 이를 부드럽게 흡수해 주고 차분하게 대해주는 성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닌, 그들이 강하게 나올 때 온유하고 유연하게 그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상대해 줄 때 그들이 ‘어? 왜 이러지? 이럴 수가 있나?’하며 나중에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었나?” 물어왔다고 했다. 대표들은 최소 5년, 길게는 15년 정도 북한 땅에 머물며 현지인 직원들과 함께 매일 마주하며 비즈니스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보이는 일을 했고, 이것이 실제로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었길래?”라는 질문을 유발했다고 했다.

총체적 변혁의 과정의 경우, 기업 대표들 모두 저마다 다양한 총체적 변혁을 만들어 왔다.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첫 번째는, 현지인 직원들의 변화다. 3-4년을 꾸준히 일터에서 매일 마주하는 동안, 현지인 직원들이 크리스천 기업 대표의 성품을 보고 리더십 스타일을 보고, 라이프스타일을 보는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 재정집행 과정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통해 “기독교인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이웃의 변화다. 온 동네, 온 지역이 이 크리스천 기업 대표(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결국 수년이 지나서는 ‘이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뿐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힘을 합쳐 각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업계 문화의 변화다. 북한 땅 안에는 이미 중국 기업들도 들어와 활동하고, 북한 국영기업들도 활동하며, (장마당 경제가 확산되면서) 공기업의 모자를 쓴 개인기업들도 활동하는데, 위의 모든 기업들이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든지 혹은 자본주의 논리 아래 한 개인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비즈니스 과정을 보이는 것에 반해, 크리스천 기업 대표들은 전혀 다른 태도와 원리로 북한 현지인 직원, 지역사회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북한 사람들 모두가 보게 된다. 모두가 자본, 기술, 문화를 우상으로 삼아 전속력으로 돌진할 때, 크리스천 기업 대표들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이들을 세우고, 일터를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며 직원들 안에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일들을 하자, 북한 내에 있는 다른 비즈니스 개체들도 그들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그들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방

식에 변화를 주는 모습을 취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크리스천 기업 대표들은 각자 자신이 고용한 현지인 직원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직원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직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고 원리/원칙을 몸에 익히게 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를 세워왔다. 매일 일터 현장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민주주의’ 생활 방식, ‘시장경제’ 생활 방식을 살아가도록 돕는 가운데, 나아가 복음 그 자체를 일상의 삶을 통해 실천했다.

심층 인터뷰 : 북한내지 비즈니스선교 사역에 고려할만한 코멘트

저자는 사회주의국가 4개국에서 최소 5년 이상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바탕으로 선교적 열매를 거둬 온 비즈니스선교 대표들 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향후 북한내지 비즈니스선교에 참고할 만한 의미있는 코멘트들을 모을 수 있었다. 전체 7개 기업 대표들 중 3개 기업 대표들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할 예정인데, 이는 향후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들이 나진-선봉에서 창업 및 기업운업을 할 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창익적 접근지역 즉 복음을 말과 글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기에 선교 활동에 있어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요구하는 선교제한국가의 한 부

류이다. 기업 대표 A의 경우, 일터 현장에서의 ‘일상의 삶’을 통해 그가 현지인 직원들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재정집행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직원들과 회사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면 대표와 직원들이 매일 일터에서 마주함을 바탕으로 한 ‘삶 그 자체를 통한 선교’를 수행함이 하나의 선교 방식이 될 것이다. 특히, 무신론과 유물론에 평생 찌들어 살아온 북한 사람들에게는 꽤 오랜 시간 함께 더불어 살면서 보여주는 복음적 삶이 크나큰 선교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현지인들은 이미 어릴 적부터 기독교인

기업 대표 A

“사회주의국가 BAM 사역은 현지인들에게 좋은 일 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보다 평소 우리의 선택들을 주의 깊게 지켜 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 유리창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회주의국가라는 제한된 환경이지만, 이곳에서 일터라는 공간을 만들어 하루하루 주민들과 직접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선교적 기회입니다. 기업가가 자신의 일상을 통해 현지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복음의 세계관으로 조금씩 그곳 현지인들을 회복하며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그 기회가, 바로 BAM 안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국가 한북판에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BAM)”을 이루게 만드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진행되어 온 오랜 교육 탓이다. 심지어 기업 대표 B는 “우리 직원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추종하

기업 대표 B

“현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나쁘다’, ‘기독교인들도 나쁘다’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오해와 편견을 깨는 일입니다. 굳은 땅에 균열이 생기고 깨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요. 이런 굳은 땅을 깨는 데에는 수술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깔리며 현지인들의 삶과 직접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들과 그냥 같이 사는 것 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다만, 일터 속에서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굳은 땅을 깨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짐이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먼저 보고 돈을 두 번째로 볼 줄 아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 일을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고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나쁜 크리스천이요 나쁜 비즈니스 리더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큰 데미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충직한 사람이 비즈니스의 옷을 입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 C

“누구든 비즈니스 전문성이 없으면 여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직접 몇 번 얘기해 보면서 금방 눈치 채요. ‘재는 아무 것도 모르네.’ 그러고 나면 이후에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비즈니스 전문성이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고 권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곳은 외국인들에게 영리 비즈니스와 전문인 사역에 대해 문호를 열어왔습니다. 비즈니스든 학교든 병원이든 교육이든 우리가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와 일을 할 때, 현지인들은 일단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생겨요.”

“지역 공무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다른 회사들보다 대표님 회사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많으면 많은 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잘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임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버텨내고 있는 그 과정들을 다 보며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는 이들로 알고 있는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라고 묻는 것을 보며 내심 ‘아, 이들이 기독교 교리를 모르지 않는구나’ 생각하며 놀랐다고 했다. 이러한 강력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것은 오랜 시간 함께 머물며 오랜 시간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밖에 없다. 만약 크리스천 기업 대표라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그가 돈밖에 모르고 사람을 착취하며 사기를 치는 악덕 기업주라고 한다면, 그는 말로는 “예수 믿으라. 그래야 복받는다”고 직원들에게 떠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직원들로 하여금 시험이 들게 하고 오히려 더욱 예수와 멀어지게 만들지 모른다. 북한선교를 추구하는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고할 만한 코멘트다.

기업 대표 C의 경우, 사회주의국가에서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하며 많은 부침을 겪었다. 기업 외적으로는 정부와 법-제도가 도와주지 않았고 기업 내적으로는 현지인 직원들이 그의 기

업 활동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그는 꽤 긴 시간 묵묵히 인내하며 ‘복음을 아는 자’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이끌어 왔고, 특히 직원들을 깊이 품고 사랑해 왔다. 그 모습을 오래 봐 온 지역 공무원이 어느 날 다가와 그에게 위와 같이 고백한 것이다. 지역 공무원은 “아니, 우리 동족들도 이 나

라가 살기 힘들다고 탈북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길래 여기서 이렇게 버티며 우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기업 대표 C는 “우리가 오랜 시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줄 때, 어느 시간대에는 현지인들이 가까이 다가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을 본다”고 했다.



라선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나가는 말 : 혼돈의 땅 한북판에서 복음을 살다

사회주의국가 한북판에서 나홀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복음을 아는 이는 나 한 명뿐. 바로 그 황량하고 황폐한 땅 위에 일터를 만들어 현지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그곳의 법-제도 그리고 문화와 습관을 존중하며 내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는 건 정말 고난도의 일이다. 나아가, 치열하고 또 치열한 비즈니스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표현해 낼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과제이다. 누가 봐도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이 없다.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을 써 내려가며 특히 북한내지 비즈니스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매번 “이 어려운 것을 해 낸 사람들이 있구나”하며 놀랐다. 복음의 힘이 실로 강력하다는 것을 체감한 순간이었다. 복음이 크리스천 기업인 한명에게 역사하여 그를 사회주의국가 한북판으로 이끌고, 그로 하여금 그곳에 일터 현장을 만들어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BAM)”을 이루게 만드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확실히,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적잖은 한국교회 통일 컨퍼런스에 가면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북한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야심차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개인적으로 이 비전에 동의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인 목표일 뿐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로 많다. 특히, 비즈니스선교 영역에는 통일 이전에도 통일의 과도기에도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할 일이 많다. 바로 기업 활동을 통해 북한 현지인들과 일터 한북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고, 일터 현장 속에서 삶 그 자체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표현해 내는 일이다. 정말이지, 유물론과 무신론이 팽배한 사회주의국가 그 혼돈의 땅 한북판에서,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일터 현장은 물론이요 우리의 일터를 넘어선 많은 영역들에 실제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생생하고도 역동적인 변혁.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이 통일한국 비전 안에서 매순간 실제적인 열매들을 만들어내길 기도한다. 🙏

해방 직후 북한의 동아기독교(침례교)

안희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 기획처장
한국로잔위원회 중앙위원

북한 동아기독교(침례교)는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 1865-1935)에 의해 세워졌다. 펜윅은 1889년 12월에 내한한 후 46년간 200개 교회를 개척하였고, 해방 때까지 250개 교회로 성장하였다.¹⁾ 1945년 해방 때까지 동아기독교의 교세를 살펴보면 북한 동아기독교가 60개, 남한 동아기독교가 40개, 재만 동아기독교가 100개, 재러 동아기독교가 47개, 내몽고가 3개로 분포되었는데, 북한·재만·재러 동아기독교가 210개로 84%를 차지하였고, 남한 동아기독교가 40개로 16%를 차지할 만큼 펜윅은 북방선교에 집중하였다.²⁾ 북한 동아기독교는 해방 때까지 원산에 총부(總部)가 있었고, 60개 교회가 7개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동강서약’(東強西弱)의 지역별 교세로 함경남북도에 75%(약 45개)가 집중되었고, 평안남북도에는 25%(약 15개)를 차지하였다.³⁾ 본고(本稿)에서는 해방 직후 북한의 동아기독교를 살펴 볼 것이다.

해방 직후 북한 동아기독교의 상황

1945년 해방은 한민족의 큰 기쁨이요 축복이었다. 해방에 필요한 참혹한 댓가는 국가, 학교, 그리고 교회가 지불해야만 했다. 북한 동아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였

다. 해방은 오히려 동아기독교에게는 불행과 고난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동아기독교의 교세를 보면 84%가 북한·만주·러시아(시베리아)에 집중적으로 세워졌는데 이 지역이 공산화가 되자마자 동아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북한의 동아기독교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화란 ‘외부’ 악재는 60년간 성장해온 북한 동아기독교를 아예 말살시켜 버렸다. 해방 직전 시베리아에 세워진 재러 동아기독교(47개 교회)를 살펴보면 연추(크라스키노) 구역에 16개 교회, 수청(파르티잔스크) 구역에 18개 교회,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구역에 5개 교회, 도비허(아누치노) 구역에 5개 교회가 있었는데 소련이 공산화되자 이들 교인들은 나진과 웅기로 피신하였다.⁴⁾ 또한 중국이 공산화 되자 재만 동아기독교(100개 교회)의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월남해서 대개 나진과 웅기에 피신하였다. 당시 재만 기독교에는 (1)간도구역→(2)훈춘구역→(3)왕청구역→(4)북만구역 순으로 교세가 형성되었다.⁵⁾ 해방 직후 나진과 웅기는 시베리아와 만주로부터 피신한 동아기독교 교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잠깐 성장했지만 북한의 공산화로 오래가지 못했다.

둘째로 동아기독교의 교단해체령(1944년)이란 ‘내부’ 악재는 해방 직후 북한교회의 재건을 막아버렸다. 교단해체령은 동아기독교로 하여금 두 가지를 앗아갔는데 첫 번째는 ‘돈과 자산’이었다. 해방을 약 1년을 남기고 동아기독교는 치안유지



초기 한국침례교회 지역별 분포 현황(1889-1945)

1) 안희열, 「시대를 앞서 간 선교사 말콤 펜윅」, 개정증보판 3쇄·특별판 (대전: 하기서원, 2019), 43, 74.
2) 안희열, “Malcolm C. Fenwick의 울릉도 선교에 관한 평가,” 『복음과 실천』 66 (2020 12월): 108.
3) 북한 동아기독교(침례교)가 ‘동강서약’(東強西弱)의 지역별 교세를 갖게 된 것은 선교지 분할 협정(Comity Arrangement)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장로교의 경우 서쪽(평안남북도·황해도)이 90%를, 동쪽이 10%를 차지하였고, 감리교의 경우 서쪽이 95%, 동쪽이 15%를 차지하였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서, 1999), 344-4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603-604.

4) 재러 동아기독교의 교회 분포도(1889-1949)를 보기 위해서는 안희열, “Malcolm C. Fenwick의 북방선교에 관한 연구: 북한, 만주,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64 (2019년 9월): 120을 보라.
5) 재만 동아기독교의 교회 분포도(1889-1949)를 보기 위해서는 위의 논문 112를 참조하라.

법 위반죄로 인하여 1944년 5월 10일에 교단해체령을 당하였다.⁶⁾ 그 결과 동아기독교는 집회가 금지되고, 예배당은 매각되고, 교회 건물과 땅은 국방헌금이란 명분으로 강제 몰수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동아기독교는 해방 이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돈과 자산이 없었다. 두 번째는 ‘사람’이었다. 교단해체령을 당하기 2년 전 교단 지도자 32명이 원산사건(1942년)으로 구속되어 영어생활(圉圉生活)을 보내는 도중 전치규 목사는 옥중 순교하였고, 나머지 지도자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심한 구타와 고문을 겪어야만 했다.⁷⁾ 해방 후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오랜 감옥 생활에 따른 질병과 출옥 후 가난은 북한의 동아기독교를 다시 일으킬 수 없었다.

1946년은 북한의 동아기독교가 휴면 상태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1946년 3월 20일부터 1947년 10월 21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진행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미소가 개최한 회의였지만 성과 없이 종결됨으로 북한 동아기독교는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김영관 목사는 1946년 10월 경에 원산에서 나진으로 이주하였고, 박형순 목사도 만주에서 나진으로 이주하였고, 이종근 목사는 만주에서 함경북도 종성으로 이주하였고, 최성업 목사는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주하였고, 최현 교사는 동관진교회로 이주하여 교회 재건의 기초를 닦았다.⁸⁾ 무엇보다 1946년은 해방 후 북한의 동아기독교의 중심축이 원산에서 나진으로 이동하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1947년은 북한 동아기독교가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을 직시한 후 흩어진 교회를 수습하고 교회 재건에 착수하였다. 그래서 북한 동아기독교는 단독으로 제1회 총회를 나진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용어도 변경하여 그동안 사용했던 대화회는 총회로, 감목은 총회장으로, 임원은 부장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임원 선출을 하였다. 1대 총회장에는 이종근 목사가, 부회장에는 박형순 목사가, 고문에는 김영관 목사가 선출되었다.⁹⁾ 총회 당시 자성구역의 방사현 목사가 참석치 못하자 박형순 부회장이 자성구역으로 파송 받아 부흥동교회에서 방사현 목사를 만나 순방하였다. 북한 동아기독교는 종전처럼 각 구역으로 나뉘어 감노와 교사들이 구역 순찰을 맡았지만 남한 동아기독교보다는 훨씬 열악하였다.

1948년은 제2회 총회가 나진교회에서 역시 개최되었다. 총회장은 최성업 목사가, 부회장은 박형순 목사가, 고문은 이종근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 때도 자성구역의 방사현 목사가 참석치 못하자 이봉래 전도사를 자성구역, 후창구역, 삼수구역까

지 파송시켜 순화하도록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공산당의 교회 탄압이 시작되어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왜냐하면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조선노동당 중앙 방침에 따라 총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동아기독교는 사라지고 말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후 북한 공산당은 교회의 박멸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 북한의 동아기독교는 눈에 안 띄게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월남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북한 동아기독교는 약 60년의 역사를 품고 영원히 사라졌다.

해방 후 북한 동아기독교의 지도자, 김영관 목사

북한 동아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라면 당연히 김영관(金榮官, 1896~1991) 목사이다. 해방 후 동아기독교의 지도자들 중 90% 이상이 월남하여 피신하였지만 끝까지 북한에 남아 북한 동아기독교를 재건하기 위해 몸부림 친 사람이 김영관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함경북도 종성 출신으로 김영국(1884~1932), 김영진(1887~1932), 김영익(1890~1970)의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¹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영관 목사는 형들과 함께 ‘전도인 4형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쓴 자였다. 김영관 목사는 1934년 38세의 약관의 나이에 제4대 감목(총회장)으로 추대되어, 5년간 감목직을 수행하였는데 젊은 나이에 ‘가장 힘든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고, 성공리에 직임을 완수하였다.¹¹⁾

김영관 목사가 감목직을 수행할 때에 세 가지가 그를 힘들게 했다. 첫째로 두 형인 김영진 목사와 김영국 감노가 감목 수행 2년 전인 1932년에 만주 종성동교회에서 순교하였고,¹²⁾ 둘째로 영적 아버지인 펜워 선교사가 감목을 맡은 지 1년만인 1935년에 생을 마감하였고, 셋째로 일본이 전시체제에 돌입하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시작되었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김영관 목사는 대내외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에 감목을 맡게 되었다.

무엇보다 김영관 목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면 일제에 대한 항일운동(抗日運



김영관 목사(왼쪽 검은옷)와 전치규 목사(오른쪽 흰옷)

6)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서울: 성청사, 1964), 68-69.

7) 위의 책, 64-69.

8)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77;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341;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4), 154-55.

9)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77-78;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341-42.

10) 김갑수, 「한국침례교 인물사」 (서울: 요단출판사, 2007), 85.

11)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276.

12)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49-50;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240-42;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99-101.

動)을 교단적으로 전개했다는 점이다. 김영관 목사는 신사참배와 황궁요배(皇宮遙拜)에 저항하는 사람이었고,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민족말살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김영관 감목은 1935년 10월 5일에 교단의 월간 신문인 「달편지」를 통해서 일제의 신사참배와 황궁요배의 강요에 불복할 것을 동아기독교 전체 교회에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어떤 구역에는 관청 당국에서 황제에게 요배를 하라고 시켰사오나 그것에 대하여 결코 응할수 없는 것은 가령 황제님 앞에서 절한다는 것은 옳지만 멀리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절하는 것은 헛된 절이며, 곧 절반은 우상의 의미를 가졌으니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못할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황제께 불경한 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믿는 사람이 복음을 어기고 황제께 공경한다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복음을 어기고 자기를 공경하라고 명하실 황제님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경죄라고 책임을 지운다면 그 은혜 베푸시는 대로 핑계 없이 감당하기를 원하며...¹³⁾

김영관 감목이 발송한 「달편지」는 동아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신사참배에 거부하는 운동에 동참케하여 범 교단적으로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과 황국요배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김영관 감목이 발송한 「달편지」가 함경북도 웅기(선봉)교회에서 발각되어 김영관 감목을 비롯해 동아기독교의 핵심 지도자인 백남조 목사, 이종덕 목사, 전치규 목사, 노재천 목사 5명은 체포되어 5개월 간 원산형무소에서 영어생활(圜圖生活)을 보내야 했다.¹⁴⁾ 이처럼 김영관 목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신사참배 강요에 당당히 맞서는 지도자였고, 그 결과 동아기독교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 마침내 1944년 5월 10일에 교단해체령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날은 아픔과 고통의 흔적의 날이 아니라 동아기독교(침례교)의 신사참배 거부 기념일이 되었다.¹⁵⁾

해방 후 김영관 목사의 사망에 관해 여러설이 있다. 첫째로 자연사설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다. 남병두에 의하면 김영관 목사는 1991년에 자기 고향인 함경북도 웅기군 서수라리에서 자연사했다. 남병두는 김영국의 증손녀인 김순화(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가 보관하고 있던 북한에서 찍은 김영관 목사의 가

족사진을 보면 매우 연로한 모습을 근거로 자연사를 주장하고 있다.¹⁶⁾ 김영관 목사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둘째로 지병설이다. 김영관 목사가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인데 신빙성이 없다.¹⁷⁾ 셋째로 아사설이다. 김영관 목사가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아사(餓死)했다는 것인데 신빙성이 약하다.¹⁸⁾ 넷째로 순교설이다. 김영관 목사가 북한 공산당에 의해 순교했다는 것인데 역시 신빙성이 없다.¹⁹⁾ 김영관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처럼 95세의 일기로 자연사했지만 교단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항거운동(抗拒運動)을 확산시킨 고귀한 지도자였다.

현재 북한 동아기독교의 흔적

현재 북한 동아기독교의 흔적을 찾다보면 용정(龍井) 종성동교회이다. 종성동교회는 1932년에 종성동교회 살인사건으로 김영관 목사의 두 형인 김영진 목사와 김영국 감노가 순교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동아기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종성동교회는 1913년에 개척되어 60가구 중 45가구가 교회에 출석하였고, 교인 숫자가 130명에 이를 만큼 부흥하여 만주지역의 선교기지로 우뚝 서 있었다.²⁰⁾

무엇보다 1917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12회 대화회(총회)가 종성동교회에서 개최될 정도로 교회 부흥이 왕성했다. 이처럼 종성동교회는 해외에서 열린 최초의 대화회 장소로서 북방선교를 확산시키는 요람이 되었다.²¹⁾

하지만 1932년 10월에 알 수 없는 무장인들에 의해 김영진 목사와 김영국 감노가 총에 맞고 칼에 찔려 과다출혈(過多出血)로 사망하였다.²²⁾ 동생인 김영진 목사는 당일 저녁에 순교하였고, 형인 김영국 감노는 그 다음날 순교하면서 “절대

16) 남병두, “동아기독교의 만주선교와 종성동교회의 역사적 의의,” 「한국침례교회와 역사: 회고와 성찰」, 허긴 박사 은퇴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124.

17) 심선생, 「중국어변 침례교회사」 (출판지 불명: 출판사 불명, 2013), 19.

18)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편, 「말콤 펜윅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9년 4월 22일, 11.

19)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70.

20) 안희열, “Malcolm C. Fenwick의 북방선교에 관한 연구,” 110.

21)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177.

22)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49;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240-41;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99-100. 김영진 목사와 김영국 감노의 순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설이 있다: (1) 공산당 살해설, (2) 마적단설, (3) 일제의 무장자위단설. 종전까지 1번과 2번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최근에 3번이 크게 지지를 받고 있다.

13)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280-81에서 재인용.

14) 위의 책, 282.

15) 현재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에서는 매년 5월 10일을 신사참배 거부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종성동교회의 현재 모습

도사가 2010년 사망할 때까지 종성동교회를 이끌다가 2023년 현재는 그의 부인 김명신 전도사가 종성동교회를 맡아 운영하고 있어서 북한 동아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²³⁾ 이후 종성동교회는 중국의 공산화이후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83년에 김종권(김영익의 손자)과 김종범(김영진의 손자)이 종성동교회를 떠난 이후 조양길(김영국의 외손자)과 김종현(김영국의 손자)이 종성동교회를 맡아 운영하였다.²⁴⁾ 이후 1986년에 조양길 목사마저 떠난 이후 김종현 전

참고자료

1. 단행본

김갑수. 「한국침례교 인물사」. 서울: 요단출판사, 2007.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서울: 성청사, 1964.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편. 「말콤 펜윅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9년 4월 22일.

남병두. “동아기독교의 만주선교와 종성동교회의 역사적 의의.” 「한국침례교회와 역사: 회고와 성찰」. 허진 박사 은퇴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편, 99-129.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심선생. 「중국연변 침례교회사」. 출판지 불명: 출판사 불명, 2013.

안희열. 「시대를 앞서 간 선교사 말콤 펜윅」. 개정증보판 3쇄·특별판. 대전: 하기서원, 2019.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2. 정기간행물

안희열. “Malcolm C. Fenwick의 북방선교에 관한 연구: 북한, 만주,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64 (2019년 9월): 91-124.

_____. “Malcolm C. Fenwick의 울릉도 선교에 관한 평가.” 「복음과 실천」 66 (2020 12월): 97-129.

앞으로의 과제

해방 후 북한 동아기독교는 북한·중국·러시아(시베리아)가 공산화되면서 60년간 쌓아 올린 고귀한 영적 유산의 흔적을 모두 빼앗겨 버렸다. 무엇보다 북한 동아기독교는 원산을 총부로 삼고 일제의 신사참배에 항거하는 항일운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였다.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북한 동아기독교가 지녔던 고귀한 영적 유산을 계승해서 후대에 이어가길 바라며, 나아가 해방 후 북한 동아기독교의 정신이 남아 있는 용정 종성동교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 ☹️

23)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말콤 펜윅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 11.

24) 남병두, “동아기독교의 만주선교와 종성동교회의 역사적 의의,” 125.

조선장로교의 연해주 선교와 첫 선교사 최관홀(崔寬屹)¹⁾

정호상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선교사 1992-2021사역, 경남노회 공로목사)

들어가며

1998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에 발효된 새 종교법은 지금까지 법인으로 등록된 모든 종교 단체에 재등록을 요구했다. 그 중에서 가장 선교사들을 곤란하게 한 것은 선교사들이 이끌고 있는 각 교회가 15년 이상 그 지방에서 존속했다는 지방정부의 확인서를 첨부하라는 것이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로 독립을 하고 외국 선교사를 받아 들이기 시작한 것이 1989년이요 필자가 사역하던 블라디보스톡은 92년부터 개방되었으므로 블라디보스톡에 가장 먼저온 선교사라고 해도 1992년 보다 빠를 수 없었다. 러시아 정부의 1983년 이전의 존재 근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개방 이후에 등록한 종교 단체 -주로 외국 선교사 주도로 설립된 종교 단체-는 불법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도입된 법이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극동의 선교사들이 설립한 교회들은 종교 단체로 등록할 수 없어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 필자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블라디보스톡 정부 자료실에 보관된 1910년대와 20년대에 식민지 조선에서 파송된 장로회 선교사들의 기록을 발견했다. 그들을 파송한 조선 장로회는 바로 우리가 속한 교단이었고 그 중심에는 최관홀이 있었다. 결국 1910년대와 20년대에 세워진 조선장로교 교회들의 자료들이 근거가 되어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 제2회 졸업사진

1) 근래의 문헌 등을 보면 최관홀 목사 이름의 마지막 자를 “홀”로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의 이름은 최관屹(崔寬屹)이다.

개혁한 교회들은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1910~20년대 연해주에는 필자가 속한 장로교 뿐 아니라 침례교의 모체가 되는 동아기독교, 성결교의 모체가 되는 동양선교회의 선교사들도 진출하여 교회를 개척 했고, 러시아 극동 문서 수장고에 기록이 남아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교단 선교사들은 과거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기록의 덕을 볼 수 있었다. 필자는 1990년대 말 교회등록을 위해 러시아 정부의 문서 수장고를 뒤져 얻은 자료들을 통해 1910년대와 1920년대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의 선교 상황과 그 중심에 있었던 최관흠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장로교 초기 연해주선교

1) 선교지 연해주와 선교 대상으로서의 한인 이주민 상황

연해주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위치하고 두만강 하류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가 만나는 지역부터 북으로는 하바롭스크 주, 동으로는 태평양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와는 두만강 하류와 동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데, 러시아 말로는 바다에 붙은 지역이란 뜻으로 ‘쁘리모리츠키끄라이(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연해주)’라고 부른다.

이 지역에 한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연해주 개발 초기인 1863년부터인데,²⁾ 1869년에 조선에 흉년이 들어 6천명 이상이 대량으로 이주하였고 1880년대에는 이미 8,768명에 이르게 되었다. 1894년에서 1897년 사이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해도 12,278명이 되고, 당시 25,868명의 한인들이 연해주에 거주했다고 한다. 1911년 러시아 극동정부의 인구 조사에서 나타난 한인의 숫자는 58,636명인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7,188명이고, 조선 국적자이면서 러시아에 거주할 허가를 얻은 사람이 41,447명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러시아 문서에서도 의미가 없는 숫자로 밝혀졌는데, 러시아 국회에 제출된 문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연해주에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거나 러시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등록자 숫자가 41,447명이고, 실제 살고 있는 한인의 숫자는 러시아 당국도 정확한 추산을 하지 못하고 단지 십만 명까지 혹은 십만 명 정도’라

고 추산할 뿐이었다.³⁾

러시아 자료에 나타난 한인들의 생활을 보면, 개중에는 금광이나 탄광에서 일하기도 하고, 농사에 관련된 관리로 진출하기도 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다. 러시아 극동정부의 민정청은 조선인을 러시아인 이주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청객으로 보았다. 만약 이웃 나라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한인들이 러시아에 적대 세력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한인이 농토를 임대하는 것이 어렵고, 설혹 국가 공공 기관에 진출한다 해도 그 길이 막혔고, 더구나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다.⁴⁾

당시의 상황을 예수교 장로회 제 3회(1909년) 회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지금 해삼위(블라디보스톡) 형편이온즉 고국 강산을 리별하고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나그네로 불상히 죽어가는 생명이 오십만 명이오니 이곳에 선교사 한사람을 급히 택송해야 오십만 명 생명을 구원케 하기를 청원이오며”⁵⁾

여기서 오십만 명이라는 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나 십만 명 이상 많은 한인들이 연해주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다.⁶⁾ 이들의 형편을 보자면 1884년 이전 러시아에 들어 온 사람은 많은 경우 러시아 공민이 되었고, 넓은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아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반면 그 이후 1900년 전후로 러시아에 넘어 온 사람들은 대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사람들로 러시아 공민으로 흡수되기를 망설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의 이주민 중 함경도 지방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로 장로회 독노회의 함경시찰을 중심으로 시베리아 지방의 선교를 이끌게 되었다.⁷⁾ 아직 총회가 결성되기 전이었으므로 독노회에서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유리하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전도 국장 길선주 목사가 보고하였고, 노회는 최관흠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결의한다.

당스위원장리눌서씨가보고흠이여좌하니.....최관흠씨는히삼위에션 도스로파송허며함경디리원으로참여게홀일..... 회장이무르시미회중이치용

2) А.И.Петров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19 века’(뽀뜨롭,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국 디아스포라 19세기 60~90년대’) (Владивосток, 2000), 48. 블라디보스톡의 뽀뜨롭 교수는 1863년 11월 23일의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한인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의 개항이 1860년이므로 공식적인 보고서에 63년부터 나타난다고 이 때부터 한인의 이주 시점을 잡기보다는 그 이전부터(연해주가 러시아에 의해 개발되기 전부터) 한인들이 두만강을 건너왔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1861년의 이민법은 블라디보스톡을 건립하면서 인력 수급을위해 한인들의 러시아 이민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1864년 동시베리아 군 사령관 지사인 고르사코프(М.С.Корсаков, 1861-71)는 1864년 11월 26일자 지시에서 한인들을 보호하고 정착에 필요한 식료품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이미 상당한 수의 한인들이 러시아 영 내에 있었고 그 한인들이 가난하였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3) РГИА ДВ, Ф.702, ОП.3, Д.443, Л.22(1914년 국회에 제출된 문서).

4) РГИА ДВ, Ф.702, ОП.3, Д.443, Л.22(1914년 1월 4일 국회에 제출된 문서).

5) 예수교 장로회 대한 노회 대삼회(1909년)회록 13,18,19쪽.

6) А.И. Петров, 같은 책. 45쪽, 1909년 연해주에 사는 한인이 38955명, 1910년에 41185명, 1911년에 45240명 있었다. РГИА ДВ, Ф.1284, ОП.185, Д.23, Л.218.

7) 함경 시찰에서는 1907년부터 시베리아 선교를 하자고 현의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최관흠을 선교사로 1909년 시베리아(블라디보스톡; 해삼 혹은 해삼위)에 파송하였고, 총회가 연해주 선교를 포기한 1912년 이후에도 여러번 블라디보스톡으로 선교사를 보내자는 현의를 하였다.

히기를동의히야가로결명하다.⁸⁾

2. 장로교 선교사 최관흠

1) 파송과 사역의 시작

최관흠은 1909년 9월에 파송받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여, 먼저 장로 교회 교인 60명의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11월 5일자로 연해주 주지사에게 청원서를 쓴다.

나는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정교회 신자가 아닌 한인을 상대로 장로 교회를 조직하고, 조선말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 왔습니다. 위에 기술한 대로, 각하, 제발 블라디보스톡에 장로 교회를 조직하여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일요일과 수요일 두 번 한인촌의 한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⁹⁾

이 청원서에서 최관흠은 자신을 분명히 장로 교회 목사로 나타내면서 한인을 상대로 전도할 것임을 밝히고, 장로 교회를 조직하여 예배를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했다. 또 이 청원서에서 나타난 대로 최관흠은 러시아에서 선교하지만 한인을 상대로 조선말로 선교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최관흠 목사의 신청에 대해 블라디보스톡 종교 감독국은 다음과 같이 아주 매몰찬 거절을 했다.

블라디보스톡 종교 감독국은..... 목사 최관흠 씨의 요청을 반대하는데,.....블라디보스톡 장로 교회의 최관흠 목사는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한인들에게 장로교 교리를 선전하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만을 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이것이 그가 이곳에 있을 법적인 권리나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한인 최관흠에게 블라디보스톡 시는 물론이고 연해주에서 장로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한인촌에서 교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진언합니다. 정교회가 아닌 전도자들은 러시아 정교회 영토에서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바로 한인 중에서 일본인이나 중국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곳에서 자기들의 신조를 널리 전파할 것이고, 한인

최관흠은 쉽게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는 자기 나라 조선에 있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설교자(개신교)들이 러시아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¹⁰⁾

이 종교 감독국의 문서는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도자가 러시아 영토에서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며, 자기 나라 조선에 있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여 추방하라고 제언하고 있다. 최관흠은 사역에서 어려움이 많아 정부의 허락을 얻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라 선교하려고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오히려 더 큰 장애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청원서는 모스크바로 다시 보내져서 1910년 2월 9일 내무성의 회답을 받게 된다.

조선인 장로교 최관흠 씨의 한인 촌에 장로교 모임을 허락해 달라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관흠의 조직하려는 것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하려는 기도 모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킨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 경찰서에 기도 모임을 위한 장소나 시간을 미리 알린다면 가능합니다. 경찰은 예배시간에 러시아 형법에 금지된 것이 진행되지 않고 정교회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또 법적으로 허락된 다른 종교를 비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재판으로 죄를 정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¹¹⁾

추방을 면한 최관흠은 블라디보스톡 뿐만 아니라 연해주와 만주 지역에서도 순회 부흥회를 인도하며 교회를 조직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한글 신문인 대동 공보는 1910년 5월 26일자 신문에서 “당지청년회국민회 및 부인회에서 성대한 연회를 설하고 최씨를 환영하였으며 또 새로 예수께 도리를 깨달은 동포가 40여명에 달하였더라”고 했다. 또 이 신문은 최목사의 활동이 비단 블라디보스톡에 국한되지 않고 하얼빈과 화발포(하바롭스크), 이만(현재 연해주의 한 도시: 스파스크 지역) 등으로 다니며 일반 동포를 심방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최관흠 목사의 활동 결과를 평안북도 선천에서 열린 조선국 노회 제 4회 개회 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해삼위(블라디보스톡)와 슈청(빨찌산스크)과 소왕령(우수리스크)과 하바

8)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데삼회회록 13쪽.

9) РГИА ДВ, Ф.1, ОП.2, Д.2020 Л.1(1909년 11월 6일, 최관흠의 장로교회 설립 청원서), 7717호 제 1부 2과 1909년 11월 6일 접수함.

10) РГИА ДВ, Ф.1, ОП.2, Д.2020 Л.3-306(1909년 12월 23일, 블라디보스톡 종교 감독국의 답변), 1909년 12월 23일 1과 10966호 블라디보스톡 시.

11) РГИА ДВ, Ф.1, ОП.2, Д.2020 Л.6-606, (1910년 2월 9일, 모스크바 내무성의 답변)

루게(하바롭스크)와 합이빈(하얼빈) 등지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남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형제도 많고 교회가 성립될 뿐아니라 일반 교인의 믿음이 흥케되었다.¹²⁾

이 보고를 들은 후 전도 국장 길선주씨와 평북 대리회 위원 양전백씨가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경비가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일반 회석에서 연보하기를 자원하여 신화 500환 이상을 연보하며 기뻐하고 감사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화 500환을 연보했다는 것인데, 이 연보 액수는 1년 선교비 930원의 2/3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당시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이며, 4등 문관인 소모프(Сомов)의 외교 보고서에 의하면 최관흠의 활동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조선인 목사 최관흠은 이미 지난 해에 블라디보스톡에 다녀 온 적이 있으며, 매우 성공적으로 활동했었다. 진지하게 준비를 했으며, 여느 조선인처럼, 타고난 달변가였던 최관흠 목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400명의 한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¹³⁾

1911년은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서도 무척 힘든 한해였다. 블라디보스톡 시가 확장되면서 시외곽에 형성되어 있던 조선 거류민들의 한인촌이 도심에 놓이게 되었고, 도시 계획에 따라 블라디보스톡 시 당국은 한인촌을 2Km 외곽으로 강제 이주 시켰다. 강제 이주된 새로운 한인촌은 ‘개척리’ 또는 ‘신한촌’이라 불리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었다. 당시 노회에 보고된 시베리아 지방(현, 연해주 지방)의 교회 형편은 예배당이 2곳, 예배 처소는 13곳, 교인이 764명, 연보가 902원 29전이라고 보고하였다.¹⁴⁾ 그리고 러시아 측의 자료는 한인 성도 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데, “블라디보스톡에 300명,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 100명, 하르빈(하얼빈)에 200명, 그 외 시골 마을에서 200명 총 합이 800명”이었다.¹⁵⁾ 정교회 대주교는 종교적인 영향력으로는 장로 교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위축시킬 힘이 없음을 개탄하면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경찰의 도움으로 장로교회의 활동을 막아보려 시도하였다. 대주교는 뿌리아무르주 지사

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무엇보다도 장로교는 자라고 있고 든든히 서가는데, 오래되면 될 수록 이들과 전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로 하여금 각하께 간절한 청원을 하오니, 장로교가 퍼지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미 정교회를 받아들인 한인이나, 아직까지 이방인인 한인을 장로교 선전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로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절대로 러시아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한인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¹⁶⁾

이러한 대주교의 편지에 대하여 뿌리 아무르주 군무 지사 마나킨(Манакин)은 즉각적인 답을 하면서 “대주교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장로교 설교자들을 추방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장로교 교인이라고 해도 러시아 공민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대신, 설교자들을 잘 막으면 된다면, “장로교 설교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이유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한인 선교사들을 추방하려고 하였다. 이런 문서들이 오고 가던 1911년 11월 17일 최관흠은 러시아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비밀문서

뿌리아무르 군무 지사 각하께

내부무 군무 지사 연해주 지방 정부 4국 2과 1911년 12월 9일 제 177/4호 블라디보스톡 시 블라디보스톡과 캄차트카 대주교 엡세뵤이에게 보낸 저의 답장 117/4호의 복사본인 올해 11월 7일 자에 보낸 저의 비밀 보고서 114/4호의 보충입니다. 우수리스크 철도 헌병대 경찰서장의 보고 11월 17일 자, 2002호에 의거하여 보고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장로교 한국인 교리 문답사 최관흠이 나타나 자신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동안에 한국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인인 수비대 병사들과 다른 사람들도 참여했던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헌병대 대장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에서 러시아 정교회의 믿음을 비난했고 청중들에게 장로교회로 넘어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설교자의 진술은 연해주의 다른 지역- 심지어 국경 초소라고 해도- 에서도 자신의 설교를 계속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1908년 6월 29일 자 황제께서 서명하신 내각의 명령에 명시된 대

12) 예수교 장로회 조선국 노회 제 4회 회록(1910년 9월 18일, 평안북도 선천, 개회 예배), 1쪽.

13) Сомов А.С.,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493, Д.38, Л.37-40(소모프 주한 총영사의 보고서, 1910년 10월 8일).

14) 예수교 장로회 조선국 노회 제 5회(1911년) 회록 27쪽, 전도국 보고.

15) РГИА ДВ, Ф.702, ОП.3, Д.443, Л.22об.(1914년, 국회에 제출된 문서).

16) РГИА ДВ, Ф.702, ОП.3, Д.238, Л.117, 117об.(1911년 10월 19일, 대주교 엡세뵤이의 편지).

로 위에 서술한 한인 최관흠은 해약을 끼치는 외국인이기예, 지방 정부의 명령으로 조선 영토로 추방합니다.

군무 지사 육군 소장.¹⁷⁾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장로회총회에서는 해삼위(블라디보스톡) 전도를 포기하고, 최목사의 시무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한다.

히삼위(海蔘威)전도는세부득이하와당지(停止)이옵고최관흠목사의사무도고만두웠스오며최관흠목사의사무를고만둘때의특별히三百원을주었스오며 히삼항교회(敎會)에서는지금은전과갓치례배(禮拜)본다는소식(消息)이잇스오며¹⁸⁾

최관흠은 1911년 12월에 러시아 관원에게 잡혔고, 그 다음해 1912년 9월부터는 조선 장로교 총회가 러시아 선교를 중지함으로 최관흠과 총회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 마침내 1912년 12월 30일 최관흠은 러시아 정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1916년 9월 6일 장로교회 총회에서 함경노회가 “히삼위에일보던최관흠목사는면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 최관흠에게 다시 장로교회로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돌아오지 않자, 함경노회는 최관흠을 목사 면직시킨 것이다. 이것은 선교부나 총회는 선교 현장의 사정에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러시아 정교회로 넘어간 최관흠

최관흠이 정교회로 넘어간 것은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정교회 기관지 “블라디보스톡 정교회 주교구 통보지”는 머릿기사로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12월 30일 주일 주교(이르히빠스티리)는 빠끄롭스키 교회(신한촌과 가장 가까운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다. 예배 전에 이 지역에 사는 한

인 중 장로교 수장인, 인노켄찌라 개명을 한 최씨가 정교회에 가입했다. 미국 장로 교회 장로(목사)인 최씨는 미국 장로 교회의 대단한 사역자인데, 조선에서 우리 주(연해주)에서 살고 있는 한인 사이에서 장로교 교리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었다. 그의 설교의 결과로 주에는 많은 장로교 단체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최씨는 젊고, 활동적인 정교회 요리 문답가이며 현재 선교사 성직자인 오가이 바실리를 만났다.

그들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최 장로는 종교적인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고, 성 부활절에 정교회 예배를 참석하여 큰 감화를 받아 정교회로 넘어 왔고 자신의 모든 지난 활동들과 관계를 끊기로 하였다. 정교회 가입 예식은 지극히 거룩하신 주교 빠벨이 집례했다. 주교는 그에게 질문을 하고, 최씨는 러시아 말을 거의 할 수 없어 소정의 기도를 조선말로 하게 했다.¹⁹⁾

이 기사에서 최관흠 선교사가 러시아 정교회에 발을 디딘 것은 1912년 봄의 부활절이었고 정교회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 것은 1912년 12월 30일 주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로 최관흠은 정교회의 교리문답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그의 사역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가 사용한 교리문답지는 정교회의 신학을 담기 보다는 장로교회의 요리문답을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세례도 정교회의 뿌리는 식의 세례가 아닌 침례교의 세례형식을 따랐다. 최관흠의 사역과 예식은 정교회의 예식과 달랐고 오히려 장로교, 침례교와 많은 유사점이 있었다.

당시는 제정 러시아의 박해로 인하여 신윤희, 이재순 등이 옥고를 치루고 추방을 당하였고 감리교와 동아기독교의 선교사들도 모두 추방을 당한 상황이었다. 러시아 연해주에 있던 10만 이상의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나 선교사는 최관흠밖에 없었다. 위의 상황들과 더불어 이후로 최관흠이 장로교 목사로 복귀하는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필자는 최관흠이 러시아에 남아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정교회로 넘어갔다고 추측한다. 실제로 그는 조선말을 유창하게 하는 유일한 교리 문답사였다. 연해주에 거주하며 충분한 재량권을 향유하며 부흥회도 하고 복음도 제시하며, 성경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1923년 최관흠이 정교회에서 다시 장로교회 목사로 복직이 된 후에 드캠프(DeCamp)는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는 조선 선교 현장(The Korea Mission Field) 잡지에서 조선 장로교회가 러시아에서 행한 선교 상황을 기록하면서 최관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7) 서명 РГИА ДВ, Ф.702, ОП.3, Д.238, Л.118, 118об.(1911년 11월 7일, 마나킨(М.Манакинъ)의 편지, 비밀문서). 위의 문서, 이 사건들이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1911년 10월 19일에 장로교의 전파를 막아 달라는 주교의 편지가 있었고, 이 편지에 대한 군무 지사의 답변이 11월 7일이었는데, 최관흠에 대한 추방 명령은 11월 17일이었다. 그러나 최관흠은 추방되지 않은 것 같다.

18)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1912년) 총회록, 18~19쪽

19) Владивостокская ЕПАРХИАЛЬНЫЕ ВЪДОМОСТИ(블라디보스톡 주교구 통보지), 1913년 1월 15일 자(11년 차 2호), 49쪽

정교회와 국가가 선교 사역을 매우 힘들게 하였고, 마침내 한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최관홀은 러시아 정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한인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느꼈으며, (연합)하였다.²⁰⁾

이 글을 보면 최관홀은 한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박기호는 “그가 개종함으로써 더 잘 일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만일 그가 진실로 복음을 위해서 개종하였다면 우리는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하였다.

3. 최관홀의 복귀와 연해주 조선장로교 부흥

1) 최관홀의 복귀

1918년 8월 31일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최관홀씨의 편지가 회중에게 낭독된다. 총회는 이 편지에 대해 답장하게 했고, 그 요구하는 사정을 함남노회에 맡겨 살피고 조치하게 했다. 그러나 이 편지와 총회의 답장도 찾아낼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당시는 1919년 3.1운동 전후 전국이 매우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장로교회는 연해주에서 한인 선교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1919년 9월 13일 간도 와룡동 교회에서 열린 제 4회 함북 정기노회에서 노령(러시아) 보셋트(포시에트) 지방을 시찰한 채필근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2. 지방 형편을 살펴 보온즉 두만강 이북으로 해삼위 이남까지 장이 300여리오동은 대해에 임하고, 서는 만주와 접하여 백리 내외의 광이 되는데, 남북 양 도소(남소도와 북소도)로 나뉘었으니, 남도소는 보셋트 만으로 중앙을 삼은 연해 일대 지방으로 록동, 와봉, 향산동, 보셋트, 연추상, 연추하, 연추영, 바두쇠, 쥬루허, 고개새, 해별 등 11사로 나뉘었고, 북도소는 디신허, 남석동, 재피거우, 상웅, 출남, 아즈미 상하, 한천거우, 시지미 상하, 강허즈, 참무허 등 10여사로 나뉘어 호수가 2500여호요, 인구가 2만명가량인데, 로국인과 중국인은 간혹 있을 뿐이요 전부 우리 조선

인의 식민지인데, ... 4. 종교 상태는 향산동, 보셋트, 련다우재, 연추, 바두쇠, 디신허, 아즈미, 시스즈미 등지에 희랍교 신부가 거주하고, 성당을 굉장히 건축하여, 인민의 혼례 장례와 성례 같은 일들을 지도하더니, 지금은 연추외에는 다 폐지되었고, 침례 교회는 10년 전부터 핍박 중에 많이 전도하였으나, 지금은 해별사에 몇 곳 있고 그 외에는 혹 한 두 집씩 몇 곳 있으나 지금은 사역자가 없어서 유지하지 못하여 해별사 장석현에는 성리교회로 변하였으나, 그 곳 밖에는 성리 교회도 없사오며, 5. 우리 교회 전도는 회령 매도날 목사의 파송을 받은 성서 공회 권서인 안영환씨가 작년 겨울부터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남도소 동남 일대 지방은 거의 전도를 들었사오나, 서북일대와 북도소는 아직 미치지 못하였는데, 희랍교 지도를 받아 종교상 생활에 깊은 백성들이 그 교회가 폐지된 후에는 목자를 잃은 양과 참말 다름이 없어서 우리 교회 전도인 오기를 고대하는 곳이 만사오니, 천재일시에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후회 막급일 줄 아오며, 6. 지금 예배 보는 곳은 보셋트에 10여명, 도길동에 학생과 기타 20인 가량, 록동 상소에 1?102)여인, 록동 세가름에 학생까지 20명, 박석거리에 7인이니, 다섯 곳인데, 그 중 박석거리는 남녀 청년으로 전가 기도된 집도 있고 열심히 예배 보는데, 그 동네 유력한 이에게 큰 핍박을 받았으나, 참고 견디오니, 장래에 큰 복을 받을 줄을 믿사옵고...”²¹⁾

이 보고에서는 연해주 지역에 아직 공산 정권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고, 러시아 정교회도 힘을 잃고, 조선 교회는 정교회의 핍박의 영향으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읽을 수 있는데, 특히 권서인 안영환씨의 전도가 특이했다. 채필근 목사가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자 함북 노회는 11월부터 보셋트로 사역자를 파송하되, 조사의 거주지는 보셋트로 하고, 봉급은 매달 20원씩으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함북노회의 결의는 바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1920년 2월부터 김연보씨가 연해주의 선교사로 시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연보는 러시아의 교통이 불편하고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이 전도인을 의심하고 핍박하는 일이 많아 전도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이에 함북 노회는 김연보씨의 전도 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고 그를 본국으로 소환하였다. 함남 노회도 1918년부터 박정찬을 해삼위(블라디보스톡)로 보냈으나 전황이 곤란하여 사면을 청원하였고, 이에 함남 노회는 그를 사면하였다. 다시 1919년 11월에 함남 노회는 리영희를 파송하였다. 1920년 함남 노회 시에 선교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목사인 김현찬은 연해주

20) A.F. DeCamp, ed.,(april,1923) 69쪽. “The Russian government and church made it very difficult to carry on this work, and at first rigidly limited all preaching to Koreans. Pastor Choi felt that he could better work for his people by joining the Russian church which he did, being reordained as a priest.”

21) 함북 노회 제 4회 회록(1919년 9월 13일 정기노회),43-46쪽.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지경은 대단히 넓고 광활하오며, 조선 인구 수효는 이백 만 명 가량이오며, 인민의 형편은 본국 교회에서 흩어진 교인, 희랍교에 물든 교인, 새로 믿는 교인, 믿으려는 마음이 충만한 자가 있고, 재전 권리가 소멸함에 따라 환란, 황마작의 환란, 과격파의 환란으로 재산 약탈, 인민 살해 등 다수의 민중이 환란 중에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구원하여 달라는 소리가 해삼(블라디보스톡) 천지에 가득하오니.....²²⁾

연해주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한 김현찬은 이러한 황금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을 수차례 보고하면서 그 가족들을 본국으로 철수시켜야 했다.

행마적이 각처에 창궐함으로 조선인의 곤란이 심하오며, 익칼나스카는 만여 호인데, 삼 사 집만 남고... 교인 86인의 거처 미상이오며, 수청 우지미는 마적의 충화를 당하여 60호 전부가 적지되었사오며, 탕랑수 교회는 행마적에게 일화 사만 여원을 건탈하였사오며, 아화(러시아 화폐)의 권리가 소멸됨으로 본인의 생활도 극히 곤란하여 여간한 자본까지 소멸됨으로 더욱 생활에 골몰하오며, 물가는 폭등하고, 금전 세력이 점차 폭락하니, 가옥 세금도 고등하오며, 남의 협실에서 범사에 군색하여 선교사라는 명리가 수치오며..... 가인들을 본가로 다려왔나이다. 작년 11월 16일에 도적의 손에서 행리 전부 300여원 가치를 잃었으나, 생명은 보전한 일이오며, 12월 30일 중령 요하현 지경에서 암살단의 손에서 생명을 보전한 일이오며,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러시아 다반에서 빨찌산과 희랍교도와 정당들의 암살코저하는 악한 손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전할 뿐만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진흥한 일이오며,²³⁾

김현찬의 보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갈급해 하고 있으나 사회가 무질서하고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함남 노회의 노력은 주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반하여 함북노회는 두만강 강건너 지역인 포셋트 지역을 중심으로 일하였다. 함남 노회와 함북 노회가 최관흠의 편지를 읽은

22) 함남노회 제 4회(1920년 8월 25일) 회록, 5쪽, 7쪽.

23) 함남 노회 제 5회 별노회(1921년 9월 10일) 회록, 43-48쪽.

이후 열심히 연해주선교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매는 없었고 어려움만 계속되었다. 그런데, 최관흠을 복직시킨 총회는 함북노회에서 시베리아(연해주) 시찰을 노회로 분립시킬 만큼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2) 최관흠의 목사 복직과 그 이후

최관흠은 러시아에서 1917년 10월 공산 혁명이 일어난 직후 총회(제7회, 1918년 8월 31일)에 편지를 보냈으나, 총회는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모든 처분을 함남 노회에 일임한다. 이후 만 4년이 지난 1922년 8월 31일 제 2회 함북 노회 때 최관흠은 장로교 목사로 복직되었다. 시베리아 시찰 구역의 보고 중에 “최관흠씨는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해벌하여 주심을 청원”하고, 노회는 최관흠씨의 해벌과 복직을 규칙부 의원에게 맡겨 그 보고를 받아 “근본 함경노회에서 면직한 바 지금 함북 노회에서 관할하는 지방이오, 또한 그 지방 시찰회에서 충분히 증거하여 청원하는 일인즉, 해벌하고 복직하여 본회 회원으로 받는것이 합당함으로” 신학준 시위원에게 맡겨 다시 문답하게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다.

최관흠 목사를 다시 복직하는 장립 예식은 9월 3일(주일) 청진예배당에서 오후 3시에 시작되었다. 신학준시위원이 문답이 잘되었다고 하고 장립하기를 가결한 후, 박창영 목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고 김택서, 이정화씨와 함께 최관흠씨를 회중 앞에 세우고, 목사의 서약 문답을 하였는데, “특히 최관흠씨에게 이전에 다른 교파를 신종함으로 잘못된 것과 독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이제부터 영원히 신종할 것을 권면하고” 안수례를 한다.²⁴⁾

그리하여 1922년 11회 총회에서 최관흠이 복직이 된 사실이 보고되었고, 복직이 될 때 “전도사업에 충성되이” 일한다는 전도국의 평가가 있었다. 복직이 된 최관흠은 내수청 지역(지금 연해주의 빨지산스크에 있는 우지미 교회로 청빙되었다. 장로교회 제 11회 총회는 함남·북 노회에서 시베리아 노회를 분립시켰다. 또 시베리아 지방에서 열린 부흥회에는 러시아에 있는 한인뿐만 아니라, 천주교 교인과 러시아 사람들조차 큰 감동을 받고, 정교회 교인들이 개신교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²⁵⁾ 이렇게 조직된 시베리아 노회는 제 1회 설립 노회는 모였으나 제 2회 노회는 공산 정권의 반대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폐쇄되어 조선 장로교 노회 중 가장 단명한 노회가 되었다.

그 후 최관흠 목사는 단편적으로 몇몇 노회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다. 단지 전택부씨는 그

24) 함북 노회 제 2회(1922년 8월 31일) 회록, 31-32쪽

25)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11회(1922년 9월 15일) 회록, 94쪽

의 책 “토박이신앙산맥”에서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 김재호 장로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전할 뿐이다.

해방 후 소련군이 진주할 때, 그(최관홀) 아들 최활엽(崔活燁)과 함께 평양에 나타났는데, ... 그(최관홀)는 하르빈에서 살다가 귀국했다는 것이며, 유창한 러시아어를 구사하더라는 것이다. 소련 군대가 평양에 입성할 때, 그의 아들 최활엽은 스티코프 환영사에서 ‘우리동양에서는 기독교 목사나 장로라면 그리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서양에서는 장관 대우를 받는다.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 기독교가 일어서야 한다’면서 제정 러시아 때의 일을 회상하는 듯 느껴지더라는 것이었으며, 그의 아들 최활엽은 스티코프의 통역관으로서 그 많은 적산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었으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였으며, 세금의 탈세를 하지 아니하고 제법 목사 아들다운 태도를 취하더라는 것이었다.²⁶⁾

나가며

연해주 지방은 중국의 간도와 더불어 독립운동의 주 무대가 된 지역이며 수많은 동포의 한이 서린 지역이다. 구한말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고 이후로 일제강점기 일제의 핍박을 피해 국경을 넘은 이들도 적지 않다. 그들과 함께 국경을 넘은 이들 중 조선의 선교사들도 있었다. 그 대표가 최관홀이다. 최관홀은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으로 독노회로부터 연해주로 파송을 받았고 현지에 도착과 동시에 왕성한 사역을 이어간다. 그의 사역은 철저히 한인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실제로 그는 러시아 도착 2년이 흐르기까지 러시아어를 거의 못했다고 한다. 그의 사역으로 인한 블라디보스톡 개신교의 부흥은 러시아 정교회의 경계를 샀고 1911년 조선인 전도자들은 추방을 당하게 된다. 그때 최관홀 역시 체포되어 추방의 위기에 처한다. 추방의 위기 앞에서 그의 선택은 러시아 정교회로 넘어가는 것 이었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교리문답사로 변모하여 조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지위를 얻는다. 당시 러시아에는 조선어로 된 정교회 신학서적이 전무했다. 최관홀의 러시아어 실력은 책을 읽을 수준이 못 되었으며 그에게 정교회의 지식을 조선어로 전해줄 사람도 없었다. 제정 러시아 말 공산주의 세력의 대두로 인한 극도의 혼란 속에 대륙의 동쪽 끝 변방지역의 이주민사회는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사각지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교회의 조선인 사역에 대한 권리를 독

점한 최관홀은 조선장로교에 소속되었을 때보다 더욱 사역에 열심을 내었다.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 후 볼셰비키가 득세하던 시절 또 다른 혼란기, 최관홀은 장로회 총회에 편지를 보내고 전격적으로 장로교로 돌아와 목사로 복직된다. 이즈음 연해주 지역의 교회들은 성장하여 이 지역 자체가 시베리아 노회로 분립하기에 이른다. 최관홀이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명제는 정교회로 넘어간 뒤에도 전혀 달라진 바가 없었다. 그리고, 최관홀은 자신이 정교회로 넘어간 것을 “정교회와 연합”이라 표현했다. 또, 조선에서 선교한 부두일(R.W.Foote)도 최관홀이 정교회로 ‘넘어갔다’(‘went over’ to the Greek Church)고 했고²⁷⁾, Mission Field의 편집자는 정교회와 ‘연합했다’(‘joining’ the Russian church)라고²⁸⁾ 개종이라는 단어를 피해서 사용하고 있다.

최관홀이 정교회로 넘어간 내막과 당시 그의 내면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필자는 당시 최관홀이 처한 상황과 러시아에 남은 그의 활동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추적했다. 당시 러시아에 붙었던 핍박의 정황, 최관홀이 처한 책임자의 위치, 최관홀이 정교회의 교리문답사의 권한으로 행했던 가르침과 개신교식 예식, 그리고 이후 장로교 목사로 복직되는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최관홀이 자신의 방법으로 러시아에 남아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최관홀을 가볍게 단죄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30년간 공산권 선교사로 사역했다.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예배당을 건축하여 현지인에게 사역을 넘겨주기까지 공개된 선교사의 신분으로 사역을 마쳤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공산권 창의적 선교지역에서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선교사 신분을 숨기고 사역을 하고 있다.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의 경력에 기독교 관련 경력을 숨기고 “종교”란을 공란으로 비워둘 수밖에 없다. 이런 이들에게 핍박에도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 다니엘의 행동과 비교하여 믿음없다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적대적 상황에서 홀로 남은 지도자의 어깨는 무겁고, 결단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27) W.R. Foote, “Across the Border in Siberia” THE KOREA MISSION FIELD XVIII,(October 1922): 230-31.

28) A.F. DeCamp, ed., "Foreign Mission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KOREA MISSION FIELD XIX,(April 1923): 69.

26) 전택부, 『토박이신앙산맥2, 한국 교회 사도 행전』,48쪽.

라선의 사람 사는 이야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선봉에서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산 김OO입니다. 그중에서 1년은 라진에서 일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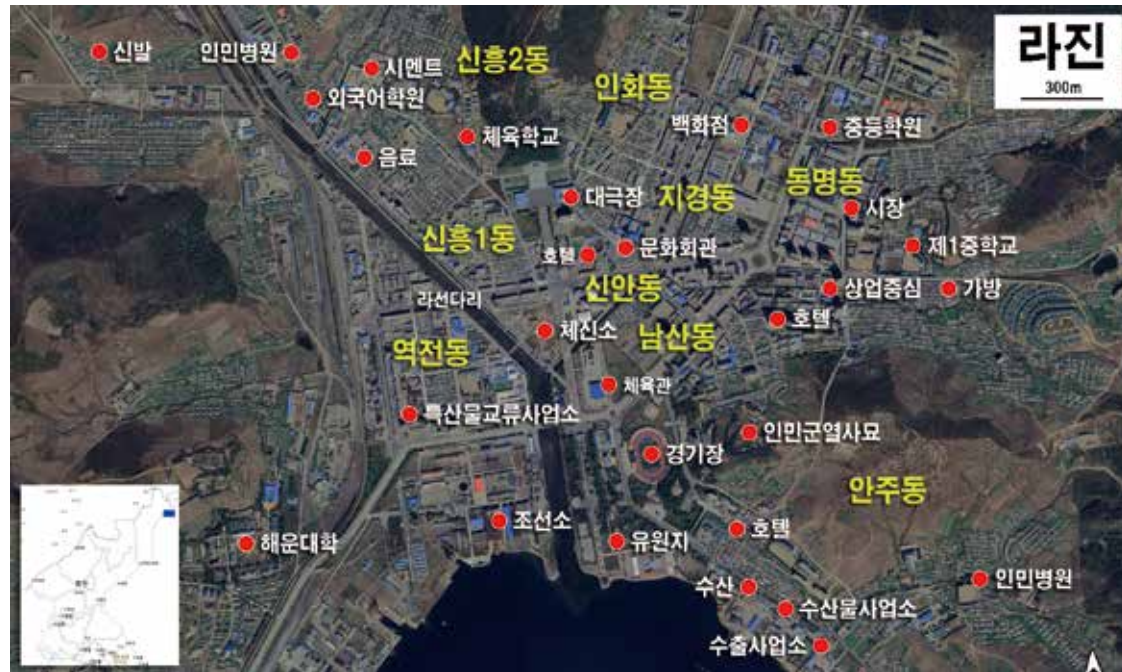
93년도에 라진, 선봉이 합쳐져서 라진-선봉시가 되었고, 99년에 라선시가 되었는데, 그때 변화가 좀 있었나요?

있었죠. 라선으로 바뀐 다음부터 선봉은 발전이 못 되고 라진이 발전했죠. 라선으로 바뀌자마자 이미 선봉에 짓고 있던 건물도 중지되고 라진쪽은 동네가 커졌죠. 그런데 제가 구글지도를 가끔 보는데 2010년에 제가 나올 때보다 훨씬 커졌더라고요. 선봉은 별 차이 없는데.

북한에서 음악하는 아이들은 학교마다 연말에 한창 준비를 해서 양력 1월 1일에 설맞이 공연을 해요. 문화회관에서 예체능계 재능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거든요! 2000년대 전에는 나진-선봉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선봉 아이들이 중심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나진 아이들이 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북한에 도시별로 1중학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라선1중은 라진에 있나요? 선봉에 있나요?

그게 라선으로 합쳐진 다음에 중학교도 라선1중 라선2중 그렇게 합쳐진다고 말은 있었는데, 결국



라진 시내지도, 북한에서 발행된 지도를 바탕으로 Google Earth에 필자 작성

합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까지도 중학교는 선봉1중, 라진1중 그렇게 따로 있었어요.

라진-선봉 간 거리는 얼마나 되죠?

버스타고 한 시간 걸려요. 북한은 길이 안 좋잖아요. 라진-선봉 다니는 버스는 보통 관곡에 한 번 서는데 길이 안 좋아서 오래 걸리죠.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라진에서 선봉 가려면 4시간 걸렸어요. 제가 라진에서 일할 때는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보통 때는 한 달에 두 번 선봉에 있는 집에 가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라진이랑 선봉 사이에 엄청 높은 고개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너무 가팔라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하고, 내려올 때는 브레이크를 꼭 잡고 엄청 조심하 내려와야 해요. 여자들 담력 없으면 자전거도 못 타요. 경사가 너무 심해서요.

두 도시가 하나로 묶이기는 했는데 그렇게 가깝지는 않네요. 도로는 어떤가요?

네 맞아요. 터널이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잘 이용 안해요. 아스팔트가 깔린 데도 있고 안 깔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깔린 데도 차 한 대 지나갈 너비라서 차가 마주 오면 절반씩 포장 밖으로 나가서 교차해야 해요.

그러면 “라선”을 묶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나눠서 얘기하는게 낫겠네요.

맞아요. 라선이라고 부르는 하는데 라진이랑 선봉이랑은 달라요.

선봉 사람들이 설 때 바람 쐬러 가는 곳이 있나요?

여름에 놀러 간다 하면 바다 한번 산에 한번 가

기도 해요. 바다는 비파도, 산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네요. 그런데 비파도를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가야 하고 산에 가도 차를 타고 가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산이나 바다에 가려면 반에 부모 중에 힘 있는 부모가 있어야 가죠. 그런데 우리 반에 힘 있는 부모가 없어도 옆반에는 힘 있는 부모가 있으니까 또 옆반에 우리반이 단체로 꺼서 가기도 하죠. 제가 말하는 차는 한국처럼 버스가 아니라 트럭이에요. 트럭 뒤에 위험하게 구겨져서 가죠. 수영수업 할 때는 바닷가에 다 가요.

선봉에 외국인들이 있나요?

선봉에 중국인들이 많죠. 상점, 직매점들이 있는데 거기 사장들도 중국 사람들 많아요. 중국 사장을 대방이라고 불러요. 저희 학교에서 한번 답사라고 해서 답사숙영소에서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2층부터는 막아놓고 그 위로는 못 올라가게 했어요. 위쪽에는 중국사람들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빵공장도 하고 식품공장 등 여러 곳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선교 목적으로 가서 사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북한에 계실 때도 외국기업체 사장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나요?

전혀요. 절대 모르죠. 기업체에서 일하면 알 수도 있을 텐데 외부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업무 때문에 외국 회사 사람들을 볼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여기 왜 들어오겠냐? 돈 말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스치듯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나중에 한국 와서 선교사님들 보니까 선봉에 왔던 분들이 있던데 저희는 그런 분들



라선에서 빵공장을 설립해 어린이들에게 빵을 공급한 선교사들, 만나선교회 제공

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죠.

대방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취업하고 싶어 하겠네요.

네 맞아요. 외국 기업체는 자체 수입이 있으니까. 쌀을 한 포대를 주기도 하고, 수산사업소 같은 데는 거기서 가공하는 것들 좀 가져올 수 있잖아요. 몰래 가져오는 거죠.

국영기업소나 대방이 하는 기업소에 특별한 직원배치 기준이 있나요?

원칙은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80-90%가 뺏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맥을 통하든 돈을 주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그런 사업소에서 일하면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국영기업소랑 대방이 하는 기업소랑 가장 큰 차이는 거기서 뺏먹을 게 있냐 없냐예요. 국영기업소에는 뺏먹을 게 없어요.

선봉에 시장은 많이 있나요?

선봉에는 장마당 수준이죠. 나진에 있는 나진시장은 환전도 하고 많이 다니죠. 선봉은 다 죽었어요.

선봉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많이 오나요?

많이 오죠. 비파해수욕장에 중국인들이 많아요. 멀리서도 중국인인 줄 알아보는 게 중국인들은 비키니를 입잖아요. 러시아인들은 90년대에는 조금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못봤어요. 그런데 2005년 이후로 한동안 라선에 러시아어 붐이 일어났어요. 북한에는 중학교에 학급이 세 개가 있으면 한 반은 러시아어반 나머지 반이 영어반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 2003년까지는 러시아어반에 절대 안 들어가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005년 즈음부터 ‘앞으로 중국 대방들 오듯이 러시아 대방들 몰려올 거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러시아어반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죠.

북한사람들 사이에서 라선사람이 부자라는 인식이 있죠?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라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만 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지역 다녀보면 다른 데 사람들은 라선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죠. 한번은 기차타고 가다가 앞에 앉은 사람이 제가 라선사람인 걸 알더니 “돈밭에서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라선 사람이 잘 살 수 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니까. 돈이 도니까 잘 사는 거죠.



북한을 찾은 중국관광객들, 사진 연변뉴스 제공

그러면 선봉이랑 라진이랑도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라선시로 바뀌면서 큰 시장이 라진에 있으니까. 그래서 선봉에서 장사하던 사람 중에 장사 잘되는 사람이 안보이면 다 라진 간 거예요. 또 라선에는 몇천만원짜리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부자들이 더 많은거죠. 시집도 “나진으로 갔다”하면 주변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라선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밝다거나 기업소에서 일도 더 잘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무리 나진이라도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방이 하는 회사 사람들이 다르긴 하겠죠. 저희 친척언니는 외국 호텔에서 일했는데, 뭔가 달랐어요.

뭐가 다르죠?

돈도 잘 벌고, 생각하는 수준도 달랐어요.

급여가 높은가요?

아니요. 급여는 비슷하데, 외국인 호텔 같은 데는 비누, 샴푸 그런 게 좋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런걸 다 빼돌리죠. 그런데 북한에서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요.

라선 내부적으로도 지역별로 경제적인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동네는 따로 없고요, 아파트가 땅집보다는 선호가 되죠. 선봉에는 아파트가 90년대 전후부터 많이 생겼어요. 상현동 쪽에 과학자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 조금 잘사는 사람들이 많은 느낌도 있었고요.

라선은 특별지역이라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원래 도시 간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다른 도시들 간에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랑 라선시와 다른 도시 간에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랑은 어떻게 다르죠?

다른 도시는 법으로는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국경 민감한 지역 빼놓고는 다 쉽게 이동해요. 라선은 그렇게 쉽게 못 들어오죠.

증명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죠?

다 다녀요. 열차마다 보안원을 비롯한 통제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담배 한 막대(한 보루)라든지 뇌물을 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열차원이 검문할 때 “보안원하고 얘기됐다”고 하면 열차원이 그냥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서로 확인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라선다녀오면 시장에 다녀온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라선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북한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할 수 있나요?

그러지는 못하죠. 장사하면서 관련된 말은 하죠.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피곤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북한은 서로 감시를 하잖아요. 외국인이 말 걸면 받아주기가 하겠는데, 하고 싶어하지 않죠. 저희 아버지가 외국인들을 만날 일이 가끔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세 명이서 하건 네 명이서 하건 그 자리에는 꼭 보안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친척이 조선족인 분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라선에 오



라진시장

면 어디를 가든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북한사람인 척하려고 웃도 후줄근하게 입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뺏지를 달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걸리면 큰일날 일이었던 거죠.

라선이 의외로 통제가 심해요. 함북에 작은 도시들은 그렇게 통제도 없어요. 그런데 라선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을 접할 일도 많으니까 서로 감시도 많이 하고 다른 지역 오가는데도 통제가 많죠. 집들끼리 감시도 더 심한 거 같아요. 라선생활이 피곤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피곤한 건지 몰랐어요.

라선 사람들이 함북 북부 주변도시들에 비해 탈북을 적게 했더라고요.

라선은 통제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사니까 탈북을 안하죠. 선봉사람들은 그나마 탈북자가 있는데 나진 출신 탈북자는 잘 못봤어요. 나진 사람들은 더 잘사니까요.

라선이 시각적으로 보기에 다른 도시랑 다른면이 있나요?

일단 거리에 중국어로 글씨도 써져 있고 울긋불

긋하죠. 중국 다녀온 사람은 중국 같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도시보다 깨끗해요. 아침마다 종을 치고 사람들 동원해서 청소를 엄청나게 시켜요. 산에 가면 금빛나는 모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캐오게 해서 도로 옆에 깔아 놓아요. 외국 사람들 본다고요.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라선사람들 특징이 있을까요?

독하죠. 원래 웅기가 옛날부터 유배지라잖아요. 그리고 라선은 엄청 추워요. 라선 바람이 ‘소대가리를 깬다’ 그래요. 원래 함경도 산골이 다 추운데, 라선은 거기에 바닷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그래서 사람이 더 독한 거 같기도 하고요. 황사도 엄청 심하고 이상하게 먼지가 안 닦여요. 황사 불 때 밖에 다니다가 얼굴을 닦으면 흙이 손에 덩어리로 묻어나요. 저희 엄마가 원래 평안도에 살다가 라선으로 왔는데 먼지 닦으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먼지도 이렇게 안 닦인다”고 도리도리 했어요.

함경북도 중심지는 원래 청진이었어요? 도인민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라선이 성장했으니까 오히려 청진보다 라선이 더 발전했겠어요?

서로 비교하죠! 제가 악기 경연대회에 자주 나갔는데 대회에 나가보면 딱 느껴져요. 청진애들은 우리보고 “너네는 시에서 온 거 아니냐? 우리는 도를 대표해서 나왔다!” 그래요. 개네는 우리를 낮춰 보고 우리



북한의 열차원, 노컷뉴스 제공

는 개네를 낮춰 보고요. 그런데 확실히 청진 애들이 빨그러졌다고 해요. 라선 애들은 덜 빨그러졌다고 그래요. 청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청진은 화교도 많고 재일교포도 많고 예전에는 라선보다 장사도 더 발달했었다고요. 이제 라선 사람들은 청진이랑 비교할 급은 아니고 평양사람이랑 비교할 일이 많잖아요. 평양 열차원, 청진 열차원 다 있는데, 라선 열차원들도 있죠. 그런데 옷이 딱 비교가 돼요 라선사람 제복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런 제복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다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천도 후지고 구겨지잖아요. 라선 열차원들은 좋은 천으로 멋지게 맞춰 입죠! ‘집단의 의복문화’가 있잖아요. 라선 열차원들은 다 좋은 천으로 맞춰 입고 다른 열차원들은 다 그쪽 수준에 맞게 적당한 선에서 맞춰 입겠죠.

“라선은 이런도시다” 라고 할 말이 있으시나요?

가버나움!

왜죠?

남편이 나중에 통일되면 자기 고향에 교회 개척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라선에 개척하자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니까요! 관광지역이기도 하고 교통, 유통의 중심지잖아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해바다로 일본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라선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남북분단 후에 라선만큼 기독교인이나 선교사님이 많이 다닌 도시가 없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라선에 다녀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외국 기독교인들도 팀으로 라선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가고 그랬다잖아요? 라선땅을 보며, 사람들 보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

라선에 사는 고운님과 이웃님, 그리고 주인님

고운님¹⁾

주인님이 보낸 고운님은 라선의 이웃님과 함께 산다.
따스한 봄바람은 오늘도 라선의 대지를 어루만진다.
고운님은 이웃님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며 봄꽃을 피운다.

라선은 우리 이웃님이 살고 있는 참 아름다운 땅이다.
북동의 반도 끝자락 두만강 하구의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다.
라진항을 끼안고 있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항구도시이다.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땅에 많은 이웃님이 살아가고 있다.

두만강 하구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
아침에 이는 바람 낮에 이는 바람 저녁에 이는 바람
한 겨울의 강 바람은 자동차를 날릴 만큼 세기로 유명하다.
그 거친 바람도 병풍처럼 둘러싼 북편의 산들이 막아 준다.

라선의 어머니 이웃님은 부지런하고 강하다.
한 아이의 어머니요 한 남편의 아내이자 조직원으로
장마당의 장사꾼으로 땀나무 해오는 나무꾼으로...
그 많은 일들은 척척 해내는 것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 곳은 바깥세상보다 부족한 게 많다.
하지만, 이웃님에게는 부족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
열심히 오늘을 살아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고 서로 독려하며 산다.

함께 일하는 이웃님의 얼굴이 점차점차 곱디 고와진다.
굳어 있던 얼굴이 펴지고 웃음 꽃이 피워 오른다.
이웃님에게 진정한 웃음은 무엇일까.
무엇이 과연 저를 웃게 만드는가 궁금하기만 하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무지 오갈 수 없다.
꼼짝없이 산 속에 갇혀 열흘을 넘게 지낸다.
책임 이웃님은 눈 길을 헤치며 먹을거리와 등불 기름을 갖다준다.
고운님을 배려하는 정성어린 심정이 고맙기만 하다.

개울물이 쫄쫄얼얼 겨우 곡괭이로 구멍을 낸다.
조롱 바가지로 떠 올린 개울 물 맛이 상큼하다.
위에서 빨래하고 아래서 물을 마시게 되니 난감하지만
그래도 마른 겨울날 물이 있어 감사할 뿐이다.

이웃님의 가슴마다 뱃지를 달고 다닌다.
이것으로 나라를 위한 충성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여긴다.
금요일은 온 이웃들이 모여 일하는 노동의 날이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는땀흘리는 이웃들을 독려한다.

토요 학습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하고 참여한다.
자기를 돌아보고 소속된 조직이 든든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웃님에게 있어 정치란 살아가는 그 자체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근대 정치 뒷이야기들은 고운님도 모르는 게 참 많다.

장마당은 언제나 북적거리고 활기차다.
고운님의 호주머니에 깊이 넣은 지갑이 갑자기 없어졌다.
운전면허증, 카드, 여권이 사라졌으니 어쩌나.. 순간 막막해 진다.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내 지갑이 날라왔다.
열어보니 현금 빼고는 다른 건 그대로 이다.
얼마나 기쁜지 안도를 넘어 감사한 맘까지 든다.

1) 고운님(필명)은 한국계 외국 시민권자로서 오랜 기간 라선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남산여관은 외국인이 처음 여장을 푸는 초대소이다.
오래 된 건물이지만 깨끗하게 정돈하고 손님을 맞는다.
봉사원이 친절하고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손님이 많아지니 머잖아 더 멋진 건물로 바뀔거라 한다.

성탄절기에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웃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웃님은 흥겹게 노래도 하고 덩실덩실 춤도 잘 춘다.
이웃님이 부르는 노래는 주인된 장군님을 기리는 사모곡이다.
언제인가 참 주인 신랑을 사모하는 노래를 준비하는 듯 하다.

라선에는 병원이 있지만 어려운 경우 청진과 평양의 큰 병원으로 간다.
평양으로 가려면 여러 날 기차로 간다.
이웃님이 허리 척추 결핵으로 평양 전문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한다.
도시락 여러개 허리 보정대를 준비하여 서둘러 보낸다.
모쪼록 잘 도착하여 치료가 너무 늦지 않도록 기도한다.

라선의 이웃님과 평양의 이웃님 간에는 보이지 않는 겨루기가 있다.
좋은 사업에는 서로 맡아서 하려고 애를 쓴다.
서로 잘 해 보려는 데 예야 무엇이 문제인가 마는
사람답게 잘 살아 보려는 몸부림은 어디나 똑 같은 듯 하다.

그 옛적 주인공의 집 터를 찾아본다.
지금은 탁아 유치원이 서 있고 어디에는 당교 사무실이 서 있다.
마을 집들은 그 날의 그 모습이건만 주인공의 집은 흔적이 없다.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니 그 날의 찬미소리 여전히 들려 온다.

땅 위에 풍조는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한 길 땅 아래는 그대로요 하물며 삼층천이라
태초에 거룩한 이 땅이여 흰웃입은 이웃님이여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잊혀진 노래는 다시 울려 퍼지리

저술령은 라선의 아리랑 고개이다.
산마루 턱에 서 보니 구름도 쉬어가는 고모령 같구나.
고불고불 고개 숲 길에 이웃님이 장마당 봇짐을 나른다.
이른 새벽부터 밤 길을 부지런히 나른다.

겨울날 북편의 빙판 고갯길을 치고 오르기란 정말 어렵다.
헛도는 바퀴 앞에 모래 뿌리며 오르려니 걷는 게 빠른 때도 있다.
이제 포장 길을 달리게 되었으니 그 고생 길이 어제로구나.

라선 봄날의 아지랑이는 불길처럼 타오른다.
종달새가 되어 하늘 높이 떠오른다 아리랑을 부른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어느날 이웃님의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이웃님은 고운님에게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마라 한다.
멀리 가지는 말고 조금만 떨어져 있으라 한다.
저 만큼 떨어져 있다한들 봄바람을 막을 수 있으랴
밀려드는 강물을 독으로 막을 수 있으랴

또 한 번의 어두움이 몰려온다 찬바람이 분다 눈이 내린다.
고운님이 새벽을 깨운다 하늘 향해 기지개를 편다
따스한 봄 기운이 온 땅에 퍼진다 눈이 녹아 내린다.
눈 녹은 대지 위에 새싹이 솟아 오른다. 🐣

라선과 주변도시 출신의 유명인

최재형(崔在亨, 1860-1920)



최재형은 1860년 8월 15일 함경도 경원도호부(현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났다. 1869년 고향 경원도호부를 비롯한 두만강 부근 6진 지방에 큰 흉년 및 기근이 닥치자, 그해 가을 아버지, 형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 청나라를 거쳐 연해주 지신허(地新墟)에 정착했다. 1890년대에 이르러 최재형은 전러시아 면장대회(1894)와 니콜라이2세 대관식(1896)에 참석하는 등 러시아 한인사회에 대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을사조약 이후 항일애국운동에 가담하게 되어 1908년에는 동의회(同義會)를 조직하였고, 이후 대동공보 사장(1909), 권업회의 발기회 회장과 총재(1911), 회장(1913), 로마노프황실 300 주년 기념행사 참가 한인대표(1913), 권업회 회장 및 한인이주 50주년 기념회 회장(1914), 연추면 집행위원장(1917), 니콜스크-우수리스크 군자치회 의원 겸 감사위원장(1918), 시베리아 의회 파견 한인대표(1918), 대한국민의회 외교부장(1919) 등 한인사회의 주요단체의 핵심인물로 활동하였다. 러시아 한인사회의 교육과 실업 발전을 위해 물질, 정신적으로 공헌하여 한인사회의 후일에 대비했고, 한말이래 항일운동 전선에서 활동함으로써 수많은 재산을 상실하기도 했던 최재형은 결국 1920년 4월참변 당시 시베리아출병 일본헌병대에 의해서 체포, 학살된다.

참고: 반병률, “안중근과 최재형,” 『역사문화연구』 제33집 (2009)

송창근(宋昌根, 1898-1951(추정))

송창근 목사는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면에서 출생했다. 일찍 개화사상과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고향에 세운 북일학교를 거쳐 만주의 명동중학교에서 수학한 후 경성부의 피어선기념성경학원(현 평택대학교)을 졸업했다. 이후 일본에 유학하여 1926년 아오야마학원과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펜실베이니아주의 웨스턴신학교에서 신학석사(1930년)를 거쳐 콜로라도주의 덴버에 있는 아일리프대학교에서 신학박사(1931년)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하여 평양의 산정현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며 1932년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으나, 기존 교단의 신학과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936년 담임목사에서 물러난다. 이후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1939년 2년 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가석방으로 출옥한 뒤 일제가 여러 교단을 통합해 강제로 조직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에서 활동했다. 1940년 평양신학교가 폐교한 뒤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를 김재준과 함께 설립하였다. 1945년 12월에는 서울역 인근에 서울성남교회의 전신인 바울교회를 설립해 목회하던 중 6.25가 발발하여 서울이 조선인민군에게 점령되어 있던 8월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독교도연맹회의에 박헌명 목사와 함께 참석했다가 납북되었다. 1951년 7월 경 평양 인근인 대동군에서 병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재준(金在俊, 1901-1987)

김재준 목사는 1901년 경흥군 상하면에서 태어났다. 성인이 된 그는 일본 도쿄 아오야마가쿠인 신학부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웨스턴신학교(현재 피츠버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였으며, 1933년 평양 송인상업학교에서 교목 겸 교사로서 성서를 가르쳤다.

1940년에는 조선신학교(현재 한신대학교)를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성경 유오설”을 주장한 이유로 195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8회 총회에서 목사직을 파면되었다. 이에 김재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은 독립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를 형성하였다. 이후 기독교장로회 교단과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는 김재준 목사에게 2002년 12월 27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였다. 김재준 목사는 찬송가 582장(새찬송가, 통일찬송가 261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의 작사자이기도 하다. ☹️



라선과 주변도시의 음식




함경도 특산인 영채김치는 영갈채갓김치, 혹은 산갓김치라고 부른다.

바다를 낀 라선(라진, 선봉)은 수산물물론이고 산이 많고 토질로 보아 목축과 콩, 감자 농사가 적합하다. 두만강 변에는 옥수수밭과 논이 펼쳐져 있다. 강변은 겨울에 모래바람이 심한데 이 문제만 없다면 사시사철 천혜의 농, 축, 수산 지역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의 여러 지역을 다녀본 이들에 의하면 라진의 식당에서 파는 냉면이나 쟁반국수에는 다른 지방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 있다.

함경도 북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영채김치가 있다. 북한의 백과사전을 보면 ‘함경도 특산인 영채김치는 영갈채갓김치, 혹은 산갓김치라고 부른다’고 적혀 있다. 담그는 방법은 ‘해마다 가을이 오면 산갓의 잎을 따서 소금에 절인 다음, 파, 마

늘, 생강, 고춧가루를 두고 향아리에 넣어 봉하였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밥반찬으로 내놓는다. 영채김치는 색이 누르스름한데 맵고 상쾌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적혀 있다. 영채김치는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한 중국 연변의 대표김치이기도 하다. 동북삼성의 대형마트를 가보면 연변 혹은 청도에 공장을 둔 조선족 김치회사가 만든 김치들을 만날 수 있는데, 김치, 깍두기와 더불어 영채김치는 빠지지 않는다. 맛과 음식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영채김치는 얇은 열무김치 정도로 느껴진다. 실제로 영채는 초록색에 생김새도 열무김치와 비슷하다.

함경북도도 다른 지방에 비해 좁고 겨울이 길어, 저장할 수 있는 김치와 식혜요리가 발달하였다. 또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어장인 동해에 인접하여 명태, 청어, 대구, 연어, 삼치 등 생선이 잘 잡혔다. 명태도 많이 잡혔으나 명태는 함경북도 남부와 함경남도에서 더욱 많이 잡히고, 함경북도 북부에서는 정어와 청어리가 많이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해수온도 변화로 명태와 정어리는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비친 라선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라선 소식-

북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밀작업' 이후 포착

북한은 또 러시아어·중국어판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우방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제작된 영상물이 여러 편 올라왔다. 평양에서 최근 열린 '봄철여성옷전시회'나 우수 농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지금껏 대외 홍보 영상을 주로 영어로 만들어 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러시아어·중국어판 영상을 통해 양국에 친근감을 호소하는 한편, 의류 등 북한의 경공업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년간 지속된 북중 국경 봉쇄조치가 6월에 해제된 가운데 북한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의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 'NEW DPRK'(새로운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 'NEW DPRK'에 올라온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홍보 영상. '연미'라는 여성 유튜버가 유창한 중국어로 시설을 소개하며 보여주고 있다. NEW DPRK 영상 캡처, 한국일보

북한)에는 5월 22일 한 여성이 중국어로 북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앞서 데일리NK는 “나선시 구석구석에서 보이는 농촌풍경을 아주 없애고 도시화해 전반적으로 관광지구의 면모를 갖추도록 할 데 대한 방침 지시가 3월 27일 나선시 인민위원회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참고: 한국일보, 5, 23)

라진항에 '만경봉 - 92'호 입항 - 북러 물자 교류 가능성

라선특별시 라진구역 창평동에 소재한 라진항은 과거 러시아가 자국산 광물을 이곳으로 운송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하는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가동했던 곳이다. 하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이후 별다른 활동이나 움직임이 없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입항한 북한 '만경봉-92'호(사진=조선의 오늘)



라진항에는 3개의 부두가 있는데, 러시아가 50년간 임차해서 사용 중인 500m 길이의 전용부두가 있으며, 이곳 항만에서 최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92'호가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 (사진=Planet Labs)

이곳에 최근 '만경봉-92'호가 모습을 보이면서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10월 13일(현지시간) 라진항에 있던 컨테이너 수백 개가 러시아로 운송되고 철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지역 탄약고로 옮겨졌다고 밝힌 바 있다. SPN뉴스는 '만경봉-92'호가 라진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간 선박 운항 경로까지 위성사진을 분석했다.

라진항에는 세 개의 부두가 있는데, 철길이 부두 안쪽까지 연결돼 있다. 1번 부두는 중국이 임차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3번 부두는 러시아가 2008년부터 50년간 임차해서 사용 중이며, 2번 부두는 북한이 사용하고 있다. 1번과 2번 부두는 길이가 300m이고, 3번 부두는 500m로 세 부두 중 가장 길다.

3번 러시아 전용부두에는 과거 석탄 더미가 가득 쌓여 있었고 대형 화물선 출입이 빈번한 편이었으나, 유엔 대북 제재 이후 급격히 활동이 줄어들어 최근까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10월 1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러시아 전용 부두에 선박은 보이지 않고, 한쪽에 자그만 석탄 더미만 덩그러니 방치된 것이 식별된다. 반면, 1번

중국 전용부두에는 6척~7척 정도의 선박이 정박해 있고, 300m 길이의 대형 석탄 창고건물도 보인다.

한편, 라진항에는 160m 길이 '만경봉-92'호 화물여객선의 모습이 최근 빈번히 포착되고 있는데, 이 선박은 사람과 화물 운송이 모두 가능하다. 이 배가 라진항에 들어온 것은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지는데, 라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이를 오가며 인적·물적 교류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이 커 보이며,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북러 간 육상 교통로는 두만강역을 경유해서 하산역으로 이어지는 철길 운송 수단이 유일한데, 세계의 위성 감시망을 분산시키고, 운송 수단도 다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항구를 통한 선박 교역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참고: SPN뉴스, 정성학)

북러 수출입 관련한 두만강역·나진항 간부, 비리 행위로 체포

10월 9일 데일리NK는 두만강역의 참모장과 나진항 수입수출품 관리대 관리대장이 지난달 중순 하루를 걸러 중앙에서 파견된 특별수사단에 의해 체포됐다고 전했다.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방성, 군 보위국 성원들로 조직된 특별수사단은 앞서 내부 고발된 이들의 비리 행위들을 하나하나씩 모아두고 암암리에 증거들을 캐냈고, 혐의가 명확해지면서 나진시 당 위원회에 내용을 종합해 문건을 보냈다고 한다.

데일리NK는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수입수출품을 취급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것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극비리인 조려(북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두만강역. /사진=데일리NK

러) 수출수입품 목록을 자필로 복사하고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에 주목해 그 이유에 대해 밝혀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NK에 의하면 현재 특별수사단은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첫째는 문제가 되면 상급들도 개입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쓰려는 심산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둘째는 기밀문서를 적에게 넘기는 간첩행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보고 의심하고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특별수사단이 철도역과 항구에서 조려 수입수출에 관계있는 실무 일꾼들을 체포하고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무기명 밀고를 지시하고 있어 분위기가 바짝 얼어붙어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두만강역과 나진항 실무 일꾼들이 썩 교체될 수 있다는 여론까지 돌고 있어 분위기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참고: 데일리 NK, 2023.11.09)

北, 지방할거주의 지적하며 나선 무역회사들에 재정비 지시

12월 15일 데일리NK는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활동하는 일부 무역회사들에 재정비 사업을 진행

하라는 대외경제성의 지시문이 지난 10일 내려졌다”고 전했다.

데일리NK의 소식통에 따르면 대외경제성은 이번 지시에서 나선경제특구에서 수입, 수출 활동을 하는 일부 무역회사들이 특권을 가진 것처럼 여기고 무역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제멋대로 하는 등 ‘지방할거주의’, ‘현대종파분자’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고 심각하게 꼬집었다.

나선경제특구의 일부 무역회사들이 국가 주도 무역구조를 약화하고 경제의 분절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집권적 통제와 관리 밖의 무역 경제 활동에 대해 자체 검토서를 올려보내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경제성은 무역회사들에 러시아 측과의 합영 조건을 개선하고 무역일꾼을 재배치하는 사업을 내년 1/4분기까지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북한은 유일하게 국경이 맞닿아 있는 러시아 연해주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레고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가 연해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찾았으며, 12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 협조를 보다 높은 단계로 올리기 위한 문제를 토의했다. (참고: 데일리 NK, 12, 10)



라선시 전경(사진: 데일리 NK)

동북아 다자 협의체 광역두만개발 계획 총회... '선양 선언' 채택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가 지난 6일 중국 선양에서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GTI의 협력 우선 분야 등을 포함한 '선양 선언'이 채택됐다.

GTI 회원국들은 선언문에서 역내 공급망의 효율성·회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 연결성 증진, 청정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이 적절한 시기에 GTI에 재가입할 것을 희망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에서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유일한 협의체인 GTI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등의 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장"이라고 밝혔다. 광역두만 지역은 중국 동북3성, 내몽골, 북한 나진·선봉, 러시아 연해주, 한국 동해안 등을 말한다. (참고: 연합뉴스, 2023, 12, 7, 사진: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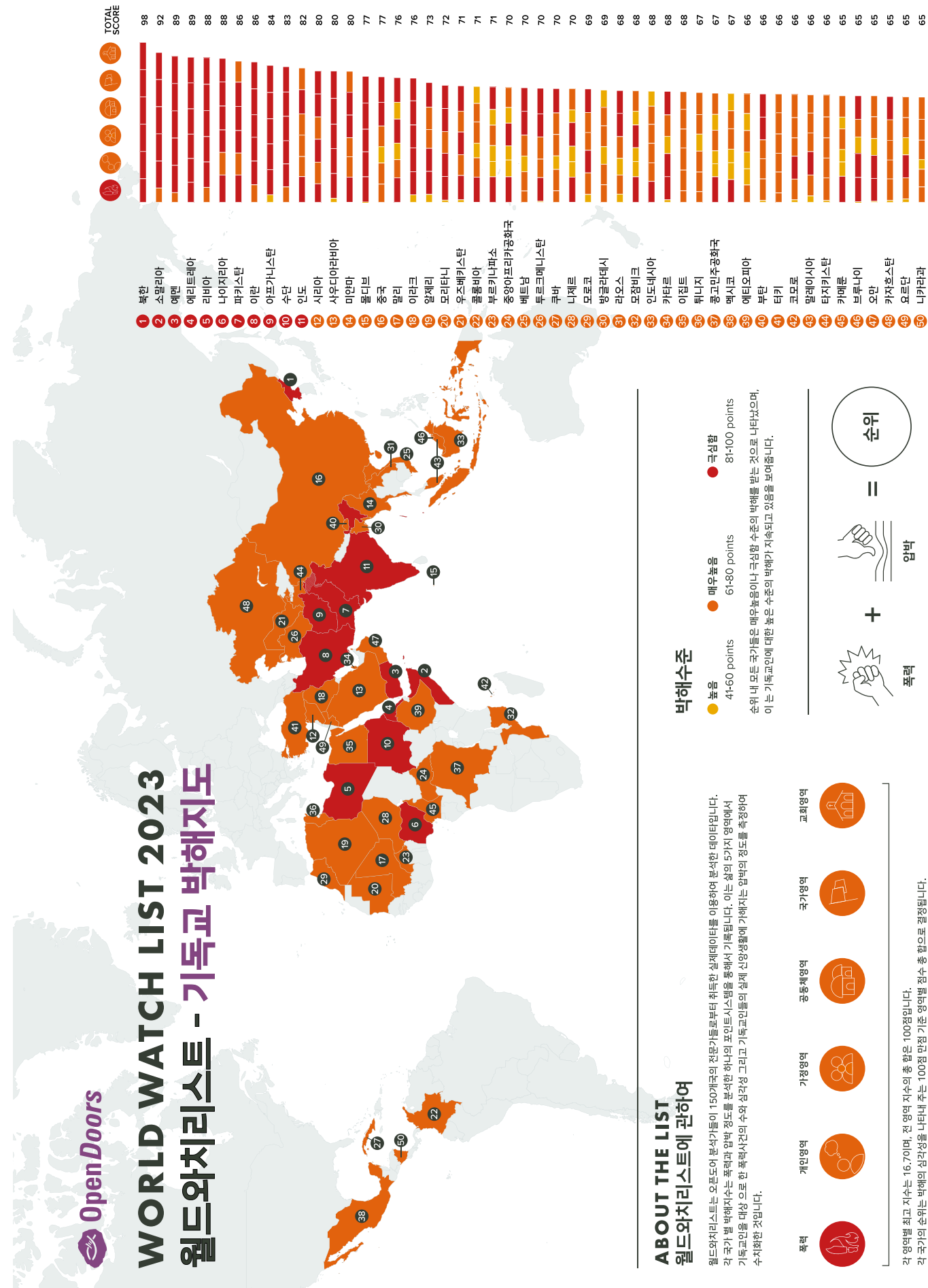
최근 노동신문에 보도된 라선의 사업소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월 17일 라선시의 양정사업소 개건현대화 공사 결속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에서는 양공 가공의 질을 높이고 그 가짓수를 늘일 목표 밑에 양정사업소의 개건현대화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였다"라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월 22일 "라선시에서 백학산식료종합가공공장을 개건했다"며 "질 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해 인민들 식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참고: 노동신문, 뉴스 1)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부터 발간합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